

기독교를 뒤집어 읽어도

오강남 박사가 말하는



# 그런 예수는 없다

박 진호

“인간 개우침의 종착역은 스스로는 개우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우침의 예수는 지식인과 종교인의 전유물이 될 뿐이다.”

## 그런 예수는 없다

영화 ‘벤허’에 잊지 못할 명장면이 하나 나온다. 주인공 벤허가 예루살렘 총독을 살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죄사슬에 묶여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도중 조그만 시골 동네 우물가를 통과한다. 죄수 호송대장이 모든 죄수에게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나 벤허에게만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아무 주저함 없이 벤허에게 물을 떠 준다. 감히 자기 명령을 어긴 이 사람을 채찍으로 치려고 대장이 가까이 오는데, 그 얼굴 표정이 클로즈업되면서 기막히게 변해가는 장면이다. 그 시골 동네는 나사렛이었고 그 사람은 예수였다.

벤허라면 사륜마차 경주 장면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다. 이만큼 예수에 관해 잘 만든 영화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예수는 단지 몇 장면만 나오는데 그것도 얼굴이 정면으로 비춰진 적이 없다. 이 장면에서도 예수는 화면에 등을 돌린 채 서 있고 호송대장이 당장 처 죽일 듯이 오다가 차츰 주눅이 들면서 고개를 가웃거리며 슬그머니 꿈무늬 빼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정면 얼굴도 비춰지지 않았지만 일반인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세가 예수에게서 풍겨 나왔다는 뜻이다.

참 신자는 예수의 초상화를 집에 걸어 놓거나 예수가 어떤 얼굴을 했을까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다. 스칸디나비아 사람처럼 예수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그랬을 따름이다. 마치 부처의상이 한국에선 관상학적으로 가장 후덕한 인상만 골라 조각되어지는 것과 같다. 한국의 부처상을 두고 인도 사람처럼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다. 설령 그렇게 따질지라도 조각 불상이 부처가 아니라 참 부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독교는 특수한 지역, 특수한 시대에 만들어진 일방적인 예수 상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는 어디까지나 나사렛과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며 병을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다. 역사적으로 실존한 성경 속의 예수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린 예수는 이미 예수가 아니다. **특수지역, 특수시대에 만들어진 예수를 일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수상을 만들어 새롭게 믿어야 한다는 것**

## 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야 할 예수 상은 복음서를 넘어갈 수 없다. 거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다. 예수의 외모만 해도 그렇다. 4복음서에 외모·체격·기질 등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다고 해서 혹시 실존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필요 없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 까닭은 두 가지뿐이다. 외모나 체격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거나, 그것들이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다는 핑계로 예수의 모습을 서구인들은 서구식으로 한국인들은 한국인 식으로 그려내면 안 된다. 꼭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 30대 초반의 유대인 남자를 한 1만 명쯤 모아놓고 가장 평균 키에 보통 체격과 평범한 얼굴을 골라내면 된다. 이마가 반듯하거나 눈이 호수같이 신비로웠거나 키가 남들보다 한 자가 더 크거나 힘이 출중했거나, 눈에 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사 53:2).

외형상 뛰어난 특징이 없었다는 것은 그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오히려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어려서부터 지능이 아주 뛰어났고 교육을 최고 수준으로 받았다고 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그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요 7:15)라고 의아해했다. 제자가 된 나다니엘조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라고 반문했다. 세상적 배경이나 인간적 강점으로 예수가 예수 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로서는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른다.

자의적인 평가·분석·판단으로 예수를 대하면, 자신의 사상·철학, 심지어 자화상이 투영된 자기가 만든 예수가 된다. 예수는 일대일로 만나야 한다.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만나져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3, 5). 자기가 분석한 예수야말로 거짓 예수이며 그런 예수는 없다.

## 일려두기



본서는 오강남 박사가 지은 '예수는 없다'(2001년 5월 31일 현암 출간)를 똑같은 제목과 순서대로 기독교 복음주의 입장에서 반박한 책입니다. 기왕에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비교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이 책만 읽고도 반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각 단락의 서두에 그 책의 중심 사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 박사님 책의 구절과 표현들을 많이 인용하기 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따옴표를 붙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전자책 버전으로 개정하면서 (2015. 5)....

전편의 모든 내용은 그대로 두되 그 표현만 간략하고 쉽게 고쳤습니다. 유명모, 함석헌, 톨스토이, 한 스님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빼고 일반적인 논증으로 바꿨습니다. 간단히 그 개인의 신앙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의 무저항주의만 논의한 것이기에 이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진홍 목사 에 관한 부분은 그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자책 특성을 살려 차례의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본문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 차례



과연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 ★ 9

들어가면서 - 인간이라면 비겁하게 살지 말자! ★ 22

### 1.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 28

“우리 아빠 최고” ★ 28

무엇이 문제인가? ★ 31

기독교 패러다임의 천이 ★ 38

벌거벗은 임금님과 당나귀 귀 임금님 ★ 45

허스키와 진돗개 - 내 종교만 종교인가? ★ 51

세 부류의 사람들 ★ 56

신앙의 여섯 단계 ★ 58

두 가지 사유 방식 ★ 61

### 2. 성경대로 믿는다 ★ 64

기 목사의 성경관 - 성경대로 믿는다 ★ 64

홍부전과 성경 ★ 70

창조 이야기의 딜레마와 교훈 ★ 73

아담의 갈빗대? ★ 81

<a href="#">선악과 - 이분법적 의식의 출현</a>	★ 85
<a href="#">노아 홍수를 따져보면</a>	★ 92
<a href="#">경상도 시리즈와 성경</a>	★ 95
<a href="#">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책인가?</a>	★ 98
<a href="#">단군신화와 기독교</a>	★ 99
<a href="#">베들레헴과 백두산 기슭</a>	★ 103
<a href="#">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몇 가지 경우</a>	★ 106
<a href="#">예수님의 성경 읽기 - '환기식 독법'</a>	★ 110
<a href="#">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는가? - 두 가지 문자주의</a>	★ 116

### 3. 잘못된 신관은 무신론만 못하다 ★ 124

<a href="#">"시요을 기억하며 읊으노라"</a>	★ 125
<a href="#">하나님은 남자인가?</a>	★ 129
<a href="#">하나님 어머니</a>	★ 137
<a href="#">실제적 다신론</a>	★ 142
<a href="#">실제적 무신론</a>	★ 146
<a href="#">부족신관</a>	★ 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ref="#">.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하나님 - 초애굽 이야기</a></li> <li><a href="#">. 잔인하신 하나님 - 가나안 정복 이야기</a></li> <li><a href="#">. 장애인을 차별하는 하나님 - 제사장 제도</a></li> </ul>	
<a href="#">옭법주의적 신관</a>	★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ref="#">. 양으로서의 하나님</a></li> <li><a href="#">. 옭법주의적 믿음과 삶</a></li> </ul>	
<a href="#">조건부 신관 - 이기적 신앙</a>	★ 175
<a href="#">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a>	★ 180
<a href="#">하나님과 생태계 문제</a>	★ 184
<a href="#">신은 존재냐 비존재냐?</a>	★ 187
<a href="#">어느 신학자의 신관</a>	★ 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ref="#">. 초자연주의 신관</a></li> <li><a href="#">. 흔들리는 신관</a></li> <li><a href="#">. 초월이나 내재냐</a></li> <li><a href="#">. 초월도 내재도</a></li> </ul>	

#### 4. 예수는 없다 ☆ 211

- [예수님은 하나님으신가?](#) ☆ 211
- [예수님의 성\(性\)생활](#) ☆ 219
-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 222
-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 228
- [탄생 이야기에 얽힌 몇 가지 의문](#) ☆ 234
-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배경](#) ☆ 244
- [청년 예수](#) ☆ 248
- [싸움꾼 예수](#) ☆ 254
- [싸움 말리는 예수](#) ☆ 258
-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 262
- [성불하신 예수님](#) ☆ 269
- ['자비' - 어머니의 태\(胎\)처럼\(womb-likeness\)](#) ☆ 272
- [일반인에게 비친 선생의 예수님](#) ☆ 280
- [불신자들의 또 다른 양상들](#) ☆ 288
- [잡다한 기법](#) ☆ 295

#### 5. 지금 여기에서의 Mission ☆ 302

- [철수의 어린 시절](#) ☆ 302
- [어느 신학자의 선교관](#) ☆ 306
  - 배타주의에서
  - 다원주의로
  - 지구적 책임
- [교회는 강아지 훈련소가 아니다](#) ☆ 321
- [하룻강아지 진리 무서운 줄 모른다](#) ☆ 323
- [기독교 - 누가 천당에 갈 수 있는가?](#) ☆ 327
- [땅 끝까지?](#) ☆ 332
- [선한 사마리아인](#) ☆ 336
- ['지금 · 여기'에서의 mission - 하나님 나라의 건설](#) ☆ 340
- [메타노이아](#) ☆ 342
- [그들도 우리처럼](#) ☆ 345
- [저작 후기](#) ☆ 353





## 과연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

최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고 일부 기독교인들까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게 된 것은 기독교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수정한 것은 카톨릭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과연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위선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 “과연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라는 오해를 심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일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사는 모습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혼동해선 안 됩니다. 성경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드러난 영혼 구원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항상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었고 지금도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할까?”였지,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을까?”는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경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생각입니다. 저는 한 무명 목사입니다. 종교적·신학적 지식이 사계의 전문가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함을 자인합니다. 33살이 넘도록 소위 예수쟁이들을 죽도록 싫어했으며 완전한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처녀 때부터 신자였던 아내를 결혼하면 같이 교회 나가겠노라 속여선 막상 결혼 한 후에는 입을 싹 닫고 아내까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내 눈앞에 성경이 보이기만 해봐라. 당장 불 질러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집안에서 성경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경이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뒤에는 그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에 매료되어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바쳐 말씀의 우물 안에서 헤엄치기로 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을 에베레스트 산꼭대기로 직접 모셔 갈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정상에 올랐다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바쳐 말씀을 연구해도 그 진리의 우물 맨 밑바닥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우물에서는 어느 깊이에서 물을 떠도 맛이 동일하듯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조명하면 그분은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목사는 자기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컨텍스트(Context)에선 시대와 사람에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만약 이 주제를 벗어나면 성경을 목사가 기록하는 것이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록 간혹 저 자신 부끄러울 정도로 무식이 드러나겠지만 성경 속의 예수님은 저의 그런 해석과 상관없이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이 글을 쓰는 동안 저의 모든 부족한 점을 가려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이 더하거나 빼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비 기독교인들은 자칭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택해 무슨 장비로 어떻게 올랐는지 경험담을 듣고 자기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상에 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세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그것도 도덕적·학문적인 측면에서만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본인이 정상에 오른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죽기 직전 그 본인에게 “당신은 정상에 올랐다고 확신합니까? 정말 당신이 이야기한 것들이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자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성경보다 저명한 신학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기의 학문적 유식을 자랑하고 싶은 치졸한 교만이거나,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읽어보지 않았다는 성경적 무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명 신학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성경 해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을 우선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를 비평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제대로 깊이



있게 읽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들 비교종교학적, 교리적,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깊이 있게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거나 알아보려는 갈급함 없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일대일의 관계에 들어가기로 소원할 때는 특별한 신학적 지식 없이 단 한 줄을 읽어도 그 속에서 진리가 배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더 깊이 감춥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마 11:25) 하나님이십니다.

20세기 서구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C. S. 루이스(Lewis)는 ‘기독교란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는 진술이고 진리라면 무한히 중요한 진술이다. 기독교는 어중간히 중요한 것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신 말씀이 미친 소리거나 정말 심각한 진리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The Bible-the book이란 의미)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연구만을 위한 연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성경을 연구하지만 ‘어린아이’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딤후 3:15).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지할 때만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2천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 동양의 종교적 ·

정신적 유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만 있으면 됩니다.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코 기독교가 혼자서 활개 치며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자기 것만 진리라고 하는 ‘종교적 제국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 종교와의 관계에서 고려되지 않는 신학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간혹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그 주장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여 사람들로부터 관용의 미덕을 베풀 줄 아는 도량 넓은 신학자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신학자란 자기 집 뒷마당이나 파보고 지구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큰소리치는 지질학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 뒷마당이라도 제대로 파보고 자기 집 뒷마당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전하는 자라야 참신학자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정과 환경에서 자라고 주일을 꼬박꼬박 지켜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신하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 없이 성경을 대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기독교 종교체계가 산출해낸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조직·교단·교파·교리·신학자와 목회자와 교인 등, 모든 기독교 관련체계로서의 기독교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기독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단순히 전자를 기독교의 전부 내지 본질인 양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가 저지른 잘못으로 후자의 기독교마저 매도됩니다. 기독교에 동양의 지혜가 필요하다든지, 기독교에 드러난 종교적 제국주의·국지주의적 신학·부족신관 등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둘을 정확히 구별해서 후자



를 전자에서 분리해 낼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는 데 지혜가 부족하니 시대 조류를 참작하고 신학자들의 주장도 보완하고 동양의 지혜와 사상을 빌려와 성경을 수정·보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종교적 제국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국지주의적 신학이나 부족신관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전부 “노” 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며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예수에 대한 전통적 교리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또한 기독교가 새로운 바람이나 물결에 대처하고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체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조류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전 세계 60억 명 중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어도 즉, 기독교 체계는 흔적 없이 사라졌어도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신령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한치도 손상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완전히 거두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믿는 것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에 속하며 그 자유를 탓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성경의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왕”이라

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믿지 못하면 둘 중에 누가 잘못이었는가는 둘째 치고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참신자라면 성경의 진리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그들이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부터 먼저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간절히 합니다.

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 전체적 문맥, 저자의 의도, 당시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 문학적 표현기법, 상징적 영적 의미, 성경의 다른 책과의 관계, 성경을 일관하는 주제 등 모든 것을 감안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11)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독교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비유법과 대조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었기에 무엇과 무엇이 서로 비유 또는 대조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11절은 10절과 12절의 의미를 보충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등장한 삽입절에 해당하며 이 문맥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10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10절)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12절)를 11절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어린이’,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게’, ‘부분적’이 한 짝이고 ‘장성한 사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온전히’가 다른 한 짝입니다. ‘어린이’는 신자가 이 땅에 있는 현재 상태이고 ‘장성한 사람’은 미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맞대면할 때를 말합니다. ‘버렸노라’가 과거시제처럼 보이지만, 10절의 ‘폐하리라’와 12절의 ‘볼 것이요’, ‘알리라’와 같은 시제로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0절과 12절을 잘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어린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성장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삶은 영생의 완전한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이므로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의 완전한 것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과거에 유치했던 신앙상태-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종교제국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다른 종교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서로 관용해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장성해야 할 믿음의 상태로 자라라고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은 기독교 진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득불 자랑할 것”(고전 9:16) 이라고는 복음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롬 1:2)으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고전 1:18)이 된다는 데 있지, 바울도, 성경도, 예수님도 기독교 진리가 변해야 한다고 말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진리 안에 유치한 것과 고급한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여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고 건전한 믿음, 우리를 신나게 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어 예수님 당신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유치하고 치졸한 믿음, 쓸데없이 우리를 속박하는 믿음은 기독교적 체계에 일희일비하며 예수에 대해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인간적 지혜와 슬기를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구조조정은 온갖 자기 신학을 뺄내는 종교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전혀 없이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의 예수를 무시하고 학문의 예수를 주장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비평에 현혹되어 그들의 주장에 호응하거나 진리를 왜곡시켜선 안됩니다. 진리를 포기하면서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비평을 잠재워보려는 시도는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저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어지고 하나님을 타협하면 전부를 내놓으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신에 단 한 명의 신령한 자라도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을 때는 기독교가 구시대의 유물로 퇴락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순교자는 나왔을지라도 말입니다. 기독교적 체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욱 성경의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구조조정이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신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일반적 용어와 비유로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야말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장 많이 가



졌던 자로 어느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적인 시각으로 기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들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적 체계의 문제이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지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저 같은 자가 거꾸로 읽어도 그 속에는 영원한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만민 제사장직’을 주장했습니다. 현대의 일반인들도 신학에 어느 정도 조예를 가져야 한다는 ‘만민 신학자직’ 주장은 저도 공감합니다. 신자들이 오도된 신학에 휩쓸려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른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바른 신학이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첨단(?) 유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 신학을 말합니다. 교회마다 신자들이 신약의 요한복음·로마서·갈라디아서, 또 구약의 창세기·출애굽기·욥기·이사야서 같은 책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강단에서도 인격적인 훈화나 시류에 편승하는 관념적인 사상을 전해선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신학을 알아야 한다면 유명 학자들의 조직신학 책부터 보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낸 후에 이를 신학적 바탕 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학이 성경보다 우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Augustine)이 말한 대로 ‘알기 위해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분명하고도 체계적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믿어져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이 찾아와서’, 심지어 ‘어쩌다 보니’ 등등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맹신적·미신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영적 접근을 요구하지 신학적 접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믿은 믿음을 신학으로 걸러내고 변경하고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평신도가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벧전 3:15)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신의 영적 소망을 부단히 키우고,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소망을 체계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 33살이나 되어 처음 예수를 믿은 이후 성경 말씀이 너무 오묘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갈급함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이런 질문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목사들은 일반적인 문학·교양·철학·사상 책은 잘 안 보고 기독교 관련 책만 보느냐?” 성경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면 자칫 교만으로 비칠까 싶어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평생을 두고도 성경도 제대로 다 보지 못하는데 그런 책들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는 확실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평생을 바쳐 성경만 파헤쳐도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 중에 몇 알 집어든 정도밖에 안 될 만큼 그 은혜와 권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캐낸 한 알만으로도 인간의 삶과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 10:5)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난 자는 예수님 외의 이야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일반 사상과 철학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지적 요구·도덕적 권면·종교적 필요는 충당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실현하는 데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할 일은 신자들의 도덕·사상·종교 교육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안고 들어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저에게 지적인 황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황홀감을 맛보게 해줍니다. 주님이 제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있음을 확실히 체험해가며 읽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그분이 먼저 한숨 쉬고 눈물 흘리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제가 웃으면 따라 웃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있는 것을 분명히 듣고 느낍니다.

과학과 상관없이 믿는 것은 미신이요, 이성의 동의 없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 없이 믿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받아들여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전 일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붙들지 않고 현대 신학자의 사상을 먼저 참고하려 듭니다. 그 사상이 아무리 타당해 보일지

라도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일으킨 종교개혁의 또 다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매한 사상·철학·종교일지라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느 특정 개인이나 종파를 비판하거나 단순히 즐거운 종교인 내지 신앙인이 되자는 의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의 탐구가 좀더 확실하고도 튼튼한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부족한 글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주는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따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의 도덕적·사상적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2002년 12월

미국 LA 우거(寓居)에서 지은이





## 인간이라면 비겁하게 살지 말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진도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반응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그럼 믿겠소”이다. 유사 이래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증명해 보려는 온갖 이론이 나왔지만 결론은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도박 논증(Wager Argument)<sup>1)</sup>으로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명쾌하면서도 해학적인 맛을 풍긴다.

도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돈을 딸 확률이다. 도박이 확률과 상관없이 사람을 무작정 미치게 만드는 속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경마·카드게임·주사위·룰렛 등 모두 확률로 이기고 지는 게임이며 그 확률을 잘 다스리면 크게 잃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실존 여부를 도박 논증으로 따지려면 존재하는지 않는지의 확률도 함께 따져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 확률에서 흔히들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

---

1) 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어차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거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없다는 이론이다. 없다고 걸었다가 있게 되면 낭패지만 있다고 걸었는데 없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님은 존재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이므로 그 확률이 50%라고 쉽게 생각해버린다.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인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동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 중의 한 면이 나올 확률은 50%다.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라는 두 가지 상수(常數)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공중에 던져 어느 면이 나오는가 하는 변수(變數)의 확률은  $1/2=50\%$ 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존재하는 것도 맞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맞다는 두 가지 불변의 상수는 있을 수 없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존재하면 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은 100% 아니면 0%이다. 하나님은 100%라는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확률로 존재하던지, 아니면 0%라는 절대적이고도 두말할 여지가 없는 확률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바꿔 말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함부로 경솔하게 다루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믿는 자는 100%의 확률로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는 0%의 확률로 확실하게 믿지 않아야 한다. “혹시 지옥과 천당이 있으면 어찌나? 믿어야 본전이 아닌가.” 식의 천국 보험드는 식은 안 된다.

주위에 아무 종교에나 기웃대다가 파리 끈끈이 같은 뽀에 빠져 몸과 마음과 돈과 시간과 가정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도 큰 예외가 아니다. 예수 잘못 믿어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갖고 오라는 대로 그저 갖다 바친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전혀 없다. 어디까지나 기독교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체계가 빚어낸 폐해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 빠진 자는 그런 실수를 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



다. 그러나 100% 절대 확률의 하나님에 빠진 자는 그렇지 않다. 100%의 존재 확률이란 이미 그 존재성만으로도 하나님의 절대적 본성을 말해준다. 그분은 절대 100%의 선이요, 100%의 사랑이요, 100%의 정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속성에서 100% 완전하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때도 절대적인 100%의 신뢰와 사랑으로 경배해야 한다. 전 재산을 팔아 바치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관·가치관·역사관·세계관·도덕관·종교관·대(對) 신관 모두가 100%의 온전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100%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신자도 0%의 존재 확률이 의미하는 대로 완전한 불신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니까 인생관·가치관 등 모든 사고와 삶이 그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 내세의 심판과 구원이 없으므로 인생이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가장 고귀한 만물의 영장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반발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제로의 확률로 없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해야 자기 자랑이요, 인간 세상에서의 공과 싸움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간인 것이 자랑스럽고 인간답게 살아야겠다고 최소한 비겁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말로 온전한 불신자라면 소위 “천벌을 두려워해라.”,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하늘을 우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등의 말을 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

지금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종교를 잘 선택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도박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문제가 아니다. 절대적 하나님이나, 제로의 하나님이나에 정말 인간답게 정정당당하게



반응하여 그것에 우리 일생을 걸어야 한다. 종교는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을 고매한 사상과 심오한 철학과 고급한 계명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 종교가 100%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정말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지금 기독교가 개선하고 구조 조정해야 할 문제도 단순히 학문적인 신학이나, 토착 민족 교회나,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을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복음적 생명력과 성경 말씀의 이해·해석·적용을 바로 이 절대적 가치의 하나님에게 온전히 두느냐의 문제이다. 100% 절대적 하나님이란 이미 전 인류애적 가치와 전 우주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경에도 이미 그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 기껏 지금 와서 아시아적 가치를 갖추자, 단선적이며 서구적 전투형 교회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은 실컷 누워 자고 일어나 갑자기 남의 집 봉창을 두드리는 격이다.

흔히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까 자기에게 맞는 종교를 택하면 된다고 말한다. 물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뿐이며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면 이미 선택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받을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에게 만나져야 할 대상이다. 그분은 유일하실 뿐 아니라 100%의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삶을 그 분에게 온전히 맡겨야 한다.

간혹 기독교의 진수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웃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한 사랑의 본을 닮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빌 2:5)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신앙생활




의 목표를 선택한 행위(doing)를 실천하는 데만 둔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being)가 변하는 것이다. 예수를 닮도록 우리가 우리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희생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왔다면 그는 수많은 도덕적 선각자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인간에게 또 다른 도덕 교과서나 최고난도 선행의 모범을 보이는 훈련된 조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도덕교과서라도 제대로 지키면 우리 모두 천사가 된다. 인간은 도덕을 몰라 죄 짓는 것도 아니요, 방법을 몰라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도덕교사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누군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어야만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온 것이다.

신자를 정의 내리자면 신앙의 내용으로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가장하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 아직 진리를 붙들지 못했다면 신자(信者)가 아니라 구도자(求道者)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에서만은 분명히 그렇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자신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체험적 진리로 소유하고 있다. 기독교적 체계가 신자들에게 강요했거나 신자 본인의 노력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해 성령의 간섭에 의해서 신자의 영혼이 반응한 결과다. 우리가 이 책에서 할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 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100%의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인

간이 선택할 수 없다. 만나져야 한다. 그리고 그 만남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제 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잘못 오해되고 비판받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 1.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아빠 최고”

철수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를 때는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믿는다. 돈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세고,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친구들의 아빠 누구와 어떤 것으로 견줘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다 조금씩 정신적으로 성장하면 자기 아빠가 얼마나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으며 어쩌면 친구들 아빠 중에 제일 못하다는 것을 알고 실망할 때가 많다. 심지어 왜 하필이면 저런 못난 아빠가 내 아빠가 되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불평한다. 철이 들어 대학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서도 ‘우리 아빠 슈퍼맨’이라는 믿음을 금과옥조처럼 갖고 있으면 철수는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내·자식·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로써 기독교 신앙도 유치한 것을 벗고 철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헤아린 것이다. 위의 예에서 기독교 신자는 철수로, 신자가 믿는 하나님 내지 기독교 신앙은 철수 아

빠에 비유되었다. 철수의 정신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빠의 실상을 발견하여 그 인식을 바꾸듯이 신자도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이 신자가 성장함에 따라 변해야 함은 너무나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사물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예를 들 때는 그 비유의 대상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사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자라는 모습과 내용은 태양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과 같다고 해야 옳다. 어려서나 성인이 된 후에도 지구에 태양이 하나이고 그 빛과 에너지가 만물의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믿는 것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어른이 되면서 바뀌는 것은 태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 전체도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 표면이 쉬지 않고 폭발하며 그 폭발에 따라 지구 기후와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철수 아빠와 태양의 두 비유에서 신앙이 변해야 한다는 외형적 측면에선 같다. 그러나 그 변화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철수의 경우 평범한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수정(修整)에 초점이 맞춰진다. 태양의 비유에선 변화의 주된 내용은 성숙(成熟)이다.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은 자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믿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신앙이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다.

철수의 예로 이런 변화를 고쳐서 설명해 보자. 철수가 어렸을 때는 “너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세지.”라는 엄마의 말을 곧이곧대



로 믿는다. 철수가 정상적인 아이라면 커서는 그 말이 자기를 기를 안 죽이고 아빠를 세워주기 위해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기 아빠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별 볼일 없이 보일지라도 철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은 세상 어느 아빠와 견줄 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아빠가 어렸을 때와는 달리 차츰 자기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그러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서 부자간의 관계가 더욱 굳어진다.

기독교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응답하지 않지 의심만 한다. 능력 위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린 철수가 자기 아빠가 팔씨름이나 돈 많은 것으로나 항상 친구 아빠를 이겨야 한다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전지전능이란 반드시 협력해서 선으로 이룰 때만 전지전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하루아침에 전복시켜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 줄 능력은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럼에도 그리 아니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잘못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믿고 때가 찰 때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과 함께할 때만 발휘된다는 것을 알기에 성숙된 신자는 그분의 능력보다 선하심을 먼저 찾게 된다.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세례 의식을 거친 자를 정식 교인으로 친다. 그 의식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아니다. 신자가 처음부터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다. 이 고백이 기초석이 되어 그 기

초 위에 다른 모든 신앙 활동이 쏠린다. 그런데 이 고백을 인간의 지성과 인격이 발달되어 너 생각이 틀렸으니까 바꾸라는 것은 마치 태양계에 태양이 중심이 아니고 목성이나 화성도 중심이 될 수 있으니 사고의 전환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 무엇이 문제인가?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신자의 성장과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믿음과 그에 따라 자라야 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며 그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석으로서의 믿음(‘고백적 신앙’)이다. 후자는 그 고백 위에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믿음(‘실천적 신앙’)이다. 고백적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간섭으로 신자의 영혼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은사(gift)로 심어 준 절대적 믿음이다. 실천적 신앙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성숙시켜야 하는 믿음이다.

외부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려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믿음을 성숙시켜야 한다고 너무 쉽게 말한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다른 종교는 기독교와 같은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실천적 신앙만 있거나 설사 둘 다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실천적 신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볼 때도 실천적 신앙의 관점에서만 본다.

특별히 기독교의 고백적 신앙은 신자 본인이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을 겪었음을 인식한 후에 고백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타종교의 고백적 신앙은 대개 종교의 교리체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 그치니까 기



독교도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 신자의 믿음을 두고 교회에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낡고 고착된 교리에 얽매어 있다고 오해한다. 그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고 종교 간에 관용을 베풀라고 말한다.

기독교 신자의 그 고백은 교리에 동의한 수준이 아니다. 온전히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변할 수 없는 절대적 신앙이다. 교회가 권유·교육·강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믿음이다. 외부인의 눈에 기독교의 이 고백적 신앙은 보이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반면 실천적 신앙의 모습만 보인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 사랑하고, 희생하고, 영원을 대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고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고 착각한다. 기독교 신앙은 고백적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천적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예수님의 설명대로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동으로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 맺히게 된다.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롬1:17)라는 말이 유치한 수준의 믿음이 지성이 늘어남에 따라 자란다는 뜻이 아니다. 우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우리가 책임질 믿음도 자란다는 것이다. 그 자라는 믿음도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라지 자기의 깨우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깨우침으로 자라게 하려면 아직도 가르침이 부족하고 계시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인간의 그 잘난 지성과 사상에 관한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관한 것으로는 새롭게 드러나야 할 계시가 더 이상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을 풀어 설명한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 66권을 한 1분 내에 다 읽는 방법이 있다. 무슨 책이든 시작과



끝을 알면 그 내용을 전부 알 수 있듯이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된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어떻게 끝마치는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1). 시작과 끝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 종교의 경전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종교인이라 할 수 없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므로 기독교인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해 베푸는 은혜를 믿는 자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반석은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된 계시로서 그 모든 가르치는 바에 있어서 정확 무오(無誤)하다는 것, 둘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셋째 세상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도록 선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한 구절로 성경이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마르틴 루터가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 예수의 은혜다.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이 너무 신학적으로 표현되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매일 고통 슬픔 분노 불평 의심 죄악 가운데서 염려 불안이 끊이지 않아 하루도 평강하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가난과 질병처럼 물질적 혹은 육신적 질과 양에 상관 없이 심령에 불안이 끊이지 않는 자들에게 솔직히 가슴을 털어놓고 대답해보라고 권해보자. “지금 당신에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배우고 연습해서 불안을 없애겠소? 아니면 누군가 그 불안



자체 즉, 원인과 증상과 결과를 몽땅 없애주는 것을 원하겠소? 둘 중 어느 쪽이오?” 모두 당장 해결해줄 사람을 찾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찾지 않을 것이다. 당장 급하고 죽을 지경인데 언제 배워 연습하고 실천할 여유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스스로 밝히기를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병자를 치료하러 왔다고 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했다.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삶과 피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주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더러 빵을 구하고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으셨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상담하고 치료받아 구원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신학이 유치하고 잘못되었으므로 제대로 새로운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환자더러 의사 예수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에 실험과 검증을 거친 현대 의술을 의학교수인 예수에게 배워 스스로 의사가 되라는 것과 같다. 신자는 영원하고 완전한 의사인 예수를 매순간 찾아가 치유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런 믿음의 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이라고 불리도 좋다. 최근 근본주의를 무조건 고집불통으로 매도해 버리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근본주의자에는 예수만이 길이라는 성경의 진리는 끝까지 고수하되 그 적용에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과, 진리만이 아니라 적용에서마저 도저히 포용성이 없는 자가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이 묶어 몽땅 완고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2002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솔트레이크 시는 모르몬교의 본산으로 유명한데 그 모르몬교의 교리 가운데 ‘교리와 성약’이라는 것이 있다.

살아 있는 예언자 12명이 수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 받은 것을 교리로 기록한 책이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그곳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어떤 예언자가 카페인이 든 음료는 건강에 안 좋으니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것이 교리가 되어 모든 교인들이 그 대로 실천했다. 그런데 어떤 모르몬교 고위직 인사가 그 지역 콜라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전 교리대로 하면 콜라가 안 팔릴 것은 너무나 뻔해 다시 어떤 예언자가 카페인이 든 음료가 다 나쁜 것이 아니니 콜라는 먹어도 되고 커피만 마시지 말라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타협을 본 것이다.

이 일을 수준 낮은 코미디 같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 너무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으니까(?) 이전에 받은 계시와 새로 받은 계시가 서로 모순되어 누구도 확실하고 일관된 교리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목사도 모르몬교 비숍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면 진리인데 진리가 그렇게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진리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진리가 바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의 적용’을 혼동한다. 이 예에서 “하나님은 인간더러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는 먹지 말라”는 것 진리다.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바뀔 수 없다. 대신에 콜라나 커피가 건강에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진리의 적용에 해당되는 문제다. “커피를 먹지 말라”, 혹은 “콜라는 먹어도 된다.”는 교리가 진리는 아니다.

이 문제를 동성애에 적용해보자.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금하는 범죄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다. 그러나 그 진리의 적용이라는 측면, 즉 동성애자를 다루는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동성애를 하기에 우리보다 더 추한 죄인이고 우리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덜 죄인이라는 구분을 두지 않는 쪽이다. 동성애의 궁극적 원인도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의 부패로부터 온 것으로 판단한다. 그들이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 십자가 용서를 통해 영혼이 변화되는 길만이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둘째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자들이다. 그들의 교회에 출석도 다른 신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므로 막아야 하고 그들의 치료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배정하거나 복지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둘은 엄격히 다르다. 동성애가 죄라는 진리에선 양자의 입장이 동일하지만 그 적용에선 완전히 다르다. 이 둘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필자는 전자를 복음주의자 혹은 복음적 근본주의자로, 후자는 완고한 근본주의자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근본주의적 입장이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만 서식하고 있을 뿐 서방 유럽 같은 데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잘 알다시피 서방유럽에는 이미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근본주의란 복음주의 입장을 너무 강조해 그 적용에서조차 일체의 타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복음주의가 사라지면 근본주의도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

서방 유럽에서 없어진 것은 근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라곤 성경을 비평하는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뿐이다. 의사로서의 예수가 부인되는 곳에는 기독교가 절대 남아 있지 못한다. 이상하지 않는가? 예수가 의대 학장이 되어 의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의과대학에는 지원자가 하나도 없다.

한국에만 근본주의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다. 너무나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직도 복음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예수가 학장인 의과대학이 아니라 의사 예수가 근무하는 병원이 아직 부도나지 않고 성업 중이라는 말이다.


기독교는 근본주의 교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역으로 내가 배운 신학 안에서 예수를 스스로 정의하겠다고 하는 자를 두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당신이 말한 대로 자신에게 예수가 의원으로 필요한가를 인정하느냐에 있다. 자신이 당장 입원해야 할 병자였음을 시인하는 자가 신자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 감화를 주며 온전한 삶의 의미를 찾아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신학이 당신을 변화시켰는가, 아니면 예수가 당신을 변화시켰는가? 기독교에서는 어느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요구에서 형성된 특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진리가 우선이지 교리가 먼저일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최근 구미신학자들이 이전의 유치한 신학을 버리고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신학으로 기독교도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완고한 근본주의자처럼 진리와 그 적용을 구분 못하는 범하는 오류다.

진리에는 자라는 것이 없다. 언제나 불변이기 때문이다. 진리의 적용에서는 물론 자라야 한다.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연령과 종교연령이 아니라 영적 연령이다. 그래서 영적 출생을 가장 먼저 따진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적 출생이 있어야 영적 연령이 늘어난다. 영적 연령은 육신적 자람이나 지적 성숙과는 별개다. 자신의 깨우침과도 상관없다. 영적 출생과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간섭으로 자



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 씨름하며 동행할 때 비로소 자랄 수 있다.

영적출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다. 성경의 첫 절부터 끝 절까지 계시된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인간들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007 영화 시리즈 중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히(Diamond Forever)’가 있지만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는 그것도 썩어 없어지게 마련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산화작용을 피할 수 없고 그 썩는 속도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물질에만 해당된다. 변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특별히 예술 작품의 경우에 그렇다. 예술에도 미술처럼 물질적인 소재를 동원한 것은 색깔이 변하고 썩지만 음악이나 문학의 경우는 다르다. 베토벤의 제9번 ‘운명’교향곡이나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단지 잊혀지거나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시대마다 달라질 뿐이다.

물론 ‘운명’도 현대 악기에 맞춰 새롭게 편곡하거나 ‘부활’을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기 위해 각색할 수는 있다. 또 부활을 연극으로 각색하면서 두 주인공 네플류도프와 카튜사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의 입장만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의 일부분만 다룰 수도 있다. 그래도 그 연

극이 톨스토이의 작품이며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상연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운명’의 악보나 ‘부활’의 원고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원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는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기독교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원리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에 적힌 내용도 영원하다. 어느 누구도 ‘톨스토이’라는 작가와 ‘부활’이라는 소설을 두고 비난하고 고쳐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것을 각색한 연극을 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평할 수 있지만 부활의 원본을 바꾸자고 하는 바보는 없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그 저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존중하기 힘들면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야 한다.

글로즈 토드랜크라는 무명의 목사가 쓴 ‘기독교의 변혁’이라는 책도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보아야 한다. 본인도 성경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한 사람의 각색가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각색한 다른 이의 잘못된 해석만 지적해야지 성경이나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새로운 이단 기독교의 교주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이제 국지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구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지구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 처음부터 그 속에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해석자들이 충분히 분석해내지 못했으니 이제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야 맞다.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에서 이 책에서 기독교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패러다임 열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 첫째 ‘배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가 부인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다시 언급할 기회가 많겠지만 기독교를 무조건 배타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리란 본질상 항상 배타적이다. 진리가 배타적 이 아니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1+1=2$ 라는 진리에 다른 다원적인 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1+1=1.5$ 도 맞고  $2.1$ 도 맞다는 것은 없다.

어떤 종교에 귀의하여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여 거기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건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 종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네 것도 맞는 것 같고 내 것도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모든 것이 다 맞다는 것으로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맞다면 누구라도 구태여 특정한 진리를 꼭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것이 진리로서 의미와 가치를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모든 것이 정답이면 구태여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결국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면 어느 종교도 안 믿어도 된다는 말과 상통하게 된다.

이 험한 세상과 고달픈 인생에 정답이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별히 한 분 하나님, 100% 확률로 존재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당연히 그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존재할 확률이 이보다 낮거나 하나님이 여럿 존재한다면 그 때는 당연히 정답이 여럿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나아가 기독교는 진리를 견지하는 측면에선 절대적인 배타주의를 주장하는 대신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격 여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포용적이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 진 자가 예수에게로 오면 아무



리 흉악한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는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에서는 절대배타적이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절대 다원적이다.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나 그 진리가 개방되어 있다.  $1+1=2$ 라는 진리가 수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에게는 3이 될 수도 있고 아이큐가 낮은 자에게는 0도 될 수 있다는 진리는 없다. 진리란 수학자이든 초등학교 1학년이든 누구나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되 절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떠한가? 진리 차원에서선 절대 포용적이면서 진리를 알아야 할 사람을 수용하는 면에 있어선 오히려 절대 배타적이다. 종교끼리의 포교활동을 서로 금하자고 한다. 내 진리, 네 진리를 따로 구별하면서 신자도 네 신자, 내 신자 구별 짓는다. 사탄을 숭배해도, 무당에게 부적을 사거나 굿을 해도, 신을 위해 무차별 테러를 해도 각 개인의 종교의 자유니까 인정해주자고 한다. 사탄에게 돈을 바쳐가며 자기 영혼을 팔고 있는데도 관용으로 두고 보라는 것인가? 진리는 절대 주장하되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해야 함에도 거꾸로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옳다고 한다. 과연 어느 쪽이 다원적이고 누가 배타적인가?

## 둘째 ‘상하구조에서 평등구조로’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당연시한 적은 없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의 인간이 저질러 놓은 시대적 상황이 노예제도를 정당화 했을 뿐이다. 성경은 오히려 자유인들과 상전들에게 노예를 동일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해라고 권하고 있다. 종이나 상전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엡 6:9).



### 셋째 '저 위에 계신 하나님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근사하게 지으려 마음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삼하 7:6). 이스라엘 백성 진중 한복판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신자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전6:19)

### 넷째 '교리 중심에서 깨달음 중심으로'

앞에서 설명한 기독교의 고백적 신앙과 실천적 신앙을 이 문제에 다시 적용하면 고백적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지 인간의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실천적 신앙의 집이 지워지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간이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진리 중심, 하나님의 사랑 중심, 예수님의 은혜 중심, 성령의 인도 중심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 다섯째 '죄 강요에서 사랑 강요로'

인간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죄는 절대 음산한 교향곡이 아니다. 죄가 없으면 사랑도 용서도 필요 없다. 형벌 없이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기(放棄: 방임과 포기)다. 사생자에게만 아버지의 형벌이 면제된다. 남의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상관하겠는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라야 자기 죄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벌

거벗겨진 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기독교가 사랑만 강조하는데 오히려 죄를 더 강조해야 한다.

### 여섯째 '육체 부정에서 육체 긍정으로'

성경에서 육신 내지 육체로 표현된 것의 거의 대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중심으로 살겠다는 죄의 본성을 의미한다. 영혼과 대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 육체 부정은 성경에 없는 사상이며 기독교에서 한 번도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를 죄악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들을 모두 이단으로 배격하였다.

### 일곱째 '현실 야합에서 예언자적 자세로'

사회나 정치 문제에서 강자의 입장을 변호하고 야합하는 종교인들은 그야말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딤후6:5)로 삼은 자들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원칙에서 죄악으로 찢든 현실을 고발하는 예언자적 자세로 인간을 향해 안타깝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 여덟째 '종말론에서 환경론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잘못된 광신도들이다. 기독교는 현실을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셨다. 자연을 파괴한 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참된 종말론적 종교는 오히려 자연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연 상태로 유지한다.



### 열째 '본질에서 연합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分離)되었다는 것이다. 그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타종교인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대상이다. 이 복음의 진리가 허울 좋은 종교간 상호 불간섭주의에 의해 비판받을 수는 없다.

### 열째 '예수님에 관한 종교에서 예수님의 종교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인간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또 인간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만이 믿음의 궁극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 자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 버리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해주실 일은 더 이상 없다. 기독교의 변혁이 아니라 새로운 이단 기독교의 탄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기독교 자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없다.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맞다. 기독교는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니다. 탈바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 기독교를 만들려는 역사적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었다. 작금 캐나다·미국·유럽의 기독교계가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세대마다 있어 왔던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에 동의하지 않는

흐름은 단지 그 시대에만 유행했던 신학의 한 조류로 그쳤다. 신기한 것은 그럴수록 기독교는 오히려 더욱 복음의 참 진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요일 4:2, 3).

보수와 교회들이 따로 성경 대학을 세우거나 신학교를 설립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를 배척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학을 배제한 것이다. 이 문제에서만은 학문의 자유를 논할 계제가 아니다. 공산주의만을 절대 진리로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도 같이 가르치는 대학을 허용하겠는가? 독재국가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란 연구실 안에만 있는 학문이 아니다. 그 주의를 따르는 인간의 모든 삶과 사회체제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원리인데 어떻게 다른 주의를 함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예수에 관한 학문에는 자유가 있다. 각자 알아서 깨우친 대로 믿으라고 할 때는 대학마다 다양한 교수·학파가 공존하면 할수록 좋다. 보수주의 신학교는 예수에 관한 깨우침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예수 당신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다른 신학과 공존될 수 없다. 

## 벌거벗은 임금님과 당나귀 귀 임금님

### -정직한 믿음과 무오설(無誤說)의 무요(無要)-

벌거벗은 임금님과 당나귀 귀를 한 임금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세상 권세에 무조건 잘 보이려 들거나 그 위력에 눌려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거짓인 줄 알고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어리석고도 연약한 대중의



모습과, 또 그런 헛된 아부와 맹종을 스스로 즐기거나 강요하는 권력자들의 교만한 작태를 잘 지적한 우화다. 진실은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전해야만 함에도 항상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 사회다.

아직도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우기는(?) 보수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아부하는 신하이고 그 신자들은 어리석은 백성인 데 반해, 이를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용기 있는 어린이와 이발소 주인인 양 행세하려 드는 것은 정말 낮간지러운 일이다.

이 두 우화에서 누구든지 진실을 발설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어린이와 이발소 주인은 진실을 말했기에 대단히 용기 있는 영웅으로 취급한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어린이는 진실을 말하면 잡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 솔직히 말했다. 이발소 주인은 임금님 귀에 대해 발설하면 당장 죽을 줄 아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대나무밭에 가서 고함친 것뿐이다. 진실을 파헤치거나 허위와 위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용기는 개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금이 벌거벗었고 당나귀 귀를 가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간의 논쟁을 정확히 비유하자면 이렇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 앞에 아주 신기한 옷을 입고 특이한 모양의 귀를 하고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기 신분과 형편에 따라 해석이 달랐다. 그럼에도 희한한 옷을 입었고 특이한 귀를 가졌다는 것은 유식한 신하들이 보나 우매한 백성들이 보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오랜 논쟁 끝에 그 임금을 보는 입장은 크게 진보와 보수 둘로 나뉘었다.

진보 측 입장은 임금님의 옷과 귀가 비록 아주 특이하긴 해도 이 세

상의 재료로 만들어졌기에 일상적 방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직 실험방법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각자가 분석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특이한 가르침과 큰 사랑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인간이었다는 것이 진보다.

이에 반해 보수 측 입장은 임금의 옷과 귀가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온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말하자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이 보수다.

따라서 보수에는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며 진보에는 분석과 실험 즉 깨달음이 요구된다. 서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작해야 한다는 것은 후자의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보수 신학자들이 임금의 옷과 귀가 이 세상의 것임을 알면서도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 신자들에게 그렇게 믿도록 강요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누군가 임금은 벌거벗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데도 교회에서 권하거나 강요하는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보수 신학자나 그 신자들 모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이지 못하게”(고후 4:4) 되어 있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기”(고후 4:6)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취지기 전까지는 임금의 옷이 아주 특이하긴 해도 세상의 것이 아님을 몰랐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알고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은 무조건적인 순진한 신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절대자에 귀의(歸依)하는 것과는 다르다. 임금의 빛은 것조차 자연 상태의



옷으로 믿으면 된다는 식의 믿음은 기독교에선 없다. 종교도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믿음도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버리면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 어떤 때는 이렇게 믿었다가 다른 경우는 저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벌써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 힘이 있을 때는 믿고 그 지위를 잃으면 안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별거벗은 임금에 이부하는 신화가 된다. 믿음이란 시대가 가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 대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믿는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되든 믿어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끼리의 믿음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상·철학·주의·이념·신념에 불과하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성경 무오설이 별거벗은 임금을 두고 옷 입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아니다. 임금이 신기하고도 완벽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인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 무오설이다. 그럼에도 이제 벗었다고 제대로 말해 주겠다는 것은 별거벗지 않은 임금을 별거벗었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보관·전수되어 왔으며 그 속에 있는 기독교 진리는 불변이다. 이 신기하고 완벽한 옷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연구하면 할수록 참으로 오묘한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보고(寶庫)가 된다. 대신에 지상의 옷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겐 아무리 깊이 분석하고 실험해도 여전히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그 은혜를 찾아낼 길이 없다.

최근 한국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단체의 이름을 ‘붉은 악마’로 지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계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전 국민을 악마로 부를



수 있는가, 이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반대운동을 벌인 경우가 있었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붉은 악마’라는 이름이 기독교적 견지에서 옳다는 뜻은 아니다. 저들이 예수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뜻에서 지은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 대경기장에서 우승한 유대인 마차경주를 두고 마침 경주마의 색깔이 흑색이어서 ‘암흑의 질주’라고 표현했다 치자. 말하자면 그 챔피언을 ‘다윗의 별’ 혹은 ‘유대의 희망’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문제삼으셨겠는가?

성경에 실제로 그 비슷한 일이 나온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막 9:38~40).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자들을 옳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된 기준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능한 일이 나타나는지에 달렸다고 하셨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두고 벌거벗은 임금으로 비난하는 것이 용기 있고 정직한 지성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뿐이다. 보수 신학자든 자유 신학자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금하거나 비방할 필요 없다. 누가 예수님에 속해 있는지만 중요하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능한 일이 나타나는지 여부다. 그러나 그 능한 일이 누가 귀신을 쫓아내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가의 문제는 아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되는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서 그렇게 되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양측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쪽은 절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둘 다 맞을 수 있기에 상호비방해선 안 된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 후자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니 둘 다 맞는 것으로 치자든지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상호 관용과 포용이 아니라 상호 외면과 배척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평생가도 상호간의 접점은 생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영원히 상호 배척하는 결과만 낳는다.

기독교 보수 측에서 기독교 진보를 포함하여 타종교인들 모두 전도하려 드니까 무조건 배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그들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 가르침대로 노력했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의 능력을 절대 맞볼 수 없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빛이 비취지자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다.

보수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접근하고 이해하고 분석한 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똑같은 길을 이미 다 지났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측에선 하나님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해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수 측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얻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속 좁은 배타가 아니라 진정한 포용이다.

성숙한 믿음이란 학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매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기독교에선 그렇다.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느냐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느냐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일대일의 대면과 인도하심을 받아 더 이상 흔들리

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기도 잘 하고, 성경 깊이 알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세주 예수  
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도달하면 자유해진다. 예수를 스승으로  
분석하는 믿음은 지적 충족과 문화적인 관용과 종교적인 톡 트임은 있  
을지 몰라도 그분이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지 않고는 절대 평강과 자  
유함은 맛보지 못한다.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지식과 다르다. 

### 허스키와 진돗개- 내 종교만 종교인가?

서부 캐나다 북쪽 외진 마을에 개라고는 썰매를 끄는 허스키밖에 없  
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중국산 시츠, 한국산 진돗개, 테리어, 푸들  
같은 개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람들이 그것들도 개인지 아닌지 논쟁  
을 벌이게 되었다. 끝까지 허스키만 개라고 간주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허스키가 순종인가 잡종인가로 분쟁이 일어났다. 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허스키 순종을 가져와 퍼뜨린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개는 개  
가 아니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허스키만 개인 줄 알게 되었다. 이  
렇게 생겨난 한국의 허스키 충성파가 캐나다 본 고을보다 더 많아졌다.  
한국의 충성파가 본고장의 허스키를 연구하려고 가봤더니 본고장에서  
는 이제 허스키보다 다른 개들이 더 대접을 받고 있었다. 허스키만 좇  
던 한국 애견가들은 시대에 뒤쳐진 껍딱 막힌 사람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을 빗대기  
위해 가정한 예이다. 편벽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 새로운 조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상상으로 가정한 이 예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 가능할 것 같다. 캐나다 시골 사람들이 다른 개를 보고 개라고 인정하지 않은 근본 이유는 그때까지 개라고는 허스키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개는 반드시 썰매를 끌 줄 알아야 된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개밖에 없던 동네에 고양이를 데려온 것이 아니다. 아무리 허스키에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개들의 짖는 소리를 듣고 코를 킁킁대고 냄새 맡고 꼬리 흔드는 모습들을 보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고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 개들이 썰매를 끌지 못하니까 개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쓸모 있는 개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

개라는 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다른 개들도 개로서 인정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개의 용도가 다양하게 바뀌게 된다. 집을 지키기에는 진돗개가 좋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동무로는 푸들이, 맹인 길잡이로는 셰퍼드 등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에 아직도 눈이 올 때 교통과 운반수단으로 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골에선 여전히 허스키가 아니고는 아무리 셰퍼드·진돗개라도 개는 개지만 제대로 된 개 취급을 받지 못한다.

종교적인 체험도 이와 동일하다.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지어낸 예가 오히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예화가 되었다. 허스키만 개라고 고집하는 자와 다른 개도 인정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이유는 개의 우월성 차이 때문이 아니다. 개가 인간에 주는 용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서다. 개는 썰매를 반드시 끌어야 되니까 허스키만이 개라고 고집하는 측과 개는 집을 지키고 맹인 안내로도 쓰이니까 진돗개 셰퍼드 모두 개라고 하는 측으로 나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는 종교의 용도를 하나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가 인

간에게 주는 유익한 용도가 다양하니까 종교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종교가 인간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유익은 죽음 이후의 구원 문제다.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차원에서다. 대신에 종교에서 얻는 보편적 유익들 즉, 믿음에 귀의하여 불안을 없애고, 나쁜 죄를 짓지 않고, 인격을 승화시키고, 남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문제 등은 다른 종교들도 제공한다. 내용적으로 기독교와 동일하지 않지만 결과적 외형적 모습으로는 같아 보이므로 여러 종교 중에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는 말이 성립된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가 구원 이외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유익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명상을 하며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뜻이라면 불교의 체험을,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잘못을 수시로 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카톨릭을, 엄격한 도덕률과 사회공동체의 규칙대로 살아서 평화를 얻겠다면 유대교를,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의 섭리에서 도저히 꿈쩍달짝할 수 없고 오직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숙명으로 알고 살겠다면 이슬람교를, 나아가 앞길에 귀신의 방해를 막아 액땀만을 하겠다면 무속신앙을 선택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단지 이 땅에서의 평안한 생활과 도덕적인 삶만을 다룬다면 그것은 윤리와 철학과 사상이다. 종교의 종교 된 핵심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룬다는데 있다. 바로 이 차원에서 어떤 종교든 자기들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가 포용성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자기가 믿는 종교와 그 신이 절대적이라고 담대히 주장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可變的)일 수 있다. 자기가 믿



는 종교의 내용이 자주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진리가 변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죽음 이후의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절대자 하나님과 대면을 전제로 한다. 어느 종교도 다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셀 수도 없는 가변적인 길을 제시해 놓은 것뿐이다. 인간 스스로 알아서 택해서 오면 내가 심사해서 내 맘에 드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인간을 미혹의 길로 빠뜨린 것에 불과하지 인간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죽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인간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면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나 사상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융합을 거듭하며 상호 영향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고립된 진공관 속에 보관 유지된 사상이나 종교는 없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 안에서 수 천 년간 세상의 어느 것과도 융합되지 않고 보관 계승되어 왔다. 기독교 구원의 원리는 본질상 주변 사상이나 종교와 융합을 할 수 없다.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롬 5:8)하셨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 고집스레 우기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보관된 그 진리를 대변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요 계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지 않으면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 이슬람 교인들에게 물어보라. 코란을 인정하지 않고 마호메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지 않

으면 회교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코란을 믿는 자를 영적 오만이나 신학적 무지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 않는가?


미국에서 어떤 개가 잘 생겼는지 겨루는 웨스트민스터 개 선발 대회라는 것이 매년 열린다. 한 기자가 상을 탄 개 주인에게 ‘개는 주인의 생김새와 닮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다. 분명히 그렇다. 날씬한 귀부인은 화려하고 날렵하게 생긴 개를 키우고, 텍사스 카우보이는 우락부락한 개를 좋아한다. 주인의 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개가 인간에게 끼치는 여러 유익성을 감안해 자기 용도에 맞게 골라 자기 개로 삼는 데 시비 걸 이유는 전혀 없다.

종교도 자기 닮은 것을 고르려 한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마저 개를 고르듯이 믿으려는 것이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지 인식하여 적용하는 방법에서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 관심”이 계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 관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어떤 모습이든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의 이해와 인식을 초월한다. 인간이 보일 온당한 반응은 그 큰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뿐이다.

기독교인은 절대 자기 잣대로 타종교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따질 뿐이다. 성경이 잣대이며 예수가 기준이다. ‘장미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그 향기는 마찬가지’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인간다운 향기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문제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다. 나와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다.

종교의 본질인 인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한 문제도 인간끼리 배타적



인가 포용적인가 종교끼리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그 길은 십자가뿐이다. 착하게 사는 일이라면 예수가 구태여 필요 없다. 

## 세 부류의 사람들

석가는 진리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연꽃에 비유하였다. 물 위에 나와 있는 꽃 · 물속에 잠긴 꽃 ·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는 꽃 같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구분했다. 노자도 사람이 도에 대해 들으면, 힘써 행하는 뛰어난 사람 · 이런가 저런가 망설이는 어중간한 사람 · 크게 웃는 못난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했다. 이분들의 분석대로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겉만 보고 내린 객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문제는 외부에서 보는 평가가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떤 주관적 인식과 평가를 갖고 있는가다. 알면서도 일부러 크게 웃을 수 있다. 모르면서 짐짓 힘써 행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본주의 교회에 다니다 보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줄줄 외우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듯이 말이다.

자신의 주관적 내면의 상태에 관해 정말로 솔직한 고백을 받아 낼 수 있다면 그때에도 과연 상중하(上中下)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하(下)라고 생각하는 이가 가장 많을 것이다. 어쩌면 거의 전부 자기를 하(下)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진리에 대해 갈급하지 않는 심령은 없다. 모두가 도를 찾으면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모든 사람



이 스스로 자기는 하(下)라고 생각한다면 남이 자기를 상(上)으로 평가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하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남을 어떻게 상·중·하로 정확히 구분 지을 능력이 있겠는가?


이처럼 인간끼리의 상호 평가는 불완전할 뿐이다. 본인은 하라고 생각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상이라고 하면 상이 된다. 반대로 본인은 아무리 상이라고 생각해도 모든 사람이 하라고 하면 그만 하가 되고 만다. 차라리 본인의 주관적 판단대로 가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된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절대자에 대한 체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다. 신자는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영원의 세계를 알게 된 자다. 꼭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 경험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 성령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한 것이다. 그분을 자신의 모든 것을 실제로 주관하는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 들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일대일 살아 있는 관계에서만 형성된다. 그 믿음을 갖는데 제 삼자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 평가가 개입할 여지도 전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신자를 제3자가 근본주의자라고 평가 내지 폄하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성령의 깨우쳐주는 역사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드러난 하늘나라의 계시 자체를 못 본다. 성령이 신자가 이미 받은 십자가의 계시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법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관해 뭔가 개운하지 못하고 찝찝한 법이 절대 없다. 그분의 자기 주인 되심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 부분에서 자라거나 성숙할 여지는 없다.



대신에 거듭난 이후에 예수 안에서 계시를 본 자답게 영원을 소망하는 일에 전 인생을 거느냐의 싸움에는 성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갈수록 얼마나 예수를 더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지 자신의 실력이 더 나아지고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는 싸움이 아니다. 인간끼리의 객관적 평가에 기준하여 하에서 상으로 그 수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싸움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성숙해진다. 

## 신앙의 여섯 단계

믿음은 어느 면에서 자전거 타기와 같다. 세 발 자전거는 어지간해 넘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페달에 발만 닿으면 기술을 배우지 않고도 탈 수 있다. 그러나 두 발 자전거는 사정이 다르다.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는가? 발을 저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지만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중심을 잡고 편안하게 자전거에 의지하는 것이 먼저다.

중심을 잡는 것도 특별한 훈련으로 발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운동신경을 개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했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터득 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완전히 자신을 자전거에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순간 중심이 잡힌다. 그 다음에 발을 저어 나가는 것은 운동실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페달을 밟지 않고 한 자리에 가만히 서있거나, 두 손 놓고 타거나, 외발 자전거 타는 것은 훈련을 거쳐야 한다. 그 훈련도 여전히 자전거에 의지해 무게 중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통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런 믿음이 생긴 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단한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을 성숙시키는 성화(聖化)의 단계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면에서 기독교의 신앙 성숙은 파울러 교수가 쓴 ‘신앙의 단계’란 책에서 설명한 일반 종교의 그것과는 다르다. 타 종교에선 인간의 지정의로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 수긍하고 수용과 학습을 거듭하여 믿게 되며 그 믿은 대로 실제 생활에서 따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와 지성의 능력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신앙 성숙도 비례하게 된다. 그런데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 이성만으로는 절대적 진리를 붙들 수 없다. 중국에는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종교의 벽을 넘는 초월과 포용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런 상대적 포용적 신앙이란 기실 확실한 신앙을 하나도 붙들지 못했거나 자기 신앙을 포기한 상태를 말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학위만 없다 뿐이지 모든 종교를 학문적으로 두루 섭렵하며 비교 연구하는 아마추어 종교학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성적 탐구를 통해 진리를 터득하겠다는 그들 신앙의 최종 목표지점 근처에도 못가고 끝난다. 모든 종교가 상대적 신앙이라고 결론지었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절대적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겠는가? 소위 말하는 생불(生佛)이 되는 단계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 사항일 뿐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장할 영역은 인간 이성으로 교리를 깨우쳐 나가



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다. 지성의 발달에 비례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

이런 싸움을 고든 맥도널드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에서 네 단계로 나누었다. 이 구분은 사실은 한 사람이 순서대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해 반응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관자: 가장 수가 많고 흔한 부류로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 근처에 서성거리며 그저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는 바로 험악한 모습으로 주님의 약점을 잡으려 든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부담이 되는 것은 수용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묘한 말씀이라도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번창하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병을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지만 결국 물러간 대중들이다.

2. 구도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기 원하고 진지한 호기심으로 가능한 모든 걸 배워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심사숙고하며 오랜 시간 주님 근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무슨 계기로 언제 믿음의 선을 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나 영생에 대해 질문한 부자 청년이 이에 해당된다. 오늘날도 예수를 스승으로 보고 그 가르침을 좇으려는 이성적 신자를 말한다.

3. 추종자: 구도자에서 추종자가 되는 자는 소수다. 최초의 변혁을 이룬 자들로 캄캄한 숲 속에서 지내다 갑자기 섬광이 어둠을 뚫고 들어

온 것을 경험하여 새로운 인생 여정을 출발하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 자들이다. 인생 방향은 철저하게 전환되었고 삶을 다르게 생각하며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고 추종한 것만으로 최종 지점이 아님을 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다.

4. 왕국 건설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된 사람들이다. 자신이 받은 소명에 철저하게 헌신하여 조용하고 일관성 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종 된 삶을 살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내면에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자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이성의 개발과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정당하게 반응하여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을 추종하고 왕국을 건설할 때에만 성숙될 수 있다. 이성을 발달시켜 종교적 지식과 깨우침을 늘리는 책상 앞의 탐구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현실의 구체적인 삶이다. 

## 두 가지 사유 방식

이분법적 사고체계가 중심인 서양논리가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자기만이 옳다는 편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기독교는 사물의 양면을 보고 사고의 폭을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논리만으로 한 면만 본다고 한다. 과학자들조차 이분법적 사고(either/or)를 버리고 초이분법적 사고(both/and)로 돌아갔기에 빛이 파장도 되고 입자도 된다고 그 주장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일이나 both/and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성숙한 지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그 자체도 이분법적 사고와 초이분법적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발상이 되어 버린다. 빛이 파장도 되고 입자도 된다는 것은 파장을 입자로도 볼 수 있고 입자를 파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빛 안에는 원래 파장과 입자의 성격이 둘 다 있었다. 지금껏 과학이 발견했던 것은 파장뿐이었다가 입자를 새롭게 찾아냈다는 뜻이다. 사고의 방식을 바꾸어 새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과학이 사고나 논리체계를 함부로 바꾸어 버리면 안 된다. 철학과 사상에선 몰라도 과학에서만은 상대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맞을 수 있다는 접근법은 용납되지 않는다.


동그란 컵을 옆에서 보니까 사각형처럼 보이니까 ‘컵은 둥글 수도 있고 사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 말이다. ‘컵은 둥근 컵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사각이나 둥글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해야 맞다. 둥근 컵이라는 실재(實在) 자체가 보는 각도에 바뀔 수는 결코 없다. 앞에서 아무리 평면적으로 보아도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에 따라 명암이 있기 때문에 둥근 컵임을 알 수 있다. 사각 컵은 마음이 사각으로 이미 바뀐 인간의 고집에 불과하다. 그때는 ‘컵이 사각’이라고 말해선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컵이 사각’이라고 해야 옳다. 화면에 그림으로 옮기거나 사진을 찍으면 둥근 컵도 사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삼차원에서 이차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지 컵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다. 둥근 컵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둥근 컵일 뿐이다. 헛갈리는 것은 헛갈리게 보는 사람일 뿐이다.

최근 과학에서조차 고전적인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논리의 부재가 아니다. 아무리 과학으로 규명을 하려 해도 분석이 안 되는 미지의 세계가 있더라는 솔직한 실토다. 사

상의 미성숙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파면 파고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과학도 과학 이외의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의 세계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이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는 당시로선 최고의 지성·이성·인격을 갖춘 구도자였다. 그런 그가 다음 단계인 예수님의 추종자로 넘어가지 못한 것은 이성이 깨이지 못해 사물의 양면을 다 볼 줄 몰라서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물의 양면을 보지 못하면 단지 상대적인 사유방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히려 고전적 이분법이 도움이 되면 되었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자 하나님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기 때문이다.

이분법이나 초이분법이나를 따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철학과 사상과 논리의 세계 즉, 사람의 마음 안에서의 문제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컵이 둥글게도 되고 네모도 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무슨 인간 지성이 크게 발달된 증거라고 자랑할 수 있는가? 아직도 헛갈리고 있는 구도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표시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겸비하게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다는 말밖에 안 된다.

기독교는 이원론적 역사관으로 사회를 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함께 볼 뿐이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역사와 사물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이원법적 논리는 절대 적용될 수 없다. “하나님이 사탄도 되고 하나님도 된다. 인간이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이 인간도 될 수 있다. 천사가 악마도 될 수 있고 악마도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과연 타당한가? 사상과 철학을 동원할 필요 없이 상식만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일 뿐이다. 



## 2. 성경대로 믿는다.



### 김 목사의 성경관-성경대로 믿는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시대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지 못했다. 성전제사도 드리지 않고 율법의 경구를 몸에 지니지도 않는다.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초대교회 때 같이 사도들로부터 직접적 간증을 듣지 못한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접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는 기독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종교의 경전에 쓰인 대로 믿는다는 말이다. 불교·이슬람교·움진리교 모두 동일하다. 불경에 쓰인 것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단지 절에 가서 시주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불교신자라고 할 수 없다. 비록 부처상에 절했지만 불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 존재에



게 의지하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가장 초보적인 종교의식을 드러낸 것뿐이다.

정식명칭이 ‘말일성도 그리스도의 교회(The Latter Day Saints of Jesus Christ)’인 모르몬교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나 외부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믿음의 내용의 이단성 시비를 떠나 성경 66권과 별도로 모르몬경을 따로 지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도 믿고 모르몬경도 믿는다고 하지만, 둘 사이에 너무나 충돌되고 모순되는 내용이 많은데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를 모르몬경에 두지 성경에 두지 않는다. 만약에 성경을 최종해석의 우선 권위로 인정하면 그들도 당연히 기독교인이며 성경과 모순되는 모르몬경은 자동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이치 때문이다.

간혹 본인의 생각은 성경과는 다르면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보거나 믿으려 애를 쓰고 또는 성경대로 행동하면 실수가 없으리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위에서 말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엄연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안 믿는다면 성경이 자기 믿음의 최종 권위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더 우선권을 가진 자이므로 기독교인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종교를 만든 것, 이를테면 모르몬 교인들이 모르몬경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하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자라도 교회는 나올 수 있다. 믿기 위해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멤버일 수는 있어도 아직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또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신자가 4월 초과일에 물고기를 방생하는 행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를 불교 신자라고 하겠는가? 또 교인들을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 성경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성경66권 가운데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의 기독교인, 신약의 기독교인, 창세기를 뺀 기독교인, 산상수훈만 믿는 기독교인, 이런 것들이 말이 되겠는가? 만약 화엄경의 불교 신자, 금강경의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종교에 너무나 간단하게 적용되는 이 원리를 유독 기독교의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으려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기독교라면 무조건 티끌을 잡고 보자는 것 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온당한 지성과 평균적인 상식을 갖춘 자라면 성경을 연구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신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거나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을 굳이 탓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성경에 확신이 없으면서도 기독교인, 목사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물론 성경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엇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믿는 것이다. 비행기 여행이 집안에서 사다리를 타고 일하다 떨어져 다치는 확률보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낮을 정도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비행기를 평생 타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실천 불가능한 것을 성

경이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말씀을 오직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 실천도 문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관된 원리와 뜻을 알면 얼마든지 성경대로 살 수 있다.

성경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니까 동상 제작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고 적용해선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땅, 물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2계명은 항상 제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와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1계명은 믿음의 가장 기본 원리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다.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를 다루는 문제다.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을 닮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빌려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위인의 동상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으로 삼아 절을 한다는 말인가? 너무나 편협하고 극단적인 문자주의 해석의 실례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잡아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표적이 따른다(막 16:17~18)는 말씀도 틀렸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믿는 사람 모두 그런 초능력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다. ‘표적’이란 어디까지나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자 일시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어 일어나는 특수 현상이지 평상시에 누구나 항상 할 수 있는 일상적 일이 아니다. 누구나 언제든 큰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상적 능력이면 벌써 그것은 표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또 성경에서 피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으니 함부로 살



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수혈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고 산아제한조차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더러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라는 것이다. 인구폭발로 그 보존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되면 인구조절을 하고, 너무 산아제한을 많이 해 인구가 준다면 오히려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한다거나 적게 낳거나 낳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없다.

합의 자손의 문제, 노예제도, 교회에서의 여자의 발언 문제, 여자 월경의 정결법, 권세에 대한 복종,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 등, 오늘날의 윤리기준으로 볼 때에 언뜻 이해 안 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으로 구절별로 부분적 해석을 하려 드니 모순되어 보일 뿐이다.

어떤 성경 말씀을 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사족을 다는 순간 그것은 개인적인 성경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앞뒤 문맥으로 따지면 이런 상징과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들에 의하면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이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는 주체가 인간이고 해석을 하는 자도 인간이니까 성경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긴다. 이는 어떤 수학문제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풀어 놓고는 그 문제를 푼 주체가 자기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만 풀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믿는다는 것이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적 해석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감동 없이 순전히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여 개인적인 해석을 한다는 말이다. 참 그리스도인일수록 성경을 더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 데 반해 신자더러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만을 빌미로 비판하려 든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12에서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한 말은 스텐델이 지적했듯이 개인의 ‘고백적인 언어’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고백적’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타종교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개인만의 고백이라는 뜻이다. 기독교에서 이 말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를 자신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체험을 했다는 뜻이다. 전자는 예수가 베드로에게는 구원의 길일지 몰라도 다른 이에게는 각자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후자는 예수가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베드로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더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았다. 그 후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 실컷 잡고 나서 갑자기 왜 죄인 타령인가? 고기 잡는 기술로는 당대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앞에 인간으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깊은 물속의 고기 흐름마저 아시는 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만 풍겨 나오는 영적 권위를 통해 느낀 것이다. 어찌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앞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단순히 물고기 잡는 최고 전문가로 대



했다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후 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한 사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 등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이분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한 것이다.

성경은 절대 자기 식으로, 자기 교파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 해석의 유일하면서 온전한 키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해석에 동원되는 수단도 각자 나름의 인식론적 분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뿐이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 흥부전과 성경

서양 아이들에게 슈퍼맨과 로빈 후드가 있다면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홍길동과 임꺽정이 있다. 이 둘은 어려서부터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인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임꺽정은 믿지만 홍길동은 믿지 않는다. 구름과 비를 조작하고 하늘을 나는 홍길동이나 한 손으로 쌀 세 가마를 번쩍 들어 올렸다는 임꺽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가? 임꺽정은 역사상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홍길동은 허균이라는 소설가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손으로 쌀 세 가마를 들었다는 것이 너무 황당해 임꺽정을 못 믿겠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과장이며 과장이란 저자가 전하고 싶은 의도를 더욱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문학적 표현 기법이라는 것을 상식을 가진 자라면 다 알기 때문이다. 저자로서는 임

걱정이 기골이 장대하고 보통사람보다 서너 배는 힘이 세었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성경을 홍부전과 비교해 구체적인 부분들은 무시하고 그 중심 뜻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차이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다. 홍부전은 홍길동전과 같은 가상적 소설(fiction)이지만 성경은 임격전과 같은 실화(non-fiction)다. 소설은 단순히 읽고 감동만 느끼면 되지만 실화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비디오 기록이나 과학실험 데이터 같은 형식이 아니다. 글로 기록된 문학의 여러 장르를 채택하고 있어 임격전 전처럼 문학에서 통용되는 여러 표현기법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과장·반복·강조·비유·대조 기법 등을 분석하여 시적 표현인지 산문적 표현인지 분별해야 한다. 역사적 기술인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구분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인간이 한 손으로 쌀 세 가마를 들려면 체중이 200kg에 신장이 8척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임격정이 120kg에 6척이라고 하니 그가 힘이 세었다는 것조차 못 믿겠다고 하는 바보는 없다. 또 그런 과장된 기록 때문에 그가 의적 활동을 한 사실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반면에 홍길동전과 홍부전에선 책의 구체적 내용은 믿을 필요 없이 권선징악의 원리만 배우면 된다.

한국 개그맨의 원조인 전유성이 컴퓨터에 관한 책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또 ‘개그맨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뉘앙스를 책제목에서부터 심어주었다. 입문서나 교과서처럼 진술대로 열심히 따라하면 초보자도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만드는 책이 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그런 뜻에서 품성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가꾸는 일에 대한 입문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뒤바꾸고 품성을 개발시




키는 능력이 있는 책이지만 그대로 따라 하면 일정한 수준에 이른다고 약속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다. 성경에 도덕적 삶에 대한 권면과 영적 성숙에 관한 지침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그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 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행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성경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종이 위에 흑백으로 기록된 문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나 후대에 읽혀질 때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照明)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경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책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책이 어디 있는가라는 반발심만 더 불려일으킨다. 믿지 않고 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렇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믿기 위해 보는 책이라기보다는 믿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보는 책이다.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다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때의 믿음은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믿음이다. 성경을 읽고 산상수훈대로 살았더니 예수가 믿어진 것이 아니다. 또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서 산상수훈을 보았더니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성경을 흥부전에 비교해 도덕적·종교적 원리만을 찾고 배우려는 자는 성경에서 들려오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듣지 못한다. 성경에 지적된 대로 혼자 힘으로는 산상수훈대로 살지도 못한다. “너희



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행 28:26, 27). 

## 창조 이야기의 딜레마와 교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은 홍길동식이 아니라 임꺽정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라는 의미는 홍길동 식으로 읽을 줄 알라는 뜻이 아니라 임꺽정 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에도 한 손으로 쌀 세 가마를 들었다는 임꺽정 식 표현은 있다. 그러나 임꺽정이 한 손으로 쌀을 세 가마를 번쩍 들었다는 황당한 표현이 있으니 이제 우리 지성인답게 임꺽정이 힘이 셸다는 전제를 일단 부인하자. 대신에 머리가 좋았는지, 수단이 좋았는지, 부하가 많았는지, 군대를 잘 훈련했는지 다시 검토해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는 임꺽정 상을 다시 만들어 내어 각자 알아서 믿자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임꺽정 진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임꺽정을 이런 사람들로부터 해방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정죄하는 이들이 있다. 한 신학자의 지적처럼 성경을 도둑질해간 사람들이며 그들로부터 성경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런데 과연 성경을 임꺽정 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람과



홍길동 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람 중에 누가 도둑질한 것인가? 또 임격정 식으로 되었다는 것도 못 믿겠으니 다시 검토해 각자 알아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흠치지 않고 제대로 보존한 것인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해보자. 성경을 홍길동 식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자체가 자기 식대로 읽으라는 주장이 아닌가? 마치 도둑이 자기는 죄신 기법으로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지 않는가?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을 자기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성격이 전혀 아니다. 성경을 홍길동전으로 보느냐, 임격정전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는 실화와 소설을 두고 서로 얼굴 붉히고 따질 것이 없다는 뜻이다. 홍길동과 임격정이 일대일로 만나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를 따지자는 꼴에 불과하다. 성경은 절대 사람들에게 도둑질당할 수 없다. 성경은 오직 성경일 뿐이다. 성경을 원래의 성경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 돌려놓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된다.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성향이 하나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어 수궁이 안가면 무조건 그 부분은 홍길동 식이라 못 믿겠다고 버틴다. 성경 전체가 임격정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못한다. 어느 부분은 홍길동이고 다른 부분은 임격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성경의 인물들을 마음대로 임격정으로, 홍길동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더 웃기는 것은 한 인물을 두고도 어떤 때는 홍길동이 되었다가 다른 때는 임격정이 되기도 한다.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은 인정하지만 부활과 구세주 됨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

이로 속이는 기사가 있다. 20장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두고 출처만 다른 동일한 이야기라고 보는 자들이 있다. 같은 내용을 착오로 두 번 기록했거나 두 기록 간에 모순이 많으니 그 기록들의 일부 내지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도 서로 상충되는 문제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현 양식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저자의 일관된 저작이 아니라 각기 기원이 다른 문서를 후대에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성경 기록의 언어적인 차이점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나뉜 그룹들의 근원이 각각 다르다고 판단하는 신학이론이 있는데 문서설이라고 부른다.

이 학설의 문제점은 그 연구 결과의 진위 여부보다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성경을 변증법에 의거하여 진화적 관점으로 본다. 모든 성경을 특정한 종교적 목적에 따라 후대에 편집되었다고 보기에 하나님의 영감성을 부인한다. 말하자면 구약성경은 설화집에 불과하다는 식이다. 그리고 이 이론을 따르는 학자들 사이에도 어느 부분이 어느 문서에 해당된다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각기 주관적으로 판단해 확정된 결론이 없는 상태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이 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하등 없다. 임격정을 군사전략가로서 ‘장군’, 부하들과 친근한 관계를 강조해 ‘형님’, 패거리들의 보스라는 뜻에서 ‘두목’ 내지 ‘수령’이라고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하나님도 우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임을 강조하는 ‘엘로힘(Elohim)’으로, 또 택한 백성의 구원자이며 언약자이심을 강조하는 ‘여호와(Jehowah)’로 다르게 불리어진다고 해서 하나 이상할 것 없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기사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



숙해진 사람도 언제든지 동일한 잘못을 연거푸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에 나름대로의 뜻이 따로 있다. 이 두 기사를 전체 문맥에 근거하여 앞뒤 구절을 함께 보면 전혀 내용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첫 기사에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 바로 왕을 숙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큰 재물을 얻고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그 기사 바로 다음이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 한 땅에 동거할 수 없어 헤어지는 기사가 이어진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책임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조카에게 땅의 우선 선택권을 양보하게 된다. 두 번째 아비멜렉 왕의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복을 받는 결과로 끝난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실천한 것이다. 사건의 진행과정은 비록 같을지 몰라도 발단과 결과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 단순하게 같은 이야기를 짜깁기하다 실수로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라면 앞뒤 사건과 연결되어질 수가 없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임꺽정을 벗어나 홍길동까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성경이 진실 된 기록이라는 근거에서 보는 것이다. 비록 인간 저자가 저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 우리 눈에 오류로 보이는 과장·암시·상징·반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데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초청하는 뜻의 ‘아담’을 남성 중심으로만 해석한 것, 선악과가 사과 혹은 복숭아였든지, 아담과 이브가 출생한 것이 아니므로 태줄이 없었으리라 추측하는 것,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 하나

로 만들었기에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적어야 하고, 17세기 제임스 어셔라는 신부가 성경의 나이를 전부 합산하여 인간의 연대를 계산한 것 등, 지금까지 있어 온 성경 해석상의 오류는 성경을 홍길동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에도 임격정 식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경 해석방법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서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기사가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맥락으로 따져 보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 첫째 이야기에서는 5일째까지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드셨지만 둘째 이야기에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짐승들과 에덴동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시간적 전후 순서가 서로 틀리게 적혀 있으니 두 기록 전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이다. 한 마디로 어린아이가 임격정전을 보니까 잘 모르는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으니 못 믿겠다고 떼쓰는 것과 같다.

창조의 기록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다. 당시에 비디오로 생생하게 전 과정을 생중계하듯이 녹화해 놓은 것이 있지 않는 한 그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설령 첫 인간 아담이 창조의 전 과정을 보고 또 이미 문자를 갖고 있었다 치더라도 그 엄청나고 장엄한 광경을 정확하게 앞뒤 순서가 맞게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순서를 혼동할 수도 있고 간혹 중간에 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아담 본인이 창조의 대상으로 피조 되었는데 어떻게 창조 자체를 기록할 수 있겠는가? 아기가 자기 탄생 과정의 시간적 전후 순서를 정확히 알아 기록할 수 있는가? 오직 부모만이 안다. 도대체 이런 지엽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이유로 성경의 창조기사에 시비를 거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아무 군말 없이 한 마디로 하나님과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



이 더 당당한 태도다.

자동차를 만드는 정확한 순서와 절차는 설계자만 안다. 심지어 공장  
장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설계자가 아니더라도 상  
식이 있는 자라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고 그 제조과정을 개  
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차체를 먼저 만들어 엔진을 장착하고 좌석과  
인테리어를 조립한 후에 뚜껑을 덮고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다는 순서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다. 또 자동차 만든 이야기를 기록  
하면서 첫 장은 자동차 공장을 만든 이야기부터 하고 둘째 장은 자동차  
자체 조립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은 공장부지를 사  
고, 둘째 날은 공장 건축공사를 했고, 셋째 날은 공장종업원을 모집해  
교육했고, 넷째 날은 자동차 설계를 했고, 다섯째 날은 자동차 만들 재  
료를 구입했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자동차를 만들어 냈다고 기록한 셈  
이다. 창세기 2장은 자동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철강으로 차체를, 플  
라스틱으로 내장재를, 전자부품으로 계기를, 주물로 엔진을 만들고 도  
장했다고 말한 셈이다.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창조의 현장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없었다. 당연히 과학적 기록이 있  
을 리 없다. ‘창세기’의 원어적인 뜻이 ‘시작’이듯이 그 구체적인 모습은  
몰라도 만물의 출발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주만물의  
시작에 하나님이 있었으며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그 다음에 첫째 날  
은 “가라사대” 하여 말씀으로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또 무엇을 만들  
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언뜻 정미하지 방식으로 기술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이 장엄한  
우주를 만드시되 그 천하를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고 번성케 할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리고 즐겨야 할 대상으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을 인간에게 두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둔 채 인간만 뭇땅 사라진 후의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라. 사자가 왕 노릇 할까? 과일과 채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들이 씨앗을 까먹거나 원숭이가 바나나 정도는 먹어도 사자가 수박·딸기·참외·배추...를 먹겠는가? 석양에 장엄하게 지는 놀과 바다의 창일하는 파도와 만년설에 뒤덮여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산봉우리가 동물들에게 어떤 감격을 주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반대로 인간의 감동을 자아내며 시로 읊을 대상이 될 만큼 심히 아름다운 자연과 각기 종류별로 열매 맺는 온갖 채소와 과일과 곡식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을 누릴 인간이 없는데 얼마나 사치스런 낭비에 불과하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는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발생하는 어떠한 모순과 의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해답이 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3:9)라고 물은 것이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다. 아담에게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는 말씀이다.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 혼자 다 해치우기로 결심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자유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두렵고 부끄러워져 숨어버렸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수치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내려와 말씀하신 것이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연보호를 더 잘 하는 것과 종교적 신앙과는 무관하다. 그들로선 갈수록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 스스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한 가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즐겨 타는 것도 자동차는 기름 값도 비싸고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공해로 환경을 파괴하고 주차 스페이스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편하게 하여 살리려는 자동차가 도리어 불편하게 하여 죽이는 흉기가 되었다. 자전거는 주차도 편하고 공해도 없고 운동이 되어 인간의 건강과 인간 생존에 좋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로 통근해도 크게 불편이 없을 만한 지리적 환경 때문이다. 그들도 미국 같이 넓은 땅에 오면 사상과 종교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자연보호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해타산과 유익 때문이다. 그야말로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화론적 사상이 온전히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진화를 정말로 잘 믿는 자라면 구태여 자연을 보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자꾸 변화되고 진화되어 가며 그것도 우연에 우연의 일치를 거듭해서 바뀌어 나가는데 인간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 지금의 세계와 비교해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자연세계를 잘 지켜야지 하는 것은 진화를 막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심히 아름답다고 감탄할 만큼 자연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가치 있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자연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의 자연보호는 인간 생존 차원에서 차 대신 자전거를 사용해 생활환경을 바꾼 것뿐이다.

자연 보존을 위해 인간의 탐욕과 죄성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는가? 진화론자들처럼 환경이 고쳐지면 인간의 유익도 보존되리라고 안심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겠는가? 환경이 고쳐져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어야 환경이 고쳐진다.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진화론이 사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우연에 우연이 거듭되는 진화로 인간이 선하게 변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보장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보장 못한다. 진화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에 의지하는 인간이라면 구태여 그 우연을 바꿀 필요도 의미도 없다. 

## 아담의 갈빗대?

성경의 원어적 뜻을 아무리 엄밀히 분석해서 해석한다 해도 성경의 앞뒤 문맥과 하나님의 일관된 뜻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회화적 수준의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아담이란 단어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번역된 것에서 보듯이,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또 갈빗대로 번역된 원어 ‘첼라’가 ‘다른 한쪽(side)’도 의미한다. 이 두 구절을 연결하여 아담이 원래 양성구유(兩性具有)였는데 하나님이 둘로 나뉘어 암수 한 쌍으로 분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원어의 의미를 밝힌 것까지는 좋은데 그 원어가 상징하는 의미도 앞뒤 문맥과 성경을 일관하는 하나



님의 뜻에 맞추어 함께 밝혀져야만 한다.

아담이 남자가 아니었고 양성을 다 가진 인간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암수 수정작업 없이 혼자서 알을 까거나 새끼를 낳는 단성 생식이 가능한 고사리 같은 인간이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생식할 필요가 없는 영원불멸의 인간이라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만드셨을 리는 없다. 그럼 전자의 가능성뿐이다. 만약 가장 고급한 동물인 인간이 양성 구유였다면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전부 그랬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화석의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럼 논리적으로 아담만 양성구유로 지어졌고 다른 동식물은 처음부터 암수 구분이 있도록 지어져야 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을 양성구유로 지었는데, 짓자마자, 성경의 표현대로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의 창작을 실패작으로 자인하고 바로 남녀 분리 작업에 돌입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해석대로 하면 그런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인간과 같이 실패하고 신경질 내고 죄를 짓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수준에 불과하다.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인간의 경배를 받을 가치도 없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제쳐두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 저절로 뿜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을 자기의 분석력과 판단력을 동원하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 당신의 관점에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를 보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인간을 불멸로 만들었거나 양성구유의 실패작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작업을 했다는 식의 해석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앞뒤 문맥과 전체 주제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첫째 이야기는 웅장하고도 단순한 한편의 서사시적인 표현이다. 질서 정연한 창조의 모습과 전 우주적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2장의 창조 둘째 이야기는 인간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즉, 창조주 하나님의 품안에서 피조물로서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말씀이다. 특별히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의 창조 이야기는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과정을 밝히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실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왕국의 최소 단위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뜻을 설명하려는 목적이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등의 표현을 보라. 남자와 구분해서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따지자는 표현과 상징이 아니다. 2장 마지막의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는 결론의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전 설명이다. ‘독처’·‘돕는 배필’·‘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표현한 것이 전부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이지 않는가?

아담의 창조 기사로서 아담이란 원어가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통칭 하듯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나님은 양성구유의 인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각각을 모두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 후에 이제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워야겠는데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기사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해



준 제 짝이 반드시 있으며 특별히 남자가 아내를 자기 갈빗대 다루듯이 품에 안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금실 좋은 부부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상하게 둘이 얼굴이 닮았거나 살면서 더 닮아간다. 당사자들 본인도 이 사람과의 결혼이 불신자에게는 운명적인 것 같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같은 확신이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상대의 갈비뼈 같은 분신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만 무조건 도우라는 말이 아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聯合)”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연합은 우열·상하·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둘이 각각 있으면 완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서로가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상형문자인 한자에도 남자는 ‘발에 나가 힘을 쓰는 사람(男)’으로 여자는 ‘아기를 업는 사람(女)’으로 표현되어 있다. 상식을 가진 자라면 창조 때부터 남녀는 다르게 만들어졌으며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부부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특성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연합(united)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없어져 하나(one)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섬기는 여종’ 혹은 ‘섬기는 배필’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으니 사람이 처음에는 양성구유였고,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숫자가 다르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원어의 뜻에 충실해도 또다시 원어의 문자적 해석에만 집착한 것이다. 성경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만약 아담이 처음에는 양성구유였다면 결혼의 목적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도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원어의 의미에 충실해서 양성으로 구분되어 있던 부부가 하나가 되어 중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이다. 성경은 “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창 2:24)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남자가 데릴사위나 처가살이를 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도 같은 수준이다. 남자가 독립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의 책임과 대표성을 일차적으로 남자에게 일임한 것이다. 차별적 자격과 능력으로 종속과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다. 동등한 신분과 위치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최종 책임과 대표성을 지닐 자를 정한 것이다. 만약에 성경이 남존여비 사상을 나타내려면 이 구절도 ‘여자가 부모를 떠나’로 바뀌어져야 한다. 

## 선악과- 이분법적 의식의 출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일, 이른바 인류의 타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여자가 타락의 책임을 져야 하고 남자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남자와 여자는 기능적으로 보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고 판단에 있어 남자는 이성이 앞서고 여자는 감성이 앞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딤후2:14)고 말한 대로다.

사탄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똑똑해질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시샘이 나서 인간더러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여자의 민감한 감성을 부추겼다. 성경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 알 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창 3:6) 여겼다고 한다. 감각(Sense)에 의한 판단이 논리적인 분석보다 앞섰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만약에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했다면 다른 말을 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사탄은 아담이 이성적 분석을 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여자를 골랐다. 여자에게 타락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뱀처럼 간교한 지혜를 동원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하와를 먼저 찾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 좁게는 아담에게 먼저, 넓게는 두 사람에게 공히 책임을 물었다. 아담이 범죄 현장에 하와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성과 대표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먼저 탓하셨다.

비록 감성에 약한 하와가 먼저 꾀에 넘어갔지만 그가 죄를 짓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동일한 순서를 따라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범죄는 육신적 본능에 의한 원시적인 범죄(먹음직하고)를 가장 먼저 범한다. 체면·위신·자존심에 관계되는 범죄(보암직하고)가 그 다음이며, 지성과 사상적인 범죄(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는 마지막에 행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먹음직)과 안목의 정욕(보암직)과 이생의 자랑(지혜롭게 탐스런)이니”(요일 2:16)라고 지적했다.

간혹 뱀이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므로 사탄이 유혹하여 여자가 성적 인 눈을 뜨게 되어 아담과 성 관계를 가짐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연합하여 한몸을 이룰지로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셨다. 남녀가 성 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다. 또 그 래야 하나님 사랑의 최소공동체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해석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과 앞뒤 문맥에 연결해 보지 않은 오류의 또 다른 예다.

선악과의 기사에 여자의 열등성이나, 성적 범죄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까지도 원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까마득한 옛날 조상이 지은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연좌제 같은 엽매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부모가 공산당이면 자식도 빨갱이나 빨갱이가 될 소질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외국여행마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느냐고 반발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낙원추방을 선포했다는 것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의 원인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범죄 행위, 즉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다는 것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어떤 과실이었는지, 에덴동산이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그 죄를 물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은 배고픔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반드시 범죄할 줄 미리 알고도 선악과라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탐스럽게 열리도록 해놓았다. 또 인간이 따먹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주고는 그 일과 아무 연관 없는 후손도 연좌제로 묶어 죽을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마치 담을 넘어 주렁주렁 달린 홍시를 따먹는 아이를 숨어서 호시탐탐 기다렸다가 혼내는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 선악과를 따 먹은 범죄 행위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을 배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구 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책임과 권한을 주셨지만 절대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따먹 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둔 이유도 언제 어디에서든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일부러 유혹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 나무가 항상 보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품안에 있는 것이 너의 행복임을 잊지 말라고 순간순간 아담더러 깨우치게 하기 위한 뜻이다.

다른 모든 실과는 언제든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배가 고팠던 까닭도 아니요 천하의 별미였던 것도 아니다. 선악과는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겉모양새도 가장 불품없었고 맛도 그저 그랬을 것이다.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금령에 대해 단 한번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든지 심술궂다든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사탄의 흉계에 넘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에 대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하자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해지고 보암직해지고 탐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시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반응에 맡기는 모험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듯이 인간의 반역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쥐뿔을 놓고 인간을 속아매려 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사랑하고 경배할 성스러운 자유를 주려 한 것이다. 어느 신학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말했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에 자신을 속박했다’고 까지 했다. 톰슨(Thompson)은



하나님의 심경을 이렇게까지 적었다. ‘자유로운 우주, 나로부터 자유로운 우주를 만들면 어떨까? 나의 신성을 가려서 피조물이 자연스럽게 살게 하면 어떨까? 그 피조물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피조물들이 나를 사랑할까?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이 우주에 자유를 주면 악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험을 해야 하는데... 또 그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나의 뜻에서 멀리 떠날 수도 있지. 흠, 하지만 내가 이 역동적인 우주와 계속 연락하고 내가 피조물과 함께 이 우주의 연극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sup>2)</sup>

하나님의 이 모험은 실패로 끝났다. 인간은 너무나 자유롭게 범죄에 가담했다. 선악과를 따먹어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선악과를 따 먹었다.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세상의 것이 무조건 나쁘고 육신과 안목의 본성을 채우고 이생에서 자랑거리를 쌓는 것 자체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먼저 보이고 세상의 것으로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된다는 것이다.

원죄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에 억울하게 덮여 쓰는 명예가 아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거나 이생의 명예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것만 밝히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좇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자동적으로 세상의 것을 좇게 된 것이 원죄다.

나아가 선악과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

---

2) 필립 안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Disappointment with God, 좋은 씨앗사 번역)’ p74, 75에서 발췌 인용함.



나님 쪽에서 인간을 향한 요구나 기대나 모험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더러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부모가 아기에게 “내 손을 꼭 잡고 있어. 내 손을 놓치면 너는 미아가 되어 큰 화를 당할 거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원죄란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후대 인간이 억울하게 당해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세대의 인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외면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라 할 것 없이 생래적(生來的)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모든 사람이 온전히 인간 중심·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한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이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본성적으로 거부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반발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외면·거부·배반,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것이 원죄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상태는 평생 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의로 외면한다.

물론 인간은 부단히 자기 한계성을 초극(超克)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간 중심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본성 때문이다. 자신과 주위 세계를 구분 못하는 주객미분의 상태에서 자의식이 발달해서 주객분리의 이분법적 사고가 가능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소외되었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악과로 인간을 제한시켜 원죄를 덮어씌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노력과도 원죄는 하등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이전에는 모든 자연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원죄다.


따라서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가운데 자리잡도록 자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동산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행복과 가치의 근본임을 인정하는 자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제발 알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이며 원죄란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다.

기독교는 일반인이 오해하듯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는 편협한 명제를 믿는지 거부하는지를 신자 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에 드러난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랑에 내 전인격을 걸고 향복하는가 하지 않는가 만으로 기준을 삼는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라고 했다. 기독교인만 나오고 이슬람교·불교·유교를 믿는 자들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험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제 2의 선악과적 선언이자, 질문이자, 초대이다. “너희 스스로 인간의 한계성을 초극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이분법 이전의 초이분법적인 의식상태로 넘어가서 과연 너희에게 평강과 자유함이 있었고 초월한 적이 있었는가? 지금껏 실패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한계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가 인간이 인간다운 참된 자아상이요 자의식의 성숙한 모습이라



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서 강요하는 교리를 알지도 못하고 분석도 해보지도 않고 자기의 자의식과 견주어 보지도 않고 그저 유일한 길이고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의식이 깨어지고 또 깨어진 후에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힘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 버티다 못해 결국 행복한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선악과를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의 자의식으로는 절대 선악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원죄의 의미다. 

## 노아 홍수를 따져보면

성경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당시의 조선기술이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숫자나, 전 지구를 덮은 홍수의 규모를 볼 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솔트레이크 시는 TV 중계에서 보았듯이 해발 3,000미터에 이르는 로키 산맥의 준령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분지 도시다. 병풍처럼 둘러싼 그 산들의 중턱에 이상하게도 일정한 높이에 물이 괴었다가 빠진 흔적이 직선 자국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 지역은 워낙 건조한 사막 지역이라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옛날에 거기까지 물이 차 있었다는 증거다. 산 중

턱이라 해도 이미 한라산 높이보다 높다.

이런 자국으로 노아의 홍수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산을 덮을 만큼 물이 켜 이번이 있었다는 증명은 된다. 한라산보다 높ی 물에 잠긴 흔적이 있다면 남한 정도는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깊이와 높이로 물이 찼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지구를 덮을 만큼의 지질학적·기상학적 이변이 없었다고는 아무도 단정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를 부인할 수 없다.

서기 1852년 니스웨에 있는 이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을 발굴하여 수집한 24,000개의 토판에 새겨진 쉼기 문자를 해독한 결과 노아의 홍수와 일치할 만한 대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대홍수에 대한 전설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광범위한 나라와 종족들에게 전해내려 오고 있다. 미국의 한 인디언 부족의 설화에 따르면 지구가 생성되고 첫 남자와 첫 여자가 생긴 이후 네 번의 변혁이 있었는데 첫째 세계에서 두 번째 세계로 넘어가게 된 동기가 대홍수였다고 한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결국 몇 번 강조한 대로 임꺽정식으로 해석하느냐 홍길동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성경에 적혀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고 해도 신앙으로서 가치가 없다.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있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방주의 상태에 관한 시비는 제쳐두고 분명한 것은 없었던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다.

노아의 홍수와 연관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다. 인간의 수명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아담 이후 노아까지는 다들 수백 년에서 근 천년까지 살았다고 말한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상식




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느냐고 따진다. 그러나 이처럼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없다. 초창기 인간들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다. 지금 같은 환경오염이 전혀 없었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지 않았고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환경 자체가 온난 다습하여 무병장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다. 전 세계 인간의 족보를 거대한 역삼각 피라미드 모양으로 끝없이 계속해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종족·언어·피부색깔의 구분을 초월해 반드시 최초의 남녀 두 사람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 최초의 두 사람이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지금으로 치면 박아무개 식의 고유한 이름으로, 또 에덴동산도 서울 강남구 무슨 동 몇 번지 식의 구체적인 주소지로 착각한다. 그래서 아무도 증명할 수도 없으니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 최초 인간이 동회에 가서 출생 신고하여 호적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그 이름과 주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성경은 단지 최초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담(사람 내지 남자), 하와(여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그들이 살았던 장소를 에덴동산이라고 명명한 것뿐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장소가 아니다.

에덴이라고 하니까 고갱이 그림 그리고 살았던 타히티처럼 먹고 마실 것 하나 걱정할 필요 없는 유토피아만 상상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에 하늘에는 새들이, 물에는 물고기들이, 땅에는 짐승이 살도록 만드셨다. 각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정해서 그에 맞게 동물들을 지으셨다. 그럼 인간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인간더러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으니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바다를 항해하는 배,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 수·륙·공(水陸空), 어디든지 정복하고 살라는 말인가? 인

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품안이다. 또 바로 그곳이 에덴동산이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정해준 터 안에서만 먹을 것·마실 것·입을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 이 땅 어디에서도 그분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에덴동산의 뜻이다.

이 최초의 두 남녀는 성경의 기록대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 후손들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겠는가? 어쩔 수 없이 최초의 인간은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형제·자매끼리 결혼하지 않고는 종족 보존이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현대인처럼 아담과 하와가 기껏 몇 십 년 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혹시라도 아들만 몇 명 낳았다든지, 딸만 낳았다든지, 아니면 하와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담 일대에서 인류는 멸망하고 만다. 또다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구수가 찰 때까지 수명(壽命) 몇 십 년짜리 인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들었을까? 아니다. 최초 인간이 오래 살아 그 자손을 계속 낳고 또 낳는 방법 말고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연히 초창기 인간은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길어야 했고 길었었다.

신자가 노아의 홍수를 믿는 것이 그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만 믿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임을 믿는 것이다. 에덴동산과 아담과 이브의 실존을 성경기록대로 믿고 또 노아 이전까지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과 같이... 

## 경상도 시리즈와 성경

한국에서 한창 삼행시(三行詩) 개그가 시리즈로 유행한 적이 있다. 세 글자 단어로 운을 때면 재기 넘치는 글을 지어내어 웃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두막’이라는 삼행시는 ‘원’ 하면 ‘원숭이 궁둥이 빨개’, ‘두’



는 ‘두 짝 다 빨개’, ‘막’ 은 ‘막 빨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그를 들은 어떤 할머니가 너무 재미있어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고 하면서 ‘원두막’이라는 운자는 생각이 안나고 웃겼던 원숭이 궁둥이만 기억이 나 친구에게 ‘원숭이’를 운자로 던지라고 했다. ‘원’ 하니까 ‘원숭이 궁둥이 빨개’, ‘숭’은 ‘숭악하게 빨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하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했다. 할머니가 틀리게 옮겼던 삼행시가 더 그럴싸하게 되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일부러 두 개의 삼행시를 시리즈로 만든 것이지만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웃기게 만든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4복음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상호 모순되어 보이고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된 것이 성경의 저자가 마치 이 개그를 전하는 할머니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성경 저자들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의 의미만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아 예수에 관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막이야기를 모아 엮어 갈 때에 이야기를 좀 길게 서술할까, 다른 토막 이야기를 부칠까말까 등의 차이는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 사실이나, 논리적 일관성이나, 기술상의 정확성 같은 것에 상호 모순과 오류가 생겼다. 그러나 할머니의 잘못 전해진 개그도 재미있긴 마찬가지인 것처럼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예를 든 두 삼행시는 원래 각각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이라 웃기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원두막’ 삼행시의 경우에는 원숭이 궁둥이를 코믹하게 표현했다, ‘원숭이’ 삼행시는 원숭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할머니가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웃겨보려다 아둔한 기억력 때문에 도리어 창피를 당한 것이 웃음의 내용이다. 두 개그가 공통적으로 ‘원’자로 시작하고



원숭이가 등장한다고 같은 내용의 개그도 아니며 웃음의 의미도 전혀 다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삼행시는 반드시 함께 들어야 우습지 하나씩 들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

네 복음서를 보는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언뜻 보면 상호 순서와 논리적인 일관성과 한 사실을 두고 묘사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순서가 어긋난 것 같고 상호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내용들이 오히려 반드시 그 순서와 그 내용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고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기사의 배열순서와 길이와 묘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각각의 기록에 반드시 고유한 의미와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앞뒤 문맥(Context)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 이야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앞의 기사에서 결론이 났는가, 어떤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이 이야기까지 이어지는가 등을 잘 따져야 한다. 이런 분석은 4 복음서를 상호 비교할 때에 더욱 용이해진다.

그리고 4복음서에 내용은 같은데 구체적인 부분이 달라 보이는 것조차도 정교하게 디자인된 별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4복음서를 같은 내용을 묶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한 평행복음서(Gospel Paralles)가 있다. 한 번 읽어 보라. 전혀 은혜롭지 못하다. 신학적 연구에만 도움이 된다. 4복음서가 반드시 개별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조금씩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마치 원두막과 원숭이 개그를 함께 들어도 무엇이 웃기는 지 분간을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책인가?

성경이 지금 형태로 완전히 만들어져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최초 저작 될 때는 각 책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힌 쪽지나 두루마리 형태였다. 그 내용은 오랜 세월을 걸쳐 보관·유지·계승되었지만 책의 형태는 복사에 복사를 거듭한 역사적 산물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모두 사본이지 최초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 사본은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하기 이전까지는 전부 손으로 베껴서 쓴 필사본(筆寫本)이었다.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필사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오류가 있게 마련이다. 필사본들이 그 원본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따지려면 가장 먼저 그 필사 과정이 얼마나 정밀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성경의 필사는 전문 필사자들이 맡아서 했다. 유대인들의 경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으로도 부르지 못했고 필사 과정 중에 야훼 하나님이란 호칭만 나와도 붓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옷깃을 여기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옮겨 적었다. 또 일점일획의 오류가 있거나 가감(加減)이 있을 시 죽음에 처하는 불경죄(blasphemy)를 범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성경을 대했기에 최대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완벽하게 복사하려 노력했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인지라 장시간 많은 양을 베끼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수라는 것이 지쳐 줄다가 예를 들어 한글로 치자면 ‘아버지’로 적어야 할 것을 ‘아바지’로 적은 것들이다. 금방 알 수 있는 잘못인지라 다음 필사 과정에서 수정을 했거나, 그대로 전수되었다 쳐도 문장의 뜻에는 하등 차이가 없었다. 간혹 조금 심각한 잘못도 있었겠지만 많은 필사본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오류를 쉽게 발견해 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붓을 새로 빨고 옷깃을 여몄다. 회당이나 수도원에서 훈련된 필사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엄격한 통제 아래 복사했다. 성경만큼 정밀한 필사과정을 거친 책은 없다. Bruce Metzger에 의하면 신약의 전체 절수 약 20,000절 중에 40절 정도가 이런 필사의 오류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철자법이나 토씨의 오용(誤用)처럼 그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들로 판명되었다.

성경은 그 책이름(Bible=The Book)이 말해 주듯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정확 무오한 책이다. 성경이 일점일획도 오차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구조로 봐서도 완벽하다는 뜻이다. ‘성경무오설(聖經無誤說)’을 철자법상의 오류조차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긴다면 또다시 그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 단군신화와 기독교

간혹 한국 건국 신화의 단군과 이스라엘 건국의 조상인 성경의 아브라함을 비교한다. 단군이 신화라서 못 믿겠다면 아브라함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초보적인 억지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대로 단군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단군을 믿는 것도 단군 설화에 나타난 ‘홍익인간’ 사상이지 단군의 실체적 존재 여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르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정신적인 조상 이전에 육신적 조상이다. 그 두 민족의 족보가 그에게서 시작한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에블라(Ebla) 점토판(기원전 2500년 경 제작)과 또 1925년에 발굴된 누지(Nuzi) 점토판(BC 1500 년경)과 1933년에 출토된 마리(Mari) 점토판(BC 18세기) 같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이 그의



역사적 실존성을 증명해준다. 이 점토판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인명·지명·관습·법률·사상들이 창세기 기록과 일치한다. 성경의 족장시대가 실제로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직접적 기록이 성경 외에는 없다고 신화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간접적인 간단한 언급을 빼고는 성경 외에 기록이 없다. 예수보다 2,000여 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 창세기의 11~25장 무려 15장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약 4천 년 전 고대 인물 중에 아브라함만큼 기록이 풍부한 자는 아무도 없다. 이를 못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세속의 역사 또한 모두 부인되거나 신화로 치부되어야 마땅하다.

지금부터 4천 년 후에 서기 21세기 한국 서울에서 살았던 한국인의 생애에 관한 기록 두 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기록에는 “박 모씨가 살았는데 강남 8학군 아파트에서 살면서 현대 그랜저 자동차를 몰고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적혀있다. 둘째 기록은 “박 모씨가 공중에 떠있는 집에 살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소유했고 외계의 우주인과 대화 하다가 외계인 여성을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다.

둘 다 박 모씨의 구체적인 신상명세는 없다. 그러나 첫째 기록은 아무리 4천 년 후에 현대차·삼성휴대폰 등이 하나 남아 있지 않고 강남 8학군이 지도상에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당시의 다른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으므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둘째 기록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공중에 떠있는 집에 대해 당시의 다른 어떤 기록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지어낸 이야기가 분명하다.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전자에, 단군 설화는 후자에 해당된다. 이 둘을 같은 신화

로 취급할 수는 없다. 박모 씨의 기록만 있지 자동차와 휴대폰도 없으니 못 믿겠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기록이 성경 외에는 없으니 못 믿겠다고 우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기록이 서로 모순되게 보여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마태복음에는 헤롯왕 때(BC 5~4년경)에 예수가 태어났다고 한다. 반면에 누가복음 2장에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 호구조사 때(AD 6년경)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 두 기록의 연대가 무려 10년의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첫 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테’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이전의’ 또는 ‘앞의’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한 호구조사 때에”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실제로 구레뇨가 ‘두 번째’로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가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후 10년이 지난 후 두 차례 시리아 총독을 역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이 기록이 잘못되었다면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초대 교회 당시의 기독교 반대자들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다. 누가는 알다시피 당시로서는 최고 인텔리였던 의사다. 자신의 책을 당대의 왕족과 귀족 같이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써서 보내었는데 그들이 이 기록이 오류라면 몰랐을 리 없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예수에 관한 기록이 세속 역사에 남아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 그들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인 반면에 단군은 신화상의 가공인물이다. 예수와 아브라함을 믿는 것은 당시의 역사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지 그 기록에 담긴 사상과 철학만 믿는 것이 아니다. 단군의 사상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아브라함과 예수의 기록에 신화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신화’와 ‘신화적’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 신화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적인 묘사를 해놓아도 역사적 사실과는 아예 무관한 상상의 산물이다. 신화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화가 아닌 것을 신화처럼 비현실적인 표현으로 과장 내지 신비감을 강조했다는 뜻이다.

고대 기록에서 어떤 것을 신화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신화가 아니므로 역사라는 뜻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아무리 신화적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신화는 본래 상상의 산물이므로 독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적용할 때도 무제한의 상상의 나래를 펴도 된다. 신화적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단군은 신화이지 신화적이지 않다. 성경에 신화적인 표현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단군의 가르침이라고 전해내려 오는 홍익인간의 이상을 무조건 다 믿어야 하거나, 단군을 민족의 구심점으로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단군과 홍익인간 사상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신화는 그 상징적 의미와 가치만 인정하면 되므로 수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아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단군을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려서부터 받은 학교교육의 탓이다. 개인의 실존적 체험과 결단에 바탕을 둔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역사와 사실에 바탕을 둔 개인의 실존적 결단은 신앙이 될 수 있지만 신화에 바탕을 둔 그것은 사상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 베들레헴과 백두산 기슭

북한은 김일성의 생가를 성역화하고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미화하여 북한 인민들에게 그를 영웅적 인물로 주지시켰다. 이처럼 종교 정치 사회 집단에서 그 시조나 지도자의 삶과 업적을 신비화시키기 위해 재구성하고 다듬는 일이 많이 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성경 기록도 구약의 예언에 끼워 맞추기 위해 조작된 것이지만 이런 관행에 비추어 문제삼지 말고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어떤 현상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종교에서 조작된 허상에 경배하고 위계와 사기와 거짓을 믿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정치·사회적 집단의 궁극적 목표는 그 집단과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과정이 어찌 되었던 그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나님과 새로운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처음부터 거짓된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겠는가? 또 그 거짓을 용납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실이 아닌 것도 자기 스스로 의미만 부여하면 된다고 용납한다면 세상에 사기꾼이 득세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한 인물 넷이 등장한다. 창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은 다말, 기생 라합, 이방인 과부 룻, 다윗의 충복 우리야의 아내이면서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밋세바가 그들이다. 네 명 다 족보에 올릴 수도 없는 여자인데 다 그것도 부정한 여자들이다. 예수는 죄인의 후손이며 불륜의 자식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다. 거기다 동정녀에게서 났다고 한다. 상식적으



로만 생각할 때는 이 또한 불륜의 자식이다. 마태는 이런 기록으로 예수에게 도대체 어떤 신비감을 조성하려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 않는가?

물론 많은 종교에서 시조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감 조성의 단골 메뉴로 잘 등장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말 그대로 성스러운 처녀가 평생 독신으로 살든지 박혀거세식으로 알이나 동물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처리된다. 기독교식으로 정혼한 남편과 함께 등장시키는 법은 없다. 좁은 동네에 약혼자가 멀쩡히 있어 금방 소문이 날 것이 뻔한 처녀를 등장시키고 또 어수룩한 남편과 결혼해 씨 다른(?) 동생을 낳게 해서 어떻게 예수가 영웅시되겠는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가 생기는커녕 욕먹을 이야기투성이다. 성경을 저작하는 자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다른 이유가 없다. 그 모든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작한 기록이라면 너무나 엉성하다. 조작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저자라면 이런 기록을 남기지도 않는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확률이 극히 적기에 구약의 기록과 끼워 맞춘 것이라고도 한다.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없다. 완전히 부정할 확고한 증거가 없는 한 태어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의 헤롯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신생아들을 학살한 이야기도 당연히 조작이라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예수를 그 사랑을 직접 자기 몸으로 실천한 자라고 평하는데, 사랑의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나면서 죄없는 아이들을 죽게 했다는 이야기를 조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기 십자가 죽음의 동반자로 미리 죽인 것인가? 누가 이런 종교를 믿겠는가?




로마시대의 호구조사는 본적지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생하며 본적지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도 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식의 호구조사가 아니라 유대의 호적제도를 따랐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기업을 나눈 이래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지파와 가문별로 했다. 호구조사가 비록 로마의 명령으로 행해졌지만 유대 고유의 방법으로 조사받음으로써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혹시 필립 안시(Philip Yancy)가 지적한 대로, 요셉이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고 고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할 마리아를 배려’해 본적지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인지도 모른다.

단지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구태여 있지도 않았던 인구조사를 만들어내고 만삭의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무리를 범할 만큼 저자인 의사 누가는 어리석지 않았다.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 이것 외도 수백 개가 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해서 일부러 엉터리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예수와 그 열두 제자는 기독교 체계와 조직을 정비해 그 세력화를 꾀한 적이 없다. 예수는 오직 이 땅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왔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제자들더러 자기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한 적도 없다.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부탁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 두 가지뿐이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조작하는 기독교의 메커니즘과는 다르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고전 15:3, 4)이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예수가 복음이다. 나무에 매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한 사형수에게 영웅시하거나 신비화시킬 것이라곤 피 묻은 가로·세로의 나무 등지 외에는 없다. 

##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몇 가지 경우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지나간 기독교 메커니즘의 역사는 성경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많았다. 성경이 카톨릭 사제만의 전유물이라며 무조건 카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따라야 되었던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만이 아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그렇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죽이게 되는지 실례를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살리기보다는 남을 살리려 할 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딤후 3:6) 책이다. 이 교훈과 책망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적용된다.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자기도 바로서지 못한 자가 성경으로 남을 살리려 해선 안 된다.

성경말씀은 도덕교과서나 경구가 아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의 경구로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자기가 먼저 바뀌는 책이다. 사람은 절대 고분고분 말을 듣고 스스로 고치는 존재가 아니다. 신자가 전한 성경말씀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으로 바뀌어진 신자의 모습을 보

고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바꾼 그 말씀이 궁금해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성경을 통해 변화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둘째는 ‘성경대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나대로’만을 고집하는 경우다. 흔히들 성경을 읽는 자가 인간이기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읽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른바 ‘전이해(preunderstanding)’를 가지고 나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해 정도에서 보는 나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만의 해석을 절대화시켜선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책은 몰라도 성경에 한해 이것은 틀린 말이다.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 해야 한다. 내가 해석하면 ‘누가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어버린다. 성경 해석은 성경 안의 다른 말씀들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어떤 해석이 다른 성경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일관된 주제가 있어 그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이다. 그 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해석의 열쇠로 사용할 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의 등락 폭이 심해 단기투자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들끓지만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자만이 이익을 볼 수 있다. 각 증권회사마다 재정전문가를 두어 시황분석과 일반 투자자의 상담에 응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개인의 감이나 체험에 의존하는 일반투자자와는 다르다. 한국경제 전체의 상황·미국과 선진국들의 세계경제



동향·업체의 영업상황·주식시장의 장단기 흐름 등 모든 수집 가능한 정보와 심지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황 예측자료를 발표한다.

이때 이들의 시장 분석은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으로 해석한 것이지 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그 자료는 일반 투자자들이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자료로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된다. 개인이 나대로 해석한 정보는 남과 공유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성경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리는 열쇠로 성경대로 해석했다면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절대 미덕이 아니다. 자기 해석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보와 관용의 미덕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에 자신이 없어서다. 어느 누구의 해석도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서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는데 꼭 하나를 우길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를 것 같으면 무엇 하러 성경을 보는가?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과 해석 방법으로 보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성경을 성경의 절대적 기준으로 해석했다면 그 해석은 얼마든지 주장되어질 수 있고 또 주장되어져야만 한다.

성경이 사람을 죽이는 세 번째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사회적·조직적 이익을 위해 이데올로기에 따른 해석을 해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이미 설정한 가치관이나 신조를 뒷받침하려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 해석하는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단언컨대 이런 자들에게는 인간 사회의 비난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니 일관된 흐름이 분명히 있고 필연적으로 도출되어지는 결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군부독재 시절에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학생들은 군사훈련에, 일반인들은 프로야구로 내몰아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 모든 정책의 입안과 적용을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따라 오도했다. 그러나 최루탄과 물고문 탄압 아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통령 직선제 민주주의라는 어느 누구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록 남부 기독교인이 성경구절로 노예제도를 옹호했고 지금도 남녀 성차별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들먹이는 잘못된 해석이 가끔 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 도도히 흐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 진리다.


잠언이 착한 사람은 다 잘된다 하고 욕기에선 착한 사람이 다 잘되는 것만은 아니다. 한다고 해서 성경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책이 아니다. 인생살이의 외형적·결과적 측면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다양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하나님 당신의 품성과 사역은 절대 칠색조처럼 색깔이 다양하게 변한지 않는다. 그분이 세상만사와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 근본원리는 사랑이다. 그 원리는 잠언이나 욕기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드러나 있다.

성경책에서 뿐만 아니라 신자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선하게 드러내신다. 이 변함없는 절대적 사랑이 성경해석의 절대적 기준이다. 이 기준을 놓치면 성경은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진다. 직선제 민주주의 수용이라는 뻔한 결론을 제외하고는 계엄령·이원집정부제·내각제·유신헌법 고수 등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의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나만의 해석’으로



홀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기쁨이 없다.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에 관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또한 하나님 당신이나 우리 해석이 칠색조처럼 변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되 더 가까이 가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항상 서울에 있고 신자가 그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로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다. 신자는 그 길을 따라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대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가끔 뒷걸음질도 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다는 것이다. 어제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다가 오늘은 호남선 기차를 타고 내일은 관부연락선 뱃길로 가도 서울에 도달되는 식은 성경에는 없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한 가지 절대적 해석기준을 놓치면 성경을 볼 때마다 매일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일 다른 길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뜻이다. 자기도 모르는 길이니가 당연히 남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걸로 그럴싸한 핑계만 댈 수밖에... 

## 예수님의 성경 읽기- '환기식 독법'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해석법과 다르게 새롭게 해석해 제자를 가르친 내용이 신약성경에 몇 부분 나온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살인하지 말라”는 식으로는 말 씀하지시지 않았다. 대신에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물론 살인을 하지 말아야겠지.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인가? 아니다. 형제·자매를 향해 성내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고도 어찌 제단에 제

물을 드리고 있겠는가.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이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경해석기법을 가르친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가 처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깊은 해석을 덧붙였듯이 우리도 성경을 환기식 독법(Evocative Reading)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산상수훈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 본 것에서 불과하다.

예수님은 살인을 육신적 생명을 죽이는 죄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다름없으니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윤리적으로 조금만 깊이 성찰한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의 성경해석의 원리는 다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예수님은 모든 해석의 기준을 하나님과 당신 자신에게 두셨다. 단순히 신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더 차원 높은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경 해석의 열쇠가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다.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한 증거인데 바리새인과 다른 새 해석방법을 깨달아 가르칠 계제가 아니지 않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도로는 예수님 말씀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읽은 것이지 환기식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만약 성경을 정말 환기식 독법으로 읽어야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풀어서 설명한 말씀 또한 환기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왜 형제



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의 범주에 넣었는가? 그렇게 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살인인가? 또 마음의 살인을 해선 안 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깨달아야만 진정한 환기식 독법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좀 더 고급한 차원의 도덕적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천국 원리로 해석하려고 주신 것이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관한 것이다. 비록 도덕적 계명처럼 보어도 모든 말씀의 주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산상수훈의 머리말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라고 시작하는 까닭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까지 포함해 생각할 줄 알라는 단순한 뜻이라면, 구태여 마음속으로 잠시 미워한 것 때문에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고까지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마음속의 저주도 천국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나와도 그 상태로는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와 화해부터 먼저 하라고 한 것이다.

흔히들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만 사랑한다고 비난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실제로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반은 맞다. 또 예수를 믿는 내용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택되는 차원과 비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은 틀렸다.

기독교 신앙에선 도덕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식의 비난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자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안하고는 인간세상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 이전에 천국의 문제다. 예수 믿으려면 혹은 믿었다면 반드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법은 없다. 그 반대로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하거나 믿는 자로서 자격이 없다고도 하지 않는다. 나아가 예수 믿었으니 죄를 지어도 되고 형제를 미워해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살인한 죄나 다름없다는 윤리적인 잣대에 따라 자기 행동을 절제하려고 노력한다. 예수 믿는 신자는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통치와 인도의 차원에서 판단한다. 하나님이 신자를 당신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고 또 그렇게 인도하는 중이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로 도덕적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도덕적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기 위한 원리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해석한 바탕 위에서만 내 삶에 적용할 구체적 방안이 따라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공연히 심통이 나서 자기 동생을 때려 울리고 싸움이 났다고 하자. 엄마가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침착한 목소리로 “애들아” 하고 불렀다. 그 목소리를 듣고 철수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동생은 ‘아! 울면 안 되는데 울음을 그쳐야지.’라고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엄마의 “애들아”를 철수와 동생이 각각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자기 형편에 비추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 원리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한다.

철수나 동생 둘 다 똑같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아,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을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아야지.’이다. 철수는 철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후에 철수는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엄마의 뜻인데 미워하고 때렸으니 엄마의 뜻을 거역했구나.’를 반성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때린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동생도 동생대로 ‘아, 울어서는 안되는구나.’보다 ‘엄마는 동생이 형에게 양보하고 승복하길 원하는구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형제간의 우애보다 한 엄마를 두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 엄마의 양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 엄마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살인에 대해 더 고차원적으로 파헤친 정도가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차원에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은 “지옥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자기의 인격과 삶에 선하게 적용되어지도록 윤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비적·문자적·종교적, 심지어 밀의종교(Cult)적 해석으로 흐르게 된다. 또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 전부가 윤리적이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윤리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성경이 가장 차원 높은 윤리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주관점을 두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다.

성경의 윤리는 인간 쪽에서 더 깊고 고급한 차원으로 깨달아야 하는 윤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그 시민인

신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 베풀어 놓은 윤리다. 신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예를 들어 신자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 8).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맛본 자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9, 10)라고 했다. 한 마디로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웃을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할 수 없다. 혹시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산상수훈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윤리적 계명의 근본적인 요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것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이 원리를 놓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구태여 어렵게 환기식 독법이나 윤리적 해석학이 필요 없다. 십자가 사랑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고는 성경을 환기적독법으로



읽을 수 없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게끔 적용할 수 있다 해도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죄 안에 찌든 인간이 자기 처지에 따라 해석을 하면 그 해석도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당신의 사역으로 완수하려고 온 것이지 새로운 성경해석 방법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다. 

###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는가?— 두 가지 문자주의

어린 철수는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간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초등학교 2~3학년쯤 가면 산타가 문자적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철수로서는 놀라운 발견일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까무러치거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일은 없다. 여전히 그 다음 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다시 캐럴 송도 열심히 부른다. 물론 그 즐거움이나 뜻은 옛날하고 사뭇 다르다. 지금까지는 산타가 어떤 선물을 갖다 주려는지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나도 선물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 산타의 의미가 더 깊고 절실해진다.

그런데 철이 들어서 산타가 분명히 오지 않는 것을 알고도 “엄마 아빠가 산타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안 온다면 우리 부모가 거짓말쟁이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지. 산타는 정말 오는 거야. 그리고 남들에게 산타가 온다고 전해야 돼.”라고 처음 믿음을 고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철수가 바보이거나, 부모에게 더 좋은 선물을 받고 싶거나,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부모 입장을 생각해 남들에게 그런 척하는 것이다.

산타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산타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고 믿지도 않는 데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따지지 못한다. 쇼핑 몰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어주는 사람한테 왜 순진한 어린이를 속여서 돈을 버느냐고 야단치는 바보도 없다.

혹자는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믿는 수준이 꼭 어린 철수가 산타를 믿는 수준과 같다고 한다. 성경과 산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상호 비교의 대상이 안 되며 비문자적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이 둘은 확연히 다르다.

철수가 산타 이야기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철이 들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니까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지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은 구태여 비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 오직 사실일 때에 한해 비문자적인 해석이 의미를 갖는다.

산타에 관해 비문자적 해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산타가 존재하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신비한 능력으로 집집마다 선물을 두고 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실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치자. 북극에서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온다든지, 날아 다니는 담요를 타고 온다든지, 요술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든지, 눈에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라든지, 온갖 설이 분분할 수 있다. 은유·직유·상징·강조·반복·과장 등 온갖 다양한 문학적 기법이 동원되어 저작된 산타의 전기·사상 등이 전해질 것이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기준은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이다. 예컨대 산타가 우편배달부 모습으로 자동차를 몰고 집집마다 현관에 선물을 두고



간다는 식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되었다 쳐도 크리스마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 온다고 말하면 틀린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구분을 짓기 전에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때에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분명한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마느냐를 정하기 이전에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성경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해석의 방법론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어느 것이 맞는지 따질 필요조차 없다.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경관에 따라 비문자적 해석의 적용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 성경에 설화와 논픽션이 많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먼저 어느 것이 사실인지 구분하기 위해 비문자적 해석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는 보수주의자는 비문자적 해석을 동원하여 수사적 표현 이면에 있는 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따져 온 논리대로라면 전자가 더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두 입장의 차이를 한 예를 들어 살펴보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마 4:8)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 광야에 천하만국이 보일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 없기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 그래서, 예수의 시험 사건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이런 해석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그런 사건이 없으니 그 기록이 주는 의미조차 부인해버리는 극단적 입장이다. 기록 자체가

영터리니까 믿을 필요도 없다. 그 속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금 진전된 입장이다.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므로 예수가 시험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 환기식 독법으로 읽으면 된다고 한다. 산타가 오건 안 오건 또 안 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슨 문제인가? 연말이면 그 동안 내가 착한 일을 했나 안했나를 반성해보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산타의 뜻에 즐겁게 동참하면 된다는 식이다. 인간의 깊은 깨달음과 적용만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양측 다 예수의 시험이 없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은 반드시 비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실 자신들은 문자적 해석의 틀에 얽매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을 문자적 해석만 한 후에 그것에 근거해 성경의 객관타당성까지 부인해버린다. 문자적인 해석만 해보고 안 믿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마치 비문자적으로 해석한 양 착각한다. 아직 비문자적 해석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본 상태이다. 그들은 문자적 해석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조차 없다.

이들은 실은 문자적 해석만 한 것이다. 일단 성경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 놓았다. 그 전제를 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이 혐오하고 수준 낮게 보는 문자적 접근만으로 판단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모순을 범했다. 그러고도 자기들은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다. 성경 가운데 무엇이 믿을 만하고 무엇이 믿을 수 없는가를 문자적 기준만으로 선정한다. 성경을 다시 편집하여 자기들의 자의(恣意)로 조작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성경은 믿을 수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심사를 받고 그것도 문자적 해석 방법에만 의존하여 그 진위 여부를 인간의 판단에 맡기게끔 해놓았겠는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단지 성경이라는 책을 분석해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고 해야 한다.

이에 반해 보수측 입장은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천하만국이 보일 만큼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들 천하만국이 다 보이지 않는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다. 사탄에게 시험 받고 대화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영적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다. 문자적으로 현실의 물질세계 안에서 그 일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선 예수와 사탄 중에 사탄은 몰라도 예수만큼은 누군가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반드시 수직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신약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미 진위 여부가 따져져야 옳으나 아무도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도 벌써 이 시험은 영계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았고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았다. 새삼스레 이런 기록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지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치했으면 했지 덜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치 꿈을 꾸는 듯이, 혹은 환상 중에, 혹은 육안으로 분명히 보았다. 예수님이 본 나라의 숫자가 몇 나라였는지는 모른다. ‘천하 만국’이라고 표현된 것을 두고 당시의 증근동에 기껏 열나라 정도인데 만국이라고



했으니 못 믿겠다고 하는 바보도 없지 않는가?

그럼 당장 ‘보수 측에선 어떻게 이 사건이 사실인 줄 아느냐?’ 하고 따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문자적인 입장이다. 이 시험 이야기의 출처는 예수님 당신이다. 자기가 시험당한 것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 해주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해 내어 기록한 것이다. 마태·마가·누가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느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나아가 예수가 없는 이야기를 허위로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귀결된다. 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예수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면 거짓말쟁이 예수를 믿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많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이 이야기도 순전히 교육 목적으로 예수가 심오한 의미를 담아 지어낸 비유일 수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그 의미만 받아들여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적용만 하면 되지 꼭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시험의 사실성 여부는 성경의 가치성에서, 예수의 예수님다운 면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너무나 평범한 종교적 가르침을 지어냈다는 기록에 불과해져 버린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누군들 사탄을 경배하라고 가르치겠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사탄의 이 시험을 겪었다면 그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모든 인간들이 원죄의 멍에에 묶였다.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인간을 그 멍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선 첫째 인간이 겪은 동일한 시험을 이겨내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사탄에게 내어 준 인간의 영혼을 되찾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광야의 이 시험은 단순히 세상의 유혹과 영화에 넘어가지 말라는 도덕적 계명과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이 시험을 겪었어야 했다.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사탄이 시험을 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시험을 받으러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첫째 시험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와가 넘어진 바로 먹음직한 유혹을 물리친 것이다. 둘째 시험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낸 것이다. 셋째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고도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은 보람직한 것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었다. 요한 사도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 2:15, 16)고 죄의 성격을 규정했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침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원죄의 멍에를 사탄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고 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지 않았고 단지 제자를 가르치려 비유로 한 이야기라면 예수는 한 철학 선생밖에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시험을 받아 이겨냈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신자가 성경이 사실임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산타가 오고 가는 방법은 모르지만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현관 앞 혹은 굴뚝 앞에

누군가 와서 놓고 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성경을 두고 문자적 분석이나 고고학적 검증이나 과학적 실험을 한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자기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에게 새 생명이 임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다. 성령의 미세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고 그 뜻대로 살면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자유와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자주의에는 분명히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진보측은 성경의 진위 여부를 문자적 해석만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수측은 성경의 진위 여부는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타가 없다는 사실도 문자적 해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철이 들어 산타를 한번 만나려고 꼬박 밤샘을 했더니 아빠가 살짝 선물을 갖다 놓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알게 된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문자주의를 고집한 적이 없다. 도리어 자유주의자들이 문자적 해석을 고집한다. 문자적 해석을 해보고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더 큰 영적 깨우침이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일대일로 직접 만나본 자라야 복음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진리로만 자유로워진다. 그때 비로소 문자주의를 탈피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 3. 잘못된 신관은 무신론만 못하다




신이란 절대적으로 절대자여야 한다. 절대자가 아니면 이미 신이 아니다. 전통적인 신관은 항상 절대자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찾아낸 상대적인 신관을 가지고 이 절대적 신관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외쳐본들 절대적인 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니체이지 신이 아니다. 표현이 센세이셔널하든 아니든 무엇이 문제인가? 실제로 인간이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절대적인 신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작 따져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신이 없다면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잘못된 신관이든 무신론이든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신이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무신론이다. 그 다음이 잘못된 신관이다.

잘못된 신관은 무신론만 못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진 신관이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된다. 신관에 있어서 우열은 없다. 절대적 신인가 아닌가, 절대적 신관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신관은 아무리 그 내용이 심오하고 고상해도 그 전부가 동일하다. 인간의 관점에서라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절대적 신이 우리를 볼 때는 말이다. 

###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노라”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시 137: 1~4).

기원전 586년 바빌론 포로로 끌려 간 유대인들이 바빌론 여러 강변에 앉아 고향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바빌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흘러간 노래를 불러 보라고 청하지만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었다. 왜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까? 지금까지 ‘승리의 신(triumphalist God)’으로 철석같이 믿고 모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들과의 파워 게임에 저 포로로 잡혀오는 바람에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신관이 바뀌었기에 부르지 못했을까? 4절에서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라고 탄식한 원인은 따로 있다.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졌으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가 바벨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싫거나 여호와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거룩하고 신성한 여호와의 노래를 감히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은 비유로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 것은 내 오른손이 자기 재주(특별한 기술보다는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도 습관적인 일)를 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오른손이 손가락을 드는 법은 평생토록 어떤 환경에 처해도 일부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다. 7절과 8절에서도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꾀파하라 꾀파하라 그 기초까지 꾀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고 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도 여호와가 패망의 신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은 더 굳어졌다.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출 3: 14)을 인간의 입으로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별칭을 따로 정해 대신 불렀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옷을 가다듬고 붓을 다시 씻어 썼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이방인의 요구에 어찌 이런 유대인들이 응할 수 있었겠는가? 이 기록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족신관의 변화 때문에 그 노래를 못 불렀다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각과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성경을 반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계시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하나의 초점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 초점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무자비한 신, 혹은 이방신에게조차 패배하는 신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새 노래로 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에 실패했다. 그들은 출애굽기·예레미야·이사야서 등 모든 성경을 시온주의로 해석했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으나 유대 민족만을 위한 신으로 해석했다.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 2,6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부족신관(tribal God)’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중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아랍과 죽기 살기로 복수극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로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가나안을 진멸하는 하나님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하나님이나, 수난 받고 조롱당하는 하나님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세계관·신관·가치관·성경관·예수관이 바뀌어서 옛날의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으로 스스로 해석하여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다. 새 노래와 옛 노래의 차이는 시대 연도 수나, 가치관의 심오함과 고급함이나, 본인의 깨달음과 무지나, 전통적 해석의 유지 혹은 포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경과 하나님을 해석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아무리 전세계에 새롭게 유행하고 지금 교계의 주된 흐름이 된 신학으로 작사·작곡되었더라도 십자가를 배제하고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은 목소리 크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쏟을 뿐이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지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찾을 필요도 전혀 없다. 새로운 신학자가 새 노래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 자신이 명상을 하며 성경을 보다 새 깨우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새 노래를 지어 주셨다. 예수님이 지어 준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그 노래가 오래되어도 바로 그것이 새 노래고 그렇지 않으면 헌 노래다. 성경에서 새 노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배필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시 40:3~7).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가리켜 기록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인가? 다윗은 이 새 노래를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당시에 성경을 새롭게 해석했던 어떤 선각자에게 들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또한 새 노래를 지어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가? 다윗은 새 노래를 자기가 짓지도 않았고 선각자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이라고 했다. 성령이 그에게 들려주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사와 곡조가 떠오르며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진정으로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새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 하나님은 남자인가?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 그야말로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예수 바로 믿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신관과 관련해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논쟁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녀평등을 이야기했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가르쳐 왔고 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측을 이단시해 왔다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부속물쯤으로 여겨졌던 때는 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니면 반드시 남성으로 가르쳐지든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여자의 신분이 남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의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신을 남성이라고 명시적인 교리로 주장한 적은 없지만 신이 여성이라고 할 때는 이단시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남성 우월 사상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신의 성별 여부와 무관한



문제다. 신은 분명히 남성이 맞는데 여성으로 주장하니 이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의 성을 따질 만큼 신을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신은 성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신이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신의 품성을 이해할 때에 남성적인 측면도 있고 여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이 성(性)의 한 쪽을 소유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하나님이라 어쩔 수 없이 남녀 양성을 구유(具有)하고 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신은 성을 초월한 존재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본성상 신이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중 한 쪽을 택할 수 없고 양성을 구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한히 큰 것과 무한히 작은 것 즉,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양극에서 조화롭게 만난다는 것은 절대가 될 수 없다. 절대란 어떤 질·양의 극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양의 완전 가치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하에서도 그 완전함이 털끝만큼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절대적의 개념이다. 최대와 최소의 극한치가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수학이나 상대성 원리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의 개념에서는 배제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질적·양적으로 무한히 클 수도 적을 수도 있다면 전지전능이란 속성이 생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의 수치가 양(+)의 극한치와 음(-)의 극한치를 동시에 포함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완전히 동양의 이원론적 음양 사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동시에 무한한 천재이면서 무한한 바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로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완전하기 위해선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질적·

양적 절대치라는 것은 어떤 일정 수치로 표현되는 극한치가 아니다. 무한대적 수치 자체도 초월하는 완전치(完全値)이다. 수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범위 내의 극한치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전지 전능하신 것이지 전지전능해서 완전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구태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규정한다 해도 정(正) 쪽의 극한치이지 부(負) 쪽의 극한치도 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모순되어 보이는 두 견해가 서로 용납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이 아니라 이미 타협이다. 그래서 ‘도도주의’가 되면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주의가 용납되면 벌써 그것만으로도 신이 아니다. 신은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과는 무관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절대자이다.

따라서 신에게는 양자택일의 개념이나 이항대립이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양극의 조화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직 완전한 절대자일 뿐이다.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식의 ‘도도주의’야말로 동양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상대주의이다.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라는 말이 일견 맞는 말인 것같이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성도 되었다가 다른 경우에는 여성도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절대자가 되지 못한다.

절대적인 개념을 단지 한 가지로 제한된 극단적이고도 배타적 개념으로 해석하니까 마치 상대적인 것이 더 맞고 옳은 것처럼 보인다. 신에 한해서는 절대가 배타적인 한 극단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절대적 개념이다. 양극을 다 포함하는 ‘도도주의’가 되면 완전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최하(最下)의 부(負)의 개념과 최상(最上)의 정(正)의 개념이 동시에 성립되는 완전이란



없다. ‘도도주의’는 오직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인간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상대적인 ‘도도주의’를 신에도 인정하면, 그 신의 개념이 어디까지 가 버리는가 하면 이 세상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신이 되어 버린다. 최고로 흉포하고 더러운 최악의 현장에도, 극심한 대립과 전쟁의 와중에도, 가장 추잡한 성적 문란의 관계에도 소극적으로는 그 배경에 신이 존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그 현상을 산출해낸 자가 신이 되어 버린다. 완전과 거리가 먼 것이다. 신이란 완전한 절대자이지 단순하게 무조건 어느 쪽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는 아니다.

절대적 존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진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라도 영향받지 않는다. 지구가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다든지, 지구 쪽에서 보면 태양이 도니까 지구는 멈춰 있고 태양이 돈다고 우길 수 없다. 어디까지나 수사학적 표현, 혹은 보는 사람의 관점의 문제이지 엄연한 객관적 진실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남성적 측면이 있다든지, 여성적 품성도 발견된다든지 해서 그분의 속성을 좀 더 잘 이해해보자고 하는 연구 내지 접근 방법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연구 내지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절대자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모든 속성에서 완전하신 오직 한 분)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하늘에 있는 무한히 능력이 크신 분)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남성이 되든지 여성이 되면 이미 세상에 하나가 있는 분이 아니게 된다. 남녀 성을 초월하는 분만이 오직 하나일 수 있고 절대이며 영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 모세

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어 본 적이 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해주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해 준 적이 가끔 있지만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한 속성만을 강조해 표현한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들려 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다. 유대인들이 감히 인간의 입으로 부를 수 없었던 바로 그 이름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라고 되어 있어 문장 구조상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마치 “스스로 있는 자”처럼 보인다. 원문으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다. 히브리어로는 이 문장의 구조는 특이하다. 영어 문법적으로 따지면 주어와 Be 동사뿐이다. 영어 문장은 잘 아는 대로 5가지 형식이 있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S주어+V동사+C보어] 이다. 중학교 1학년 들 다어가 제일 먼저 배우는 ‘I am a boy.’가 그것이다. 주어를 보어가 수식하는 형태로 주어와 보어는 동격이 된다. 주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이든 보어의 위치에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student, Korean, Chulsoo(이름), tall, young..., 무엇이든 좋다. 만약 ‘Chulsoo is an American girl.’라고 하면 주어 ‘철수’와 이를 설명하는 보어의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틀린 것이다.

영어로 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What is your name?’이라고 물었다. 그 대답은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My name is Jehova’ (혹은 Ellohim, Immanuel, God 등)로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I am’으로 대답한 꼴이다. 우리말로 치면 말 그대로 ‘내다’, 혹은 ‘내라니까’와 같은 어감이다. 이름을 물었는데도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의미는 우선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름이 있게 되면 그 이름이 가지는 이미지·의미·상징성·대표성·뉘앙스 등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제한받을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포괄적인 의미이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처럼 제한적인 의미이든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특성을 어떠한 형태로도 제한받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미리 막으신 것이다.

구약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모두 별칭 같은 것이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단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속성 중의 하나 혹은 여럿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주었거나 인간의 영적 체험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주 다재다능하면서 개성이 강하고 유머와 재치가 넘치며 컴퓨터도 도사이고 여자에게도 인기 만점인 사람이 있다. 치자. 본명은 ‘김철수’라고 별명은 ‘만물박사·괴짜·개그맨·천재·IT도사·카사노바’ 등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 별명은 김철수라는 사람의 특성만 나타낸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계속 친했던 친구라면 김철수라는 본명만 들어도 그 여러 이미지는 자동으로 떠오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명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이름뿐이다. 그 이름만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여러 별칭을 성경의 여러 상황 속에 계시하셨다. 신자가 성경을 잘 알고 실제 삶에서 각 별칭의 품성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품성들이 자동적으로 전부 떠오르게 된다. 이런 뜻에서라도 문서설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달라 성경의 사실성을 못 믿겠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둘째, 인간의 어떠한 극상치의 이름답고 고귀한 표현일지라도 하나님

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I am a boy.’에서 ‘I’와 ‘boy’는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I am’ 다음에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사물·사건·형상·상징 등 그 어떤 것도 보어로 올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되거나 비록 상징적인 의미로도 폄하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 세상과는 초월된 존재이지 이 세상 안의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며, 물질이 아니며, 가시적인 것이 아니며, 한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지 ‘I am(나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 외는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참으로 독특하면서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된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현존하는 언어 중에선 가장 좋은 이름인 것 같다. 말 그대로 하나님-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 바로 ‘I am’과 본질적인 의미에 가장 근접한 이름이다. ‘하느님’만 되어도 벌써 하늘에만 있는 영적 존재 중 좀 고귀한 분으로 의미가 제한된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영어로는 ‘God, Lord’이지만 이는 ‘신들·성주·주군·주인’들과 그 의미가 겹친다. 그래서 신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로 적지만 이 또한 자칫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본말도 그렇다. 발음상 가미사마(神様)로 ‘신님’ 정도의 의미인데 벌써 가미는 종이·머리카락 등 여러 뜻과 중복이 된다. 우리 말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낱말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것으로도 그 뉘앙스가 오버랩되지 않는다. ‘하나님’이란 이름만으로도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볼 줄 알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시비를 종결지



을 수 있는 이름이다. 하나님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밝히신 출애굽기 본문에서 ‘나’라는 주어를 사용했기에 성의 구분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성적으로 구분되어 한쪽 성으로 제한받으시는 것조차 막으셨다. 남성 신이냐 여성 신이냐를 따지는 인간의 부질없는 논쟁 자체를 그 근원부터 차단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남과 여,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는 성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당신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성이 구분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계신 후에 성이 나누어졌다. 양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이 양성을 구유한 것이 아니라 성과 관계없이 성을 초월한 존재다. 성 자체를 만드신 분이므로 성과는 관계없다.


자동차의 왕 포드가 승용차와 화물차 두 종류를 다 만들었지만, 승용차 제조업자 혹은 화물차 제조업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차 제조업자일 뿐이다. 또 승용차와 화물차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했는가식의 질문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둘 다 사랑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물며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 성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혹은 어느 성에 편향적인가 따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어원과 성과 그 사용빈도수 등을 분석해서 하나님의 성을 따져 보자는 자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또 하나의 예일 따름이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성적인 측면이 많은 속성과 남성적인 측면이 많은 속성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한도 내에서 이해되어야만 하지 그 자체가 성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이해하



기 위해 공의는 부성애적인 징계와, 사랑은 모성애적 사랑에 비교해보면 알기 쉽다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남성적인 속성이 공의이고, 여성적인 속성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하나님의 100% 완전한 하나님다우심은 공의나 사랑이나 각 속성에 아무 차등 없이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드러난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남성적 면을 더 기대한다든지, 여성적 면에 더 의지한다든지, 또는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일 뿐이다.

지금껏 서양의 기독교적 문화와 사회 통념상 또는 기독교 체계가 교리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하나님을 남성 편중적으로 이해되게끔 한 실책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일반 대중에게 좀더 쉽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 가부장 우선적인 사회 통념에 맞추어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 당신의 성이 남성이라고 전한 것은 아니다. 근래 와서 하나님을 여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까닭도 따지고 보면 이제는 여성이 갖는 장점·특징·역할·특유의 감성 등을 동원해 하나님을 좀더 폭넓게 이해하고 더 쉽게 접근하지는 노력의 일환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성 일방적 신관은 잘못되었으니 이제 여성적 신관이 더 낫다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지금껏 남성적으로 오도했다고 지적했던 동일한 잘못을 역으로 저지르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남성으로 볼 것이냐 여성으로 볼 것이냐는 질문의 답은 어느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남성적인 요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여 생긴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을 찾게 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 주든지, 둘 중 하나를 자기에 맞게 해석하든지, 여성적인 신관을 강조하든지, 그 어느 것도 필요 하지 않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노력만 필요하다.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을 연구해 강조해야 한다면, 자칫 또 다른 불균형을 불러온다. 여성적인 면의 장점만 아니라 단점도 함께 강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며 한없이 부드럽고 포근한 하나님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행운의 여신, 승리의 여신을 들 수 있다. 왜 행운과 승리의 남신은 없고 여신만 있었는가? 행운과 승리를 잡거나 놓치는 것이 도저히 인간의 예측을 불허하고 일정한 원칙이 없더라는 뜻이다. 인생살이의 행운과 승리가 여자들처럼 변덕이 심해 신의 성도 자연스레 여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풍요의 신도 전부 여성이었다. 대지를 다스려 풍년과 흉년을 조절하는 것이 아기를 생산하는 여성에 비유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지만, 이 또한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흉년과 풍년이 오더라는 의미다. 행운과 승리와 풍요의 여신이라고 단순하게 그것들만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당시나 지금이나 행운과 승리와 풍요를 다스리는 신이라면 우리 삶의 전부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 중의 신이고 절대적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다. 고대에 하나님과 방불한 신들이 여성으로 인식된 가장 큰 이유는 신경질적인 변덕스러움이었지 포근한 사랑이 아니었다.

물론 인간이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또 절실한 것은 사랑·자비·부드러움·포근히 감싸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특성이 아버지보다 어머니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표면

적인 모습을 본 것뿐이다. 어려서 철모를 때에 나쁜 짓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항상 용서해주시는 모습이고 아버지는 항상 야단만 치는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어머니의 모습에 더 가깝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다.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반기며 걱정해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다. 살짝 숨어 자기 방에 들어가 아무 일이 없는 척하고 자고 일어나도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함께 걱정해주는 이도 어머니다. 그런데 간밤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가 감쪽같이 모르고 무사하게 넘어갔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떠했는가? 처음 한두 번은 신나고 스릴마저 느끼며 밤늦게 다니는 재미를 만끽한다. 그런 일이 서너 번 계속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거나 스릴이 넘쳤는가?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하게 맞아주는 엄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였는가? ‘내가 밤늦게 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야단을 치지 않지? 지금쯤은 야단맞아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는가? 꼭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거나, 책임추궁이 없으면 자신도 통제 못하게 될까 불안해서만은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으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사랑의 회초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

사랑의 용서란 무조건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가 제대로 된다. 남성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공의가 우선이고 사랑이 뒤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정의가 올바른 정의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밤늦게 와도 기다리지 않고 누워 자고 있다가 나중에 벌만 주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실에서



자식 양육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지 사랑과 정의까지 분담한 것이 아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별만 주는 아버지로 느끼면 그것은 벌써 바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그렇게만 인식하면 끝까지 별만 피하려 하지 왜 별을 안 주는가 궁금해 하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 사랑에 바탕을 둔 아버지의 별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별이 없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아버지에게 정의의 응징의 면이, 어머니에게 사랑의 용서의 면이 더 느껴질지라도 엄마에게도 응징은 있으며 어떤 면에서 더 심할 수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이 엄마를 더 무서워하는가, 아빠를 더 무서워하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자식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근원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단기적·부분적일 수 있다.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자식에게 실천하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랑의 크기나 열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닮은 것이 부모님이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단지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 중에서 기독교가 정의의 하나님을 택했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대표하자면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담이 남자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부모를 공히 대변 상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다. 하나

님을 어머니로만 인식하면 사랑은 강조되겠지만 자칫 자식이 어떤 길로 가도 방임하는 사랑도 될 수 있다. 형벌이 없는 사랑, 진정한 용서가 아닌 사랑, 자식의 이빨이 썩는지도 모르고 사탕만 주는 어머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 절대 아니다. 죄의 형벌로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사랑은 이미 정의로운 사랑이 아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 형벌만으로는 사랑 없는 정의가 된다. 사랑과 공의가 단번에 함께 충족된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 어느 쪽이 어울리는가 따지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자다. 현실 삶에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만을 바라는 종교라면 그 신이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도 상관없겠지만 기독교에서만은 그럴 수 없다. 기독교는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를 따지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동시에 그 둘이 충족되었다는 것만 믿고 기억할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남녀 우월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남녀란 서로 돕는 배필로 상호 연합해야 하는 관계다. 여권 운동의 초점도 그 동안 여성의 역할과 책임이 무시되어 왔으므로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지 각기 홀로는 언제까지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때로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고 싶다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이해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학생이 입시공부에 지쳐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그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하겠다고 덤비면 이해해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난 2천 년간 아버지로 불렀으니 앞으로 2천 년간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가정해 보아라. 솔직히 아버지라고 불



러온 지난 2천 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믿을 것 같은가? 하나님이 어머니이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다. 제 멋대로 살아도 그만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엄마는 밤늦게 다니는 청소년 아들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 심층 저변에는 십자가의 예수 가 싫은 것이다. 이왕 용서해주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것이 맘에 안 드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구원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 심리다. 아니면 고대의 행운의 여신, 풍요의 여신, 가난한 여신 같은 음란한 이방신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 있는지 둘 중 하나다. 철없는 청소년 아들 같은 인간들이 사랑만 받으면 음란한 망나니 말고는 될 것이 없다. 

## 실제적 다신론

신이 하나인가 여럿인가 하는 문제는 종교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다. 기독교는 신이 하나밖에 없음을 믿는 유일신론(唯一神論, Monotheism)이다. 신의 호칭부터가 하나님이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신, 힌두교의 시바 신, 중국의 상제, 한국 전래의 하나님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간혹 불신자와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의 신과 그 종교를 부인해 버리면 당장 시비박에 생길 것이 없으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고 여러 신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신에 대한 관념과 인식이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신이 있다면 그 숫자는 하나라는 결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신이 둘 이상 있다면 그 신들 사이에 능력의 우열 문제가 생긴다. 그리

스 신화처럼 태양의 신·바람의 신·바다의 신으로 나뉘져 관할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벌써 그 신들은 절대자로서 지위를 갖지 못한다. 신은 절대자이고 절대자는 복수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알라 신이나 시바 신이 한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생각·표현·관념이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 비기독교인들은 먼 산을 두고 자기들의 지리적 위치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이듯이 모든 종교가 우주의 궁극적인 한 실재에 대해 그 이름과 표현만 달리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동일한 사물을 두고 표현한 방법과 이름만 다른 경우는 자동차를 두고 미국인은 automobile, 한국인은 자동차(自動車)라고 표현했을 때 해당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 정말로 그 이름만 다르다. ‘자체적으로 동력장치가 달려 있어 외부에서 누가 힘을 주어 밀지 않아도 굴러가는 탈 것’이라는 동일한 뜻으로 표현되었다. 누가 봐도 분명히 동일한 사물을 동일한 뜻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같은 자동차를 두고 미국인은 기차(Train), 일본인은 인력거(人力車), 한국인만 자동차(自動車)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한국인이 표현한 것만 진실이다. 나아가 미국인은 기차를 automobile, 한국인은 차를 자동차, 일본인은 자전거를 보고 ‘지도샤(자동차의 일본발음)’라고 해도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인만 옳다.

지금 종교인들이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한 분 동일한데 이름만 다르다고 하지만 바로 위의 두 가지 잘못에 해당한다. 각 종교들이 자동차를 두고 automobile·자동차·지도샤라고 하듯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모든 종교가 종교적인 가르침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고 반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과 자기 종교를 믿지 않으면 칼로 쳐서 죽여도 좋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또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에게 영원한 구원 내지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을 다른 동물로 환생시켜 지구로 돌려보내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아니어야 한다.

20~30년 전에 외항선을 타고 들어오면서 밤에 부산항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고층 빌딩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산 위에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의 불빛이었다. 인간이 자기 환경과 문화에 따라 하나님을 먼산 바라보듯 볼 때에 바로 이런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고층빌딩이 부산항의 실체가 아니듯 각 종교들이 표현하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실체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각 종교가 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명제는 어느 종교라도 언제든지 틀리게 표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도 함의(含意)하고 있다. 인간이 할 일은 다 맞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맞는 것 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산에 줄지어 있는 판잣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것을 고층빌딩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것도 맞다고 우길 수 없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이 맞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생각 속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실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의 신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까닭이 있다.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은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산항을 밤에만 들어 왔다 나가는 외항선원은 부산항은 고층빌딩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다. 판잣집이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한들 알아듣지 못한



다. 밤에만 다닌 그 선원이 부산항의 실체를 자기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는 낮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만약 부산항을 먼 바다에서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고층빌딩이 낮에는 판잣집으로 변했다가 또 밤에는 판잣집이 고층빌딩으로 변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부산항의 뒤에 판잣집이 늘어서있다고 말한다. 진리의 실체는 하나다. 절대 여럿이 될 수 없다.

문화와 민족이 다르면 동일한 사물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의미하는 내용이 다르면 그건 다른 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각 종교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같은 한 하나님을 이름만 다르게 표현했다고 말할 성격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다신론이며 기독교와 달리 절대자 하나님이 한 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일한 절대자가 이름만 다르다고 할 때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한국인은 하나님, 영어로 God the Lord, 일본인들은 가미사마(神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명론을 가르치는 ‘알라’와 예수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과 홍익인간을 가르치는 ‘단군’은 절대로 같은 신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다. 똑같은 신을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억지일 뿐이다.


인간은 어느 종교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스스로 완전한 확신과 결론을 내릴 때까지 탐구하고 갈등해야 한다. 종교 간에 관용하고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구도자들의 이런 선의의 탐구마저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종교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허울 좋은 방패막이이다.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나 관용을



떠나 누구든지 참 하나님을 알고 만나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럼 어느 종교의 하나님이 맞는지 누가 알 것인가?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명제에 모두 동의했다. 누구나 하나님의 절대성만은 인정한다는 뜻이다. 절대적 하나님이라면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당신이 참 하나님 됨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종교의 하나님이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이 땅에서 틀린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바꿔 말해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오직 요행수에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가 믿은 하나님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참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짜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방치한 결과가 된다. 절대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경배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앞에 말한 대로 참하나님이 인간에게 참된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거나, 우상이나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까지 포함해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참하나님이면 된다.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선 하나님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 실제적 무신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

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자를 위선자로 몰아 세우거나 기독교 자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신자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강변하거나, 기독교의 복음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므로 예수 믿고 난 후 짓는 죄의 책임까지 면제 시킬 뜻은 없다.

미국 회사를 다니는 필자의 후배 한 사람은 회사에 청바지차림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 아무 때나 출근한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 회사라 그런 것이 아니다. 컴퓨터 회사 프로그래머이기에 자기가 개발하는 프로젝트만 집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해내면 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직장인으로 기본도 못 갖춘 친구라고 매도하게 된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자로선 일반적인 도식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죄를 짓는 신자를 위선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위선이란 겉으로는 선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것, 말로는 착한 척 하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자란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자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었기에 이미 성인(聖人)이 되었다고 자부하거나, 이제부터 두 번 다시는 죄를 안 지어 성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다. 만약 예수 믿을 때에 그런 고백과 마음으로 믿었는데 죄를 지었다면 위선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신에 그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아직 죄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자는 한 번도 선을 가장한 적이 없다. 강도가 드러내놓고 총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한들 아무도 위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강도



가 강도짓을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


대신에 불신자는 어떠한가? 모든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기독교 진리에 절대 동감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선행과 공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과연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겉으로 스스로 부끄럼 없이 선다고 선언해 놓고 호박씨를 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위선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신자만큼 실제적인 유신론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없다. 신자는 성전 한구석에 서서 가슴을 찢으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다. “나야말로 죄인 중의 괴수이므로 단 한 시도 하나님의 공훈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찌 그것이 무신론인가?

반면에 불신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죄를 다 이기고 절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한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무신론이지 않는가?

일반 회사의 직원이 불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컴퓨터 회사 직원을 보고 나무라는 까닭은 그 회사도 자기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시에 정해져 있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가 인간 스스로 도덕적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해 주는 은총을 받고 누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 기독교의 내용을 모르는 타종교인들이나 일반인으로선 신자가 죄짓는 것을 볼 때 자기들처럼 선해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착

각해 위선이라고 탓하게 된다.

지금 누가 잘나고 못났나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누가 위선적인가 아닌가, 실제적 유신론인가 무신론인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면 위선이 아니고 구하지 않으면 위선이 된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위선이 아니며 대신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위선이다. 인간이라면 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위선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둘 중 전자 즉,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는 의미다. 

## 부족신관

성경의 하나님 가운데 가장 오해될 소지가 많은 것은 히브리 성경 초반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동방의 조그만 부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반대하는 모든 족속을 잔인하게 쳐부수는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원시적인 부족신(部族神)의 모습에 불과한 것 같다.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기사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어떤 책을 잘 이해하려면 독자는 반드시 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난 후에 그 의도가 나빴다든지 제대로 표현



되지 않았든지 비로소 그 책에 대한 올바른 비평을 할 수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독자는 가장 먼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정짓고 그 저자의 의도를 물어야 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든지 인간의 저작으로 이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결지어야 한다.

성경은 비록 직접적 저자로 40여 명의 인간이 동원되었지만 성령에 감동된 인간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책의 주제이기에 실질적 저자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 들면 한 마디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 못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였는지 살렸는지 의심이 가득 찬 채로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구실을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 있으면 우선 저자의 의도를 먼저 물어야 하는데도 단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평부터 하고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사 34:16)고 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묵상하여 헤아리거나 직통계시를 받아 알기는 힘들다. 대신에 성경을 자세히 앞뒤를 대조해가며 읽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다.

성경 초반부에 잔인한 부족 신 같은 하나님이 후반부에 가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세월이 경과하면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자라지 않는다. 만약 성경의 내

용이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다. 성경이 인간이 비평한다고 하나님의 글이었던 것이 인간의 글로 변하는 법은 없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묵상과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에 인간이 저자라면 각 책의 인간 저자가 인간의 비평과 연구의 대상이 된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고 그 뜻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반면에 단지 모세나 여호수아의 창작물이라면 그들의 하나님 인식에 대한 잘못을 골라내면 된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서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부분을 제거해 보자.

### 자기 백성밖에 모르는 하나님-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는 이야기는 성경의 문외한이라도 잘 알고 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를 향해 내밀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갈라진 땅을 걸어 나와 구원받는다. 반면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언뜻 단지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구하고 애굽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죽음을 당한 것 같다. 극도로 인종 차별하는 하나님이다. 그것도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 번씩이나 강박하게 만들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해놓고 엄청난 재앙을 애굽에만 내린 부족 신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사를 살피면, 하나님의 전인류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 풍성하게 드러난 기사도 드물다. 거기에 대해 논쟁을 하자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인종 차별과 민족 신 하나님에 관한 문제만 간단히 따져보기로 하자.

먼저 인종 차별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까닭은 구별(區別)과 차별(差別)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Distinction)한 것이지 차별(Discrimination)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학교는 다니지 않고 짱뿔짓을 하는 청년이 학교에 찾아가 왜 당신들은 당신 학교 학생들만 가르치고 같은 또래인 나는 그러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다.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임무라 해도 학교 밖의 젊은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자기 학교 학생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별한 것이지 차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차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다 같은 학생인데 단지 자기 부모가 부자이며 가끔 선생에게 돈 봉투를 건넨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아를 감싸고 심지어 반장까지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deal differently)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출 7: 22),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distinction)을 두리니”(출 7: 23),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distinction)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출 11: 7). 성경 어디에도 차별했다는 말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고 사랑하므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짱뿔이 도저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으니까 나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데도 무시했다면 학교의 잘못이다. 야간부라도 신설해 가르쳐야 마땅하다. 공부하는



것이 싫어 선량한 학생들을 매일 괴롭히며 돈을 뜯는 자를 학생과 다른 취급을 한다고 차별한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애굽의 기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편견이 개입된 일방적 판단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차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했고 애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 적이 꿈에도 없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임금 한 톨 주지 않고 학대했지만 하나님은 400년간이나 참아 주었다. 누워 자느라 자기 백성의 신음을 듣지도 못하고 외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폭한 살인자가 되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번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열 가지 재앙을 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재앙을 열 가지나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애굽 백성에게만?’이 아니다. 학교 앞 강패를 불러 이제 마음 바로잡고 공부해서 착한 청년이 되라고 열 번이나 타일렀다. 그것도 그가 가장 잘 알아들을 만한 방법으로 하셨다. 그가 칼 쓰기를 자랑하면 칼 쓰기 대결을 해서 세상에는 네가 칼 쓰기를 최고 잘하는 자가 절대 아니며 칼을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몽둥이로 도전해 오면 몽둥이로, 총이면 총으로, 폐거리로 패싸움을 걸어오면 혼자 상대해 정신 들게 했다. 그런데도 잠시 앞에선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덤벼드니까 그 강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를 죽여 서라도 그를 돌이켜 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성경에 대한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그 아홉 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이 믿었던 우상 신들과 대결한 것인 줄 금방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강패가 공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힘들을 하나씩 부숴나가는 작업을 했다. 단번에 경찰서에 넘겨 감옥에 보내버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다음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라는 표현 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서 일부러 골탕 먹인 것처럼 해석한다. 이야말로 극단적인 문자적 해석이다. 어디까지나 범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주관 하에 있었다는 뜻이다. 일부러 더 벌을 중하게 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더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완악한 자는 벌을 받을수록 더 완악해지는 것이지 수그러든다면 이미 그는 완악한 자가 아니다. 또 더 완악해지는 것이 완악한 자의 잘못이지 더 벌을 주는 자의 잘못이 아니다.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나타내는 반응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잡아먹으니까 “바로 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 의 말씀과 같더라”(출 7:13)고 했다. 성경은 분명히 바로가 강박해졌다고 했지 여호와가 강박케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가 미리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출7:4) 뱀 사건 이후의 열 재앙도 순서대로 따져보자.

1) 피 재앙: “애굽 술객도 자기 수법으로 그렇게 하니 바로 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 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출 7:22~24). 학생을 괴롭히던 강패가 경찰에게 그날 빼앗은 돈만 압수당한 정도니까 별 달리 신경이나 쓰겠는가?

2) 개구리 재앙: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 의 말씀과 같더라”(출

8:15). 경찰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단속하니 이전보다 수입은 좀 적어졌지만 숨은 쉴 수 있으니 제 버릇을 남 주겠는가?

3) 이 재앙: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케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출 8:19). 부하들이 두목에게 이번 단속은 예사롭지 않다고 걱정해도 두목 체면이 있지 이 정도에서 후퇴하면 되겠는가?

4) 파리 재앙: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무 멀리 가는 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파리를…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출 8:25, 28, 31, 32에서 발췌). 단속이 심상치 않아지자 학교 교장을 찾아온 두목이 “이제 이 짓을 그만두고 근처에서 구두 닦는 일이라도 할 테니 내가 잘 되도록 벌어주십시오.”라고 해놓고는 단속을 거두자 다시 제 버릇을 발동한 것이다.

5) 악질 재앙: “바로가 보내어 본 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출 9:7). 약속을 어긴 깡패들은 경찰이 더 강력하게 단속하자 단속을 피해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학생들을 더 악랄하게 괴롭혔다.

6) 독종 재앙: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출 9:11, 12). 드디어 부하 중 몇이 경찰에 잡혀갔지만 ‘좋다 이 학교 교장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사생결단 해보자’고 마음을 더 독하게 먹었더라.

성경은 여섯 번째 재앙부터 드디어 여호와가 바로를 강박케 했다고 한다. 무슨 뜻인가? 보통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에서 항복하고



여호와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 주든지 해야 함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로가 더 완악해지니까 사악한 영적인 힘에 붙들려 있으며 또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벌을 더 주려고 일부러 악을 올린 것이 아니다. 또 부하를 잡아간 것은 두목도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으니 두목더러 항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다. 두목이 회개해야 부하도 전부 다 손을 씻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7) 우박 재앙: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와 말씀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러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출 9:20, 27, 32, 34 발췌).

학교에서 정식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펴오자 일부 부하들이 동요해 숨었다. 학교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 무기한 휴교하더라도 단속만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다시 학교가 개학하고 흩어졌던 부하들도 돌아오자 또다시 이전의 악행을 슬슬 재개한 것이다. 나일 강변의 삼각주 평야 곡창지대는 애굽의 부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가서야 비로소 그 곡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큰일났다 싶은 바로가 잠시 회개하는 척했으나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나맥의 싹이 온전함을 보고 곧바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8) 메뚜기 재앙: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이까…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 갈 자는 누구누구뇨…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출 10:7, 8, 11, 17, 20에서 발췌).

경찰과 학교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수입이 바닥에 이르자 드디어 자기 부하들 중에도 서서히 반기를 드는 자들이 나타났다. 학교를 찾아 반경 5km 이내에서 철수하겠다고 제의했지만 완전히 손을 씻지 않는 한 어디서라도 단속은 계속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도리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더라.

9) 흑암 재앙: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출 10:24, 26, 27, 28에서 발췌). 이제 학교 앞뿐만 아니라 근처 식당·술집에도 경관이 24시간 순찰 근무를 해 수입이 완전 근절되었다. 또다시 교장을 찾아와 잘못을 짚아 단속을 풀었다. 그 동안 여러 번 교장을 찾아가 빈 것과 번번이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 완전히 땅에 떨어진 두목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교장을 찾아가 “깡패 깃은 그만두겠지만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장 당신이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때는 없는 목숨인 줄 아시오.”라고 이판사판이 되었더라.

자기 학교 앞에서 학생을 괴롭히는 깡패 두목을 교장은 바로 고발하지 않았다.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화해나 회개의 빛이 조금만




보여도 다시 단속을 풀고 또 풀어 준 것이 하나님이다. 인간 세상에 용서는 몇 번 정도 허용되는가? 겨우 삼세번 아니겠는가?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남쪽 오랑캐 두목 맹획을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풀어주었더니 전쟁 중인 적국 장수마저 감동하여 투항했다. 일방적으로 열 번이나 용서해 준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일흔 번 씩 일곱 번을 용서해주라는 말씀을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실천해 보인 것이 출애굽 사건이다.

마지막에는 바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모세를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직접 죽이지 않으시고 장자를 대신 죽였다. 왜 그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죄인이었다. 그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뿐임을 애굽 백성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가장이 회개해야 집안 식구 모두를 돌이킬 수 있기에 비록 장남 한 명을 죽이더라도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은 살려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안에서(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인방과 설주(가로·세로로)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留越-Passover, 뛰어넘겠다)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뛰어넘겠다는 것은 원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도 들어가야 하지만(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었기에 죽음을 면한 것이다. 학교에 들어와 공부하겠다는 소원만 있으면 우등생이든 열등생이든 깡패로부터 학교가 책임지고 보호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소원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해 주신다. 눈을 씻

고 성경을 살살이 훑어보아도 차별하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고 구별하시는 하나님만 있다.

만약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성공해 부패와 사치와 향락과 부도덕과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 로마제국을 무너뜨렸다면 세속의 역사가들은 틀림없이 인류 역사 최초의 진정한 개혁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무려 400년간 한 민족 전체가 다른 나라에 식민지 지배당한 정도가 아니라 노예 살이 한 것이 과연 인류 역사에 유례가 있는가? 그 노예들에게 칼과 창을 쥐어주어서 항거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양을 칠 때 쓰던 다 낡아빠진 지팡이 하나 든 80 넘은 노인을 혈혈단신으로 세계 최강의 제국 앞에 서게 했다. 열 번이나 양보하고 속고 또 속아 주면서 바른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차별이란 말인가? 차별의 ‘차’자도 모르는 셈이다. 

### 진인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이야기

모세의 지도 아래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지체가 있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sup>3)</sup>을 향해 진군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린이 심지어 육축의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했다. 가나안 땅에선 여자·노인·어린이·육축까지 씨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미처 준행 하지 못 하

---

3) 산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산업이라고는 양봉과 목축밖에 할 것이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의미이다. 애굽의 풍요와 비유가 되며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며, 바로 그런 뜻에서 신자에게는 도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3. 잘못된 신관은 무신론만 못하다



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그럼 정말 잔인한 하나님일까?

이런 기사야말로 저자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족신관 탓으로만 돌리면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각색한 꼴이 된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탓인지 잘 살펴야 한다. 우선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씨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는 것)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貫盈)치 아니함이니라”(창15:16)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열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이나 지체해야 하는 이유를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부족 중 가장 수효가 많고 강력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대표한다. 또 ‘관영’이라는 단어는 넘칠 만큼 찼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컵에 오직 물만 가득 차 공기조차 없다는 뜻이다. 가나안 땅에 오직 죄악뿐이라 눈을 닦고 보아도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다. 선이라곤 하나도 없기에 가만 두면 오직 악만 확대 재생산이 된다.

중세 시대에 페스트균이 어떤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을 전체를 불 태워 없애야 한다. 혹시라도 살아남은 육축이 아까워 잘 씻은 후에 키워보려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다시 흑사병에 걸려 몰살한다. 이럴 때 그 마을을 불태우는 것이 잔인한 것인가? 그 대로 두어서 새로 들어간 사람도 같이 흑사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시기를 페스트균이 퍼질 대로 퍼져 그 땅에 들어가 호흡하는 순간 그 땅의 늪이나 어린이는 물론 가축에게서조차 병균이 움을 뿐이라고 판단하신 것이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신 9:5).

최근 그 지역을 발굴해 가나안 전쟁 당시 사람들의 유골을 연구해 본 결과 어린이들마저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불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들을 섬기면서 신전에서의 난교가 성행했다. 또 그런 문란한 성 풍속이 일반화되어 온갖 질병이 창궐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항생제가 발명 안 된 당시로서는 페스트균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멸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거기다 문란한 성도덕은 관영된 죄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최초로 건설하면서 죄악을 그대로 둔 채 건설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러나 당신께서 창조한 인간과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단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태우실 만큼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다.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 주겠다고 했다. 니느웨의 12만 사악한 이교도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아마리 족속의 죄악이 최대 한계까지 가서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죄악이 흘러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창조된다. 옛사람을 그냥 두고, 새 사람이 태어나면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만 나타난다. 당신을 거역하는 백성은 400 년간이나 참아주면서 당신의 자녀들은 세상의 핍박 아래 그만큼 노예살이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겐 너무나 잔인한 폭군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겐 너무나 인자한 분이였다.

민수기 22~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를 지나야 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브돌의 신령한 제사장 발람을 초청했다.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라”(민 22:6)고 부탁했다. 처음에 발람은 이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을 했다. 발락이나 발람이나 당시 보편적인 부족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복을 빌면 내게 복이 오고, 내가 저주하면 대적에게 저주가 필연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부족신관이다. 복을 빌거나 저주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신은 내가 바친 열성과 치성의 정도에 따라 복과 저주의 양만 결정해 자동적으로 내린다. 혹시 복이나 저주가 기대치 이하면 치성과 열심을 더 동원하면 된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 12:3)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낼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부족신관과 어떻게 다른가? 아브라함이 남의 복을 빌거나 저주하는 주체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남을 축복해주고 또 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남을 저주해 준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여호와에게 우리 민족만 보호해주고 다른 민족은 벌주라고 요구할 권리조차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일신·창조주·사랑의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우고자 했다. 그 일을 이스라엘이 수행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험에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진군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울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다짐을 다시 확인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 6). 아직도 부족신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이 너희를 통해 참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나라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참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으므로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그 복을 나눠주는 창구로 불림을 받았다. 그 복을 체험해야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먼저 복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무수한 징계를 당했다는 것이 구약의 기록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족신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패배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 자기 부족신의 능력에 먹칠을 하겠는가?

요나의 경우를 보자. 요나는 악의 도성 니느웨를 저주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자꾸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다. 부족신 여호와라면 경건한 백성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를 저주하면 당연히 니느웨에게 유향불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벌을 받은 것은 오히려 요나였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요나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다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호소했는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덩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욥 4:10, 11).

구약의 부족신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꾼 것이 아니다. 구세주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려면 필연적으로 어떤 민족과 지역과 시대를 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뽑혔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특별히 사랑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계시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뽑혔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 7:7).

만약에 예수가 한국 땅에 태어났더라도 한국 민족은 중국에서 종살이 몇 백 년 하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 받고, 서해 바다 어딘가 갈라지며, 한반도에 살았던 죄악에 관영한 오랑캐 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다. 또 그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많이 입은 한국민족임에도 하나님을 배반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동일한 언약을 주셨을 것이며 요나 같은 자도 나타났을 것이다. 분명히 한국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겠지만 다른 민족 앞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서 있지 않으면 가차

없이 더 큰 화를 내렸을 것이다.

가나안 족을 진멸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으로 보호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신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주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전 인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다.

### 장애인을 차별하는 하나님- 제사장 제도

레위기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많이 나온다.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몸쓸 병에 걸린 자나 사생아까지 그러하다. 외국인도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철두철미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것 같아 중동의 한 민족의 미숙한 신관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레위기의 전체 주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문자적 해석만 고집한 결과다.

특수 부대에선 특유의 혹독한 규율이 있고 어겼을 때는 지독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침번 서면서 졸면 일반 부대에선 연병장 풀 뽑기 한 시간을 시키는 데 반해 특전사에선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10바퀴 돈다는 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특전사의 기합을 두고 좀 심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잘못되었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적진에 홀로 침투하여 자기 생명을 거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훈련과 정신무장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쩔 더 심한 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레위기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진에 홀로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공대로 훈련시키는 교본이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는 논산훈련소 교본이 아니다. 지난 4백 년간 단 한 번도 실제 전투는커녕 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을 훈련시키려면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했다. 그럼 그 교본의 첫째 항목은 “비상시나 전시에 적진후방에 단신으로 투입되어 적을 교란하고 아군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식의 특전사병의 임무와 목적이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예컨대 불침번이 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 세부 벌칙 규정만 보고 특전사 교본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자는 없다.

레위기 곳곳에 바로 이 특전사병의 임무와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11:45).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20:24, 26). 특전사병으로 불렸으니 그에 맞게 되라고 한다. 예의 장애자를 위한 규정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레 21:23)고 하였고 거의 모든 세부규정마다 그 끝은 항상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는 말로 결론짓는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더러 여호와의 군병답게 완전하게 구별되라고 했지 당신께서 장애자들을 차별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특전사병 훈련에 앓은뱅이나 장님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려는 뜻이다.

창세기 32장에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다. 이스라엘 12가문의 선조가 되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바람에 형의 미움을 사서 이방 땅으로 도


망갔다. 천신만고 고생 끝에 이룬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내일이면 강을 건너 맞대면할 형이 자기를 죽일 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다. 야곱의 기세에 눌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지만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기어이 복을 받아낸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창 32:30)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불구자 병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은 불구자를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로 삼으셨다.

환도뼈란 엉덩이의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좌골 뼈로서 사람의 힘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따라서 야곱은 더 이상 생식능력이 없어진 고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신체적으로는 장애인 겸 고자로 만들었고 영적으로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힘을 꺾으시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것이다. 장애인·병든 자·과부·사생아·고아·이방인들... 모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민족 전체를 이런 사람들과 같은 처지로 만드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런 자들만이 전심(全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은 당시 사람들로선 알 수 없던 미개한 위생상태에 대한 예방과 또 예배 같은 공중 집회에서 전염병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도 감안된 것이다. 당시 외국인의 경우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을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요즘 식으로 따지면 굶을 하는 무당을




교회의 공적 예배에 금한 것과 같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어느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대신에 하나님은 외국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19:33, 34). 무당이나 그를 추종하는 자를 공적 예배에서는 배제하더라도 실제의 삶에서는 절대 인종 차별하지 말고 같은 민족처럼 사랑해주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것도 구약의 하나님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은 그 신관이 변천되었고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천된 신관에 영향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변화가 없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들을 비록 소수일지라도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선지자의 모습으로 항상 남겨 두셨다. 그 남은 자들의 수가 세상 전체에 비해 너무 미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기 일을 이루시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이다. 

## 율법주의적 신관

성경은 스스로의 선행이나 공적에 의해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때에만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럼에도 간혹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절대 군주로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



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 이는 기독교 신자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예수가 근본적으로 부인되는 결과를 낳는다. 

## 왕으로서의 하나님

일반적으로 왕이라는 메타포(Metaphor-隱喩)는 그 상징적 의미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어감을 주거나 율법주의적인 신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때는 신자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 따른 것이지 그런 일반적 의미가 아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율법주의적·폭군적·남성적 절대 권력의 이미지는 전혀 떠올리지 않는다.

왕이라는 호칭이 주는 가장 근본 의미는 모든 주권을 가진 자라는 뜻이다. 우리를 지으시어 생존여건을 마련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시험 및 위협에서 건져 보호하시는 우리 삶과 죽음의 주인이다. 성경이 쓰일 당시로는 이런 하나님을 은유하기에는 왕 말고는 적합한 단어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왕이라는 직위가 주는 나쁜 이미지도 오버랩 된 것뿐이지 기독교 신학이 왕이라는 폭군적 이미지를 고의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성경을 기록한다 해도 폭군적 제왕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같은 이름을 하나님의 호칭에 붙일 수는 없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거나 교회에서 교리로 가르쳐서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완전히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고 확신했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스스럼없이 불리 는 호칭이다. 고대 절대 군주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전혀 없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강요하거나 폭압으로 다루신 적이 없음을 누가 뭐래도 잘 알고 있다. 은유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그 관계를 분석해 본 적도 사실 없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름 그대로 왕일뿐이다.

신자 가운데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의 심벌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고 또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준다고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시대에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라는 인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 초대 교회 신자들로서는 세속적인 폭군 왕이 절대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대신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라는 인사를 나누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이니셜을 하나씩 모으면 생선이라는 뜻의 헬라어 익투스가 된다. 생선 표식은 당시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암호였다.

십자가에 매달린 수난받는 종에게 폭군적 제왕의 이미지는 전혀 없었다. 신자는 바로 그 종을 왕으로 모셨다. 세속의 폭군 황제를 모셨던 로마 문화권에서도 기독교인들만 제왕적 하나님을 부인했었다. 그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소명을 받은 민족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타락과 배교의 역사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민족들과 같이 율법주의적 인간 왕을 세우기로 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었다. 그와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정 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입을지 깨우쳐 주었다.(삼상8:10-19) 당시 백성들의 잘못된 일깨운 것이 아니라 후세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은 왕’이라는 은유를

혹시라도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였다.

## 율법주의적 믿음과 삶

모든 종교에는 나름의 도덕률이 있고 그것을 잘 지키면 심판을 면하고 내세에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일반인이 율법을 이해하는 공통적인 견해다. 이런 권선징악적인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율법주의적 신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한다. 기독교의 율법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여정 중 시내 산에서 주셨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준 것이다. 그 율법을 지켜야 천당을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뜻이 아니다.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 4:10, 13, 14).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둘째 그 자녀에게도 그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며, 셋째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화를 당한다고 경고하셨다.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였지 사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가 화다. 율법은 심판을 내리는 잣대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우상숭배와 죄악에 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천하에 보이고 또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이 겁이 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일반 종교의 권선징악적 율법관은 문자적 율법주의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율법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들의 삶이 다른 민족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땅 거민들의 삶을 자기들의 모범으로 삼아버렸다. 그들에게는 이미 얻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현실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살 것인가만이 당면과제였다.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율법까지 받았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받았다면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

지 아니하리라”(미 3:11). 설사 죄를 지어도 자기들에게만은 심판이 없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후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Zionism)은 예수님 당대에까지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바리새인들이다. 이제 율법은 단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치부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율법은 사람들로 죄 문제로 괴로워하고 심판을 받을까 두렵게 하는 짐조차 되지 못하고 종교적·영적 우월의식을 증거해주는 역할밖에 못했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의 규정을 엄밀하게 따르며 산 자들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율법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여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자기들이 율법 규정을 가장 잘 준수하는 것처럼 행했던 것뿐이다. 하나님을 이는 백성이 이 땅에서 진정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길인 율법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었다. 율법을 받은 백성도 진정한 율법주의적 삶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형식적 율법주의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17~20)고 하셨다.


예수님이 폐하신 것은 제사 절차법이었다. 제사법의 배경에 있는 정결의 정신과 도덕법은 오히려 더 강화했으면 했지 폐하지 않았다. 신자들의 삶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 사는 정도보다 선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 율법대로 살아야 하며 그런 삶 자체가 축복이 되는 진정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죄가 중심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는 종교란 생명력이 없는 종교다. 죄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멍에를 메우자는 것이 아니다. 도덕률이 구원의 기준이 되면 그것은 멍에가 된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낮은 수준의 도덕률이라도 평생을 두고 완전하게 지켜낼 자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율법만을 강요하면 어떤 종교라도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의 용서가 없는 사랑은 헛것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용서 또한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가 임했다는 것을 믿을 때만 문자적 율법주의의 멍에가 벗어지고 진정한 율법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갖는 의미와 방법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죄의 형벌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부담을 가졌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율법대로 산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과 영원을 사모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영광의 빛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로서 진정한 기쁨을 갖고 선한 삶을 열망하게 된다.

문제는 아직도 내 속에 남아 있는 죄의 본성이 가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 내 의지적인 노력만으로 그 선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는 절대적 선이신 예수님뿐이다. 선을 사모할수록 내 속에 남아 있는 죄성에 대한 미움은 증대되게 마련이다. 예수에게 가까이 갈수록 죄의 본성이 얼마나 추하며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선을 이겨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라고 신자가 된 후에도 남은 죄성을 한탄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5)고 복음의 은혜와 권능에 감사했다. 바울은 율법의 멍에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성을 저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든 것이다. 신자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완전한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래야 진정한 신자다. 

### 조건부 신관- 이기적 신앙

신자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 선한 일에 비례해서 축복을 내리지는 않는다. 특별히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고 있거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관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구절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럴 때는 항상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적 해석의 오류에 빠진다.

한가지 예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



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라는 다윗의 고백을 들 수 있다. 분명히 “원수의 목전(目前-눈앞)”이라고 했다. 다윗의 앞에는 위험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대적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대적을 무찔러 망하게 만들고 그가 흥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에서 상은 축복과 보상을 뜻하는 ‘상(賞)’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테이블을 뜻하는 ‘상(床)’을 뜻한다. 상에 넘치도록 음식을 차려 주었으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상이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진정한 교제를 의미한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지 의심하고 불안했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보호해주심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다. 신자가 복을 불신자보다 더 받았다는 뜻은 어디에도 없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도 그러하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란 항상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 성령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은혜가 넘쳤다는 영적 의미다. 불신자는 현실적 형통을 잔의 밑바닥에 깔릴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신자는 넘치도록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제기하는 질문은 ‘왜 신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형통하는데 반해 신자는 오히려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였다. 시편에는 그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시 10: 1).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시 10: 4, 6).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시 13: 1).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



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시 22: 1, 2).

급기야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직접 토론을 벌인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왜 신자가 기도해도 구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이 성행하도록 가만두고 보시는가? 둘째 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이익을 취해도 잠잠하시는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인간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신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 뜻이 있어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는 정도일 것이다. 둘째는 또 “때가 되면 내가 저들을 벌을 주고 너희들을 상을 줄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는 위로여야 할 것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선지자의 질문 1: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이니이다”(합 1:2~4).

하나님의 대답 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중략...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합 1:5,



6, 10).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신자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어찌 된 사정 이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더 큰 악인이 설칠 것이며 그에게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으로 삼는 자”(합 1:11)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과 악인을 통제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기 힘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신자가 세상에서 형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에선 세상의 힘이 득세하기 때문에 세상 힘을 믿지 않는 신자가 항상 지게 마련이다. 불신자의 화는 세상에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신자의 복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다.

선지자의 질문 2: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궤홀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중략...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랴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합 1: 13, 2: 1).

하나님의 대답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러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 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 2~4).

무슨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한가? 세상 악이 의인을 삼키는 까닭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굽어지지 아니하고 실현될 때가 따로 있으니 믿음으로 살라고 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참아낸 신자를 형통케 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신자가 현실에서 살고 죽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의 때와 방법으로 당신의 공의를 실현할 뿐이다. 신자의 승리는 현실의 형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독재자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일방적 선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실현되는 일에 신자를 초대한 것이다. 신자는 그분의 의를 함께 이뤄나가는 자로 그분께 부름 받은 것이다.<sup>4)</sup>

이 논쟁을 마친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

4)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으로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이 선행과 회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줄 깨닫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로다”(합 3: 16~19).

신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비록 기근과 흉작으로 인하여 소출과 열매가 없더라도 무조건 기뻐해야겠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다. 열매와 소출이 없는 까닭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기에 뼈가 썩고 처소가 떨릴 정도로 선지자는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다. “자기 힘으로 자기 신(神)을 삼는 자”들인 갈대아 사람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자기 나라만 왕성케 한다. 반면에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완전히 다 뺏기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품안에 있는 것만으로 기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기적인 신관은 발견할 수 없다. 오늘날 신자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기도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다. 이 갈등을 씨름해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

필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무리 전도해도 씨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 질렀다”는 것이다. 실컷 기도해놓고 그대로 응답이 안 되고 결과가 정 반대 나쁜 모양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 또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대박 터지는 행운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고 했다. 더 분통터질 일은 불신자도 하지 않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꼴은 정말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자기 동네의 큰 교회에 주일예배를 보기 위해 몰려오는 차들이 대로상에 버젓이 불법 주차해 바쁜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면서도 사고도 고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것도 하나님 뜻인가라고 따지는 데는 답할 말이 없었다.

자기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신자와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려면 회교도들이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들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라의 뜻이라고 여기고 무조건 순종한다. 단적인 예로 벤츠 600이라도 운전하다 고장 나면 알라의 뜻으로 알고 그 자리에 버려 둔 채 걷거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간다.

대다수 신자가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여러 대체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국한시킨다. 예컨대 선교사라면 몽골로 갈까요 북한으로 갈까요, 기독 실업가라면 섬유와 전자 중에 어느 업종을 할까요,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전부로 여긴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어떤 일(what kind of work or act)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사람(what kind of person or being)이 되길 바란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에게 어느 길을 갈까요 혹은 무엇을 할까요(Which way should I go? or What should I do?)에 관해 먼저 물어선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목전에 항상 서 있다는 철저한 인식의 바탕에서 모든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은 신자더러 어떤 거창하고 구체적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있다면 하나님이 신



자가 할 일을 결정하고 인도하여 책임져 주신다. 신자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

선교사가 진정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생명까지 바치기로 헌신했다면 몽골로 가든 북한으로 가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선교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업가도 정직과 신용과 성실로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답게 바뀌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교회 분쟁은 주로 선한 일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예배당을 증축하자 아니다 선교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며 싸운다. 또 양쪽 다 기도해보니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긴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주겠는가? 직접적인 응답을 주는 법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고 또 그러려면 반드시 최선의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고집하니까 이런 분쟁이 생긴다. 예배당을 증축해 교인들을 더 잘 양육시키고 교인이 늘어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민족을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러나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심지어 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르고 있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교회의 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먼저 올바른 신자가 되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다.

신자가 물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더 풍성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더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과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하나님


그분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 외에 없다.

그럼에도 자꾸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묻는 것은 그분의 뜻을 묻는다는 핑계로 어느 길이 위험부담이 적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지 가르쳐 달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자칫 점쟁이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다. 이미 자기 전부를 바칠 각오로 선교사로 헌신한 자가 하나님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곳을 가르쳐 달라는 순수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선교 열매를 많이 맺어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면 말이다. 선교지는 자기의 적성, 재능, 은사, 심지어 소원을 종합하여 결정하면 된다.

가시적인 일의 형태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니까 자기 마음의 선한 뜻과 부합되고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만 서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앞에 든 예에서 주차 문제로 골치 아프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 모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주실 것이며, 순경도 교회 일이라 단속하지 않는데 불법 주차도 괜찮아 식으로 밀어붙이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교회가 전도와 교회부흥이라는 일만 앞세우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은 간과해 버리기 쉽다. 새로 오는 사람에게도 저희 교회에 안 나오셔도 좋으니 노상 불법 주차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역시 다르다고 생각해 전도가 더 잘 될 것이다. 전 교인이 일사불란하게 종교적 행사를 해내는 것보다 한 사람씩 신자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정작 교회가 행할 일이다.

신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기 편한대



로 매사에 적용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전혀 다르다면 그분의 뜻이 아니지 않는가?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고의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 뜻을 동원해선 안 된다. 사람은 몰라도 자신과 하나님만은 그 숨은 의도를 알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신자이기를 거부한 자일뿐이다. 

## 하나님과 생태계 문제

인간과 자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자연 사이는 도저히 상호 넘나들 수 없는 존재론적 간극(間隙)이 있다. 자연의 신비함과 그 속에 드러난 신성(神性)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을 신성시(神聖視)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과 피조물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찬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그 작품에 배어 있는 작가의 정신·혼·의도 등을 발견하고 찬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품 자체가 작가당신은 아니다. 작가는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작품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어떤 대상을 신격화 혹은 신성시할 때도 반드시 그 대상은 인간의 존경 내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인격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에는 인격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



면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 1:28, 29).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이 정복할 대상으로 주었다고 오해한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30)고 하셨다. 만약에 정복할 대상으로 주었으면 다른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구태여 식물을 주시며 관심을 보이실 필요가 없다.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명한 대로 자연을 잘 다스려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라는 뜻이다. 사람에게는 씨를 주셨고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주셨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경작해 추수한 것으로 식물로 삼고 다른 동물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으라는 뜻이다. 다른 동식물의 먹이를 빼앗지 말고 보호하도록 인간에게만 경작할 지혜를 주셨다. 피조세계의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맡아 식물·동물 다 아끼면서 다스리라는 것이다. 또 정말 그런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산을 깎고 강의 줄기를 바꾸고 들판을 갈아엎을 수 있다.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인간의 탐욕이 이 말씀을 정복의 개념으로 오용했다. 자연은 정복 내지 말살의 대상이 아니며 나아가 경배의 대상도 아니다. 자연을 신성시하기 위해 태초의 상태로 손대지 않고 가만 버려두어도 안 된다.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은 탐욕으로 물든 인간의 죄성이 지 특정 종교의 신관이 부추긴 탓이 아니다.

인간이 대신 관리한다고 인간의 마음으로 관리해선 안 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해야 한다.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자식같이 아




끼며 가꾸는 것이다.

흔히들 미국은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한다. 풍부한 자원, 넓고 비옥한 땅, 아름다운 자연 경관 등 황량한 아프리카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좁고 늪은 한국 땅에 비하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러나 단순히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받아 복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을 풍부히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자원을 이웃과 나눌 수 있기에 미국은 복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조물도 피조물대로 더 사랑할 수 있다.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日月星辰)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신 4:19). 자연세계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은 해와 달과 별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천하만민을 위해 분정한 군중에 불과하므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 자연 안에 신성 자체가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뜻이 드러나 있다.

지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거나 우리를 낳으시고 젖을 먹여 주시는 어머니로 간주해선 안 된다. 자연을 신격화하자고 덤비는 것은, 인간적인 의를 드러내는 값싼 감상주의거나 샤머니즘에 대한 향수 둘 중 하나다. 자기들만이 생태계의 오염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듯 내세운 것이다. 또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자연의 신비에 미혹되어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초월자 하나님 당신은 외면 부인하려는 뜻이다. 자연 자체에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설령 자연을 보호하려는 의로운 모습일지라도

초월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피조물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만들려는 뜻이 숨겨져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잘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 자연을 망친 것은 전통적 신관·초자연 신관·자연신관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죄다. 

### 신은 존재냐 비존재냐?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한 마디로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딤후 1:17). 썩지 아니하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다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라는 것이다. 홀로 하나라는 것은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있어 자신의 뜻이 아니고는 그 어느 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주의 모든 사물과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썩으며, 보이며, 외부와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가 존재다워지지만 하나님만은 말 그대로 홀로 하나인 절대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존재인가 비존재인가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시공을 초월하는가, 아니면 시공간 안에 내재하는가, 물질인가 아닌가, 영원한가 일시적인가 등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분석한 외형적 이해일 뿐이지 하나님의 품성까지 포함한 전존재론적 해석이 아니다.

모든 존재(being)는 어쩔 수 없이 시공의 범주에 의해 제약 받는다. 그래서 외형적 분석만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절대자가 모든 존재와 절



대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존재(non-being)로, 또 일반 사물(thing)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no-thing, Nothing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잘 살피려면 존재(being)와 사물(thing)의 구분부터 해 봐야 한다. 사물은 일차적으로 생명이 없어 스스로 생장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도 생명이 있어 자라긴 하지만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최소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인간이나 그를 넘어서는 어떤 인격체를 존재라고 한다. 따라서 존재와 사물을 나누는 기준은 과학적인 분자구조와 질량과 시공간이 되어선 안 되며 인격성을 소지했는지 여부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은 무조건 존재이다. 비존재 또는 존재조차 초월한 어떤 것이 아니다. 절대자에게서 인격성을 제외해버리면 기독교 변증학자 오스 기니스(Os Guinness)가 말한 대로 “동양적 신앙 집단인 힌두교·불교·뉴에이지들이 공유하는 궁극적 실체에 대한 공통적 견해는 ‘미분화된 비인격성(undifferentiated impersonal)’ 또는 존재에 대한 비인격적 입장”이 되어버린다.

미분화된 비인격성의 대표적 사례로 동양의 음양 이론을 들 수 있다. 분명히 지구에 음극과 양극을 띤 자성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생존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절대로 궁극적 실체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 현상을 통해 생겨나는 자연 현상이다. 하나님이 지구 위에 인간을 두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으로 만든 한 사물 내지 현상이지 그 자체가 인격성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다. 또 최근 우주를 감싸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암흑에너지 내지 기(氣)를 절대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 역시 공기·이온·빛·미립자 등이 상호 교차·충돌·연합하는 활동에 의해 생기는 현상 내지 하나님이 우주를 존재케 하기 위해 만드신 비물질적 사물이다. 그 자체가 절대 신

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이 존재로 성립되기 위해선 인격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인격성도 반드시 존재와 존재끼리의 상호 관계에 의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 스스로 제대로 알 수 없다. 설령 알았다고 한들 만약에 이 땅에 정말 자기 혼자만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인격성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는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말할 때만 그 존재가 제대로 의미를 갖는 존재가 되며 그 인격성이 파악된다.

절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절대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비절대적 존재가 있어야만 절대자가 비절대자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어떤 존재가 절대자냐 아니냐는 인간이 그 신의 존재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절대주의 입장 혹은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절대자와 비절대자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창조주로서 절대자란 존재와 피조물로서 인간이란 존재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관해 외형적·물리적·논리적 전개와 설명은 일체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선포로 시작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인간과 상호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께서 인간에게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또한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 이후부터 설명하겠다는 것이 성경이다.

바울 사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롬1:17) 이끈다고 말한 의미 중의



하나도 바로 이 인격적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신앙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 관계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뜻이다. 인간끼리의 관계는 반드시 상호 인정하고 원해야만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 한쪽에서 철저하게 상대를 무시하면 그 관계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없던 절대자가 새로 생기고 상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인간이 그를 안 믿는다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상대적인 신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오직 홀로 하나이다. 이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겸손히 행복하며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절대자에 대한 인간 나름대로의 이해와 인식은 사람에 따라 굴절되고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교설 또한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상태가 상대적·비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한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이해도 못한다. 인격적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만 따로 떼어서 내린 인간의 평가와 교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대신 창 1:1에 드러난 절대자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에 바탕을 둔 교설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에 대한 앎이나 체험으로만 그 신앙이 신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 앎과 체험이 우리의 이해나 기대를 뛰어 넘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는다. 신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선택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 후로는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자가 된 이후의 모든 체험은 유용하다. 그 체험 중에서 내가 유용한 체험인가 아닌가 따져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혹 우리의 이해나 인식을 초월하는 체험마저도 오직 신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신자도 간혹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옴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

자기가 깨닫고 판단하여 자기에게 유용한 체험만 신앙으로 인정하겠다고 덤비면 그야말로 자기가 절대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다. 기독교는 깨달음이나 배움의 종교가 절대 아니다. 오직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만을 요구하는 종교다. 인간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부다.

절대자에 대한 한 가지 절대적 교설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고백이거나 그런 관계를 갈망한다는 투정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단정 짓는 것 자체도 이미 절대적인 명제가 되어버린다. 상대적인 인간이 취할 입장이 못 되며 그런 모순된 가정으로 기독교의 입장을 비난할 수 없다.


진정한 상대주의란 다음 세 가지 입장을 다 수용해야 한다. 1) 진리가 있다면 예수만이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진리일 수 있다. 2) 역으로 기독교의 그것만이 진리이기에 나머지 모두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3) 진리가 없다면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다.

지금 어떤 구원의 길이 진리인지 논쟁하자는 뜻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과 절대적인 인격적 관계를 갖고자 할 때에 한해 십자가만이 그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인간은 세 가지로 나뉘 수밖에 없다. 우선 절대적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를 맺는가, 상대적 하나님과 상대적 관계를 맺는가의 둘로 나뉜다. 전자는 기독교이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적 종교다. 셋째는 그 중간 입장으로 절대적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절대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종교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슬람은 속명적 관계를, 유대교는 선민적 관계를 맺는다.

절대적인 하나님과 절대적 사랑에 바탕을 둔 인격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관계를 가지라고 권유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인류가 정신사적으로 장년기에 왔으니 그에 맞게 상대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유치한 수준이다. 정신사적으로 봐도 현대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기실 헬라·로마 시대 이후로 별로 발전한 것이 없다. 이미 선현들이 말한 것을 재탕 삼탕, 그 표현만 조금 바꾸어 고상한 용어를 썼다 뿐이지 그게 그것이다.


그래서 한 일이라고는 일반인들이 그 사상을 제대로 못 알아차리게 만들었거나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주장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 우주의 궁극적 실체로부터 멀어지게 한 일 말고는 없다. 정말 인간이 비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100% 순수한 상대주의 입장에서 절대자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100% 부인(완전무신론)하거나 100% 시인(절대적 신앙)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지, 그 중간의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면 쉽게 알 수 있고 핑계치 못한다. 유식한 지성인들일수록 관용이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모호한 회색지대에 자신을 숨기려 든다. 



## 어느 신학자의 신관

인간이 절대자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신관이 나이 들수록 변천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이다. 스스로 보다 의미 있는 신관을 찾아서 끊임없이 평생을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그럴 듯 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평생을 두고 완전한 신관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과 시간에 따라 자기의 감정과 지성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자신의 신관이 변한 것이다.

참 신자는 교회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신관을 커서도 아무 반추작용 없이 유지하고 있지 않다. 보수적 교단에서 교리적으로 강요하는 신관을 맹목적으로 끝까지 완고하게 붙들지도 않는다. 진리를 찾아 구도하고 있던 어느 순간 절대자가 자기 삶을 밀고 들어와 도저히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절대성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도 사족을 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배타성으로 인해 기독교를 고착적인 완고한 신관으로 오해한다. 구도자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신관을 목사나 교단에서 주입식으로 강요하듯이 가르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자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믿어져서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의 예에서 보듯이 회심과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만 시작된다. 아무리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를 가졌을지라도 지성적·합리적 탐구로는 믿을 수 없다. 



## 초자연주의 신관

모태 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전통적이고도 강압적인 교회에 계속 출석한 자는 자신의 신관에 대해 갈등을 많이 겪다가 어른이 된 뒤 그 신관이 변화되고 심한 경우 기독교 신앙마저 포기하는 경우를 왕왕 본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의 문제다. 성경이 이야기 하는 신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났던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 책임이 제일 크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탐구해 보았어야 할 책임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만큼은 어느 누구도 개입될 수 없는 오직 본인과 하나님의 일대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교회에서 잘 가르친다고 해도 어렸을 때는 제대로 된 신관을 형성할 수 없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은 천재가 없다.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인간관계의 상처와 이 세상의 모순과 왜곡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전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가질 수 없다.

주일학교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성숙도에 맞추어 하나님을 가르친다. 어린이가 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다 보니 손가락을 옆으로 흔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강조된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을 때라 아무래도 별주는 하나님이 어린이의 마음에 제일 많이 자리 잡게 된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고 질문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지, 새가 물어다 주었다든지, 아니면 엄마 배꼽에서 나왔다는지 아이들 수준에 맞게 대답해주는 것과 같다. 어느 누가 그런

엄마를 엉터리로 대답했다고 탓하겠는가? 또 어린 딸에게 만약 엄마의 생식기에서 아기가 나왔다고 사실 그대로를 말해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주일 학교에서는 아무리 해도 로마서의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를 알아듣도록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신관을 갖게 되는 과정은 각자가 다 다르다. 아무런 외부적 강요 없이도 의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구도자적 갈등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 기도나 소원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는 자, 성경 공부 중에 기독교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 등,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는 각 신자마다 갖는 독특한 경험이다. 시간적으로도 순간적으로 믿는 사람, 점진적인 사람,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사람 등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자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고 은혜로워 남은 평생 동안 복잡한 다른 신관에 대해 연구·분석·성찰할 생각도 없이 지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힌 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정작 따져야 할 문제는 어떤 사람의 신관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아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관이 시대에 따라 변했는가, 또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가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서로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이 아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표현했을 뿐이다.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더 강조되었으면 되었지 초자연적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 그보다는 성경에 강조되어 나타나는 빈도수로 따질 수는 없다. 각각의 상황은 그 상황대로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낼 뿐이다.

만약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일대기를 쓴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때는 야



단치는 아버지, 또 다른 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 심지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아버지, 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가 나중에야 아버지만의 깊은 사랑의 동기를 발견하는 경우 등 온갖 형태의 아버지가 등장할 수 있다.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 서로 다른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고 야단과 격려를 한 횟수로도 비교할 수 없다. 아버지라는 전 인격체를 두고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한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성경의 하나님이 야단만 치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었다면 그 까닭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일보다 야단맞을 일을 더 많이 했거나, 둘째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도 선행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해가 더 쉽게 된 것이다. 유치한 어린 시절의 수준에서 하나도 자란 것이 없다. 본인의 영적 수준으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남을 탓할 수 없다. 교회는 잘못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은 잘못 가르치지 않는다. 

## 흔들리는 신관

교회 주일학교에선 의도적으로라도 초월하시고 권선징악적인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여 착하게 사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보상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는 것을 대조하여 가르친다.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한 가지 주제와 궁극적인 도착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맛

을 미리 보여주어야 한다. 그 사랑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공의가 성취되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도 함께 강조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율법주의적 신관이나 초월주의 신관 등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관에 빠뜨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정의로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재간이 없다. 다 큰 어른도 십자가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기독교 복음과 구원의 교리는 인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간섭과 거듭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어떤 면에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교리는 복음이 실현되는 외형적 과정과 구원 이후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 그친다. 구원이 전개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줄 수도 보여줄 수도 없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거듭나고 기독교의 구원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신비다.

따라서 구원의 성사 여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정교성·심오성·고매함에 있지 않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믿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은 율법주의 혹은 초자연주의 식으로 한 쪽으로 치우친 신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면 자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지 가르침과 깨우침의 문제가 아니다. 가르치는 교회나 배움을 받는 교인이나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고 믿을 것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등한시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이 편향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성과 인격이 성숙한 성인이 되어도 아무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치우친 신관이란 그 자체로 이미 모순



을 내포하고 있고 결국 흔들림에 빠지므로 그리스도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리 탐구해도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신관이란 자신의 지성과 종교성을 동원한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야 비로소 생길 수 있다. 여러 신관을 비교 연구하였더니 그 중에 이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 하나를 택하면 그 택함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변할 수 있다. 초월주의 신관이 틀려서 이신론자나 무신론자가 되겠다든지, 무신론이 틀렸기에 초월주의 신관을 붙들기로 했다는 것은 본인만의 문제이지 절대자 하나님과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

신관은 어디까지나 신관이어야지 자신의 사상관이 되어선 안 된다. 신관에 한해선 바르고 온전한 출발을 해야 한다. 출발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중간에 잘 닦인 도로를 간다고 해도 도착지는 달라진다. 그 동안에 열심히 다녔던 여정이 전부 헛된 낭비가 된다.

신관에 있어서 바른 출발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다. 신은 신이라는 것이다. 신이 신이 아니면 믿을 필요도 없다.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외면한다. 일부러 외면하고 부인하려 든다. 신을 신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본인의 사상과 철학은 될지언정 신관은 아니다. 만약 사람을 동물로 보면 인간관이라고 불리어질 수도 없고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신은 신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신은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아니다. 신의 이 초월성은 신의 무소부재성(無所不在性)과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다. 초월적 절대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무소부재성은 성립할 수 없다. 절대적 존


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영역에서도 그 절대성을 잃지 않을 수 있지만, 절대적 초월자가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절대 무소부재할 수 없다. 절대적 초월자는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으나 내재된 한정된 존재가 초월로 뛰쳐나갈 수는 없다.

나를 알고 선택하여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영원히 땅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초월하는 절대자뿐이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뜻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초월적 절대자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 그 절대자가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며 비로소 그 신관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인간 스스로 깨우쳐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는 절대자만이 신에 대해 우리를 깨우치게 해줄 수 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분이시 예수님을 따라 한다고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자의 깨우침조차 절대적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1, 12).

절대자를 부인하는 곳에는 아무리 심오한 깨우침이 있어도 거기에는 이미 신이 없기에 신관이 아니다. 인간 자신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존재인데 스스로 깨달은 신관이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대자의 은혜가 없는 깨우침은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심오하다는 자랑 밖에 안 된다. 삶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절대자 앞에 절대적으로 겸비해지지 않고는 옳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신관이 생길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의 모습으로만 확인된다. 

## 초월이나 내재냐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선언은 하나님이 타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몇천 년간 암흑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했고,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백 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말인가 하는 의심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과 양립 불가능한 교리라는 결론을 내린다. 누구는 떡을 주고 누구는 매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공평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평성이란 반드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질적인 판단을 정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좋은데도 점수를 박하게 매기거나 나쁜데도 후하게 주거나 동일한 조건인데도 차등을 주어 취급하면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평성을 따지려면 그 질적인 분석과 심사를 정확하게 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받은 대우가 많거나 적은 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대우가 좋고 나쁜 것은 어디까지나 그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 대우가 좋고 나쁜 것에 따라 사람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닌가, 즉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는가 아닌가를 인간 구원의 판단근거로 삼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간을 질적으로 분석할 때 예수를 믿은 자는 점



수를 후하게 주고 안 믿은 자는 박하게 주었다고 오해한다. 정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다 심사해서 판단해 놓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상급과 형벌의 대책으로 예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인간 심사의 기준이 아니었다. 이 전후관계를 모르면 평생 가도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한 사람도 더하고 덜한 것이 전혀 없었다. 점수로 따지면 모두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해당하고 그 점수로써는 죽음이라는 형벌 외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한 리포트에 적힌 내용이다. 하나님의 공평성을 따지자면 바로 이 판단을 따져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고 보상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평한 판단에 의한 공평한 보상은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대신 죽여 그 죄값을 감당하게 했다.

예수를 구원의 길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판단이 완전히 옳고 공평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특별히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으로 그 죄값을 다 갚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나, 또 그 평가한 결과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공평함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이다. 정말 공평하게 하자면 모두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오직 은혜일 따름이지



불공평이나 차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성을 문제 삼았다는 뜻으로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불평한 것이다. 특별히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고집한 것이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아니며 인간에게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에 따라 대우도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인간 사회의 불공평성을 강조하는 말이며 그 불공평성에 맞게 하나님도 불공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으니 내가 확실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남들보다 내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테니 절대 죽고 난 뒤에 탄 소리 하기 없기로 합시다라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꼴이다. 감히 하나님의 공평성을 못 믿는 참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다.

이 문제는 절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편애나 평가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판단 근거를 종교의 우월성의 비교에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에 두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히 공평한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판단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몽땅 동일한 벌을 주든지, 아니면 전부 동일한 사면을 해주든지 둘 중 하나뿐인데 그 중에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救世主: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을 구원할 공평하고도 유일한 길)라 시인하면 몽땅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공평한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은혜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이 아니고는 공평도 은혜도 절대 만족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편애하여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특별한 상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특별히 무거운 벌이 부과되어야 맞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요 3:18~21)고 하셨다. 믿지 않는 자에게 따로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것, 죽어서 받는 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지내는 것들이 벌이지 하나님이 예수 안 믿었다고 따로 준 벌이 없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롬 1:24, 26, 28).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마음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벌이고, 신자는 예수를 알고 그 빛 가운데서 사는 것 자체가 상이다.

그럼 죽은 후의 구원과 심판은 무엇인가? 그것도 따로 추가로 부과된 상과 벌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절대적·인격적·사랑의 관계가 없었던 자는 당연히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관계가 있었던 자는 그것이 이어지는 것뿐이다.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과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의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했다. 인간의 불공평성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보게 된 원인이지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공평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의 이 구원의 진리를, 하늘에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일방적이고도 독단적인 방법을 유일한 길로 정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혹자들은 비난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의 산물에 불과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의 보수주의자들이 순전히 자기 고집으로 우긴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독단적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된 까닭은 초월적인 초자연주의 신관을 가졌기 때문이니까 초월 대신 내재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예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기독교를 초월만 믿는 종교로까지 몰아붙인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자신을 남들과 동일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비취질 뿐이다.

대체적으로 배운 것이 많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초월보다 내재를 강조한다. 그 반대의 사람은 비교적 초월 신관에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인간 스스로 초월의 하나님과 내재의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는 무관하다. 전자는 자신은 남에 비해 우월하니까 세상은 공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자신은 남에 비해 죄인이니까 어떤 벌이라도 심지어 불공평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성을 많이 따지는 사람일 수록 세상은 공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 계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응분의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불법이나 할 말인가? 그들은 또 기를 쓰고 예수를 부인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면 자신이 꼴보기 싫어하는 놈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절하되어 하나님에게서 불공평하게(?) 취급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십자가상의 흉악한 강도가 단지 예수를 받아들인 것만으로 자기들처럼 멋지고 고상한 사람만이 가야 할 천국에 함께 간다면 자기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뜻이다. 

### 초월도 내재도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either/or)’에 입각한 ‘나나주의’ 혹은 ‘이것만 저것만’을 강조하는 ‘만만주의’로 따질 수 없다. 또 초월과 동시에 내재를, 내재와 동시에 초월을 함께 강조하는 ‘도도주의(both/and)’적 입장도 옳지 않다. 우리말 표현상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면 마치 각각이 여러 속성 중의 하나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될 수 있다. 설령 정확하게 둘 다 맞다는 영어식 표현(both)이 강조되었다 한들 신을 한마디로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없다는 약점은 여전히 남는다. 또 ‘도도’가 되면 항상 두 개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 아니면 동격인지 가치 비교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초월과 내재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초월은 내재를 동반할 수 있지만 내재만으로는 초월로 나아갈 수 없다.



수학에 필요(Necessary) 충분(Sufficient)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명제 P가 참이면 명제 Q도 반드시 참일 때 명제 P는 명제 Q를 유도한다고 한다. 이때 Q를 P이기 위한 필요조건, P를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초월성이 있어야만 모든 신자의 마음 안에도 내재할 수 있다. 우리 생각만으로 깨닫는 신은 초월적인 절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내재성은 초월성의 필요조건이 되고 초월성은 내재성의 충분조건이 된다.

인간의 신적인 체험이나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 그분이 절대자이기에 가능하다. 또 그 만남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 은혜다. 인간이 아무리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영적으로 신령하고, 구도자적 자세가 열심이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두 명제 P와 Q가 서로간에 필요충분조건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동치(同値)가 된다. 그림으로 따지면 두 개의 원이 중심과 반경 등 모든 면에서 일치가 되는 것이다. 초월과 내재에서 ‘도도주의’가 되면 완전히 초월이면서 완전히 내재가 되는 상태인 동치다. 특별히 틀릴 것 없는 것 같으나 초월과 내재성을 상호 분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내재나 초월 중의 한 쪽 하나님만으로 필요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기독교에서 과거 초자연적 하나님만 강조한 잘못이나, 동양종교에서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의 신관이 바로 그런 오류다. 범신론에서 뿐 아니라 범재신론에서도 인간 자신의 느낌과 체험과 깨우침을 신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 하나님의 유신론적 신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초월적 하나님의 커다란 원 안에 내재적 하나님이 작은 원이 동심원(同心圓)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다. 내재라는 뜻 자체가 피조물에 불과

한 일개 연약한 인간의 개체 안에 있는 하나님이므로 당연히 그 원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요, 두 속성 중에 꼭 초월이 내재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도 아니다. 몇 번 강조한 대로 초월은 내재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지만, 내재는 초월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의 초월성이 내재성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극(間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간극은 존재론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시다. 물질이 아니다. 영과 물질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극이다. 영은 물질계에 들어 올 수 있어도 물질이 영계에 들어갈 수 없다. 돌·물·공기·풀·나무에 영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이 들어갈 수 없다. 영은 생명과는 다르다. 식물은 생명이 있지만 영은 없다. 또 영은 지·정·의와도 다르다. 동물의 경우 비록 낮은 수준이긴 해도 분명히 지성·감성, 심지어 의지까지 갖추었다. 그러나 동물은 절대 영적이지 않다.

인간은 다르다. 특이한 존재다. 형체론적으로는 물질이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과 지정의와 영이 있다. 피조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 특별히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만이 갖는 영성은 지정의를 동원해서 사물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각·감각·의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만이 영으로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과 상호 교통할 수 있다. 돌고래의 아이큐가 80~120이나 된다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인간만한 지성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모른다. 인간은 그보다 낮



은 아이큐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인식하고 대화할 수 있다. 돌고래는 영이 없고 인간에게 영이 있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간극이 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에게만은 그 간극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창1:28)의 본질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또 다른 간극은 품성적인 것이다. 존재론적 간극이 인간과 하나님의 물질적·외형적 성질의 차이라면, 이것은 인격적·내면적 성질의 차이로 사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간극이다. 죄에 찌든 인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도저히 맺을 수 없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실체를 인간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심술이나 감히 인간인 주제에 건방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으니 벌을 받으라는 독선의 뜻도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선미의 결정체로 어떠한 죄나 더러운 것과 불완전한 것들과는 공존할 수 없다. 죄에 찌든 인간이 그 상태로 그분 앞에서는 순간 그 거룩성 앞에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 버린다. 마치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그 근처에 있는 어떠한 물질·에너지·빛도 흡수해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 앞에 나서지 않는다. 천사나 사자를 보내거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 나타나 인간이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막으셨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출 3:2). 불은 불이되 타지 않는 불이다. 불이란 항상 타 없어지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이 불은 불 자체는 타고 있지만 타야 할 대상물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다. 불 자체가 스스로 타는 대상이 되었다. 피조물로 물질에 불과한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면 타 없어져야 함에도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혼자 타고 있다. 하나님 당신이 혼자 타고 있다는 뜻이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해 내는 길 뿐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 외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하고 제대로 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는 전혀 없다. 죄를 지어 타 없어져야 할 대상인 인간을 소멸시키지 않고 인간의 죄를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와 함께 소멸되어 인간이 소멸되는 것을 막으신 것이다. 마치 블랙홀이 자기 근처에 오는 모든 물질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블랙홀 스스로 자신을 흡수해서 소멸시킨 것과 같다. 우주를 통 털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요 은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품성적 간극을 메우기에는 인간 쪽에선 절대 무력하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메울 수 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초월성을 스스로 벗고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간극이 메워진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체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행해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하다. 모든 행위의 발단과 전개와 결과 모두를 주도하시고 책임지는 이는 하나님이다. 동작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며 문장 형태는 능동태이다. 인간을 주어로 바꾸려면 문장이



자동적으로 수동태로 바뀐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가 있는 더러운 상태에서는 만나주지도 않고 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심리적·인식론적·존재론적으로 제대로 따지려면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며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자라는 관계를 가장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내재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동양 사상이나 종교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죄의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것이다. 가치 중립적·상대적·인간의 지정의에만 바탕을 둔 관계는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 속에 참다운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과는 그런 것만으로는 아무 관계조차 절대 맺지 못한다. 저들은 하나님 내재의 실제 체험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초월의 절대자 하나님을 가능한 부인하고픈 것이다. 그래서 가치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신을 그것으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직 절대적 가치에 입각한 영적인 교제, 그것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은혜를 베풀 때만 가능하다. 



## 4. 예수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하는 기독교론(Christology)만큼 기독교 사상사에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문제도 없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이단 혹은 정통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 사물을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과 범위 내에서 따져야 할지를 먼저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금방 분간이 안 가고 실력이 너무 비슷해 석차를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판들은 정확한 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기술의 난이도 · 회전수 · 점프 높이 · 스피드

등을 측정하는 세밀한 규정이 있다. 만약 어떤 심판이 이를 무시하고 발레나 재즈 댄스 심사기준에 맞추어 점수를 매기면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선 이런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지하는 측은 성경을 기준으로, 반대하는 쪽은 성경 밖의 것을 기준으로 든다. 전자는 전적으로 성경의 기록에 확신의 근거를 둔다. 반면에 후자는 성경 기록을 넘어서거나 무시하며 주로 세속적인 역사의 기록,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객관적 합리성, 특별히 기적과 부활의 진위 여부 등만으로 추측하여 판단한다. 예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상호 어떤 기준으로 그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는 이 논쟁은 처음부터 확실한 결론이 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나아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너무나 큰 의견의 차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인간의 통일된 검증과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의미를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아무리 따져도 예수가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비껴갈 수 없다. 이를 부인하려면 성경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 따라서 예수의 정체성을 따지기 위해선 성경의 정체성부터 따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성경 자체를 부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처음에 제기된 ‘예수가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예수는 성경이 있고 예수이지 성경 없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부인된 이상 예수에 대한 논쟁조차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성경을 인정하면 성경대로 예수를 인정하게 된다.

세상이 성경 밖의 자료를 분석해 예수가 전면 부인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예수 믿는 신자들은 맛이 살짝 간 미친 사람들이다. 역으로 성경 밖의 자료가 예수의 실존

성이나 그 사역과 이적의 객관성을 입증해낸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이 부인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성경을 도외시킨 예수 이야기는 단지 마술사와 도사를 합쳐 놓은 듯한 한 인물이 역사의 한 구석진 장소와 시간에 있었다는 에피소드 정도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 구태여 예수의 정체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시인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성경을 부인하면 예수도 부인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성경을 전적으로 긍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긍정할 것인가이다. 나아가 후자의 경우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하지 않을지도 정해야 한다.

성경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측을 두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완고한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우주의 신비도 하나씩 벗겨져 가는 판국에 어떻게 사람이 물위를 걷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며,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며, 그 아기가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임을 믿으라니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인가라고 따진다. 그러나 분명히 주지해야 할 사실은 예수에 대해 믿을 만한 자료는 성경의 네 복음서가 거의 전부이고, 성경 밖의 자료로 예수를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양쪽 다 부족한 자료로 판단했으니 어느 쪽이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 부족한 자료 가운데도 누가 더 많은 자료로 판단했느냐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측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다. 실제로 2천 년 전의 인물 중에 4복음서의 예수만큼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없다. 성경의 자료가 예수의 정체성을 판단하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다.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조건 믿고 보자는 맹목적 신앙이 결코 아니다.



어떤 마을의 노인 네 명이 수십 년 전 동네로 들어오는 길목 어귀에 아름드리 나무와 정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나무와 정자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고 또 그 노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아도 네 명이나 동일한 증언을 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예수가 죽은 후에 수십 년도 안 되어 동시대 사람 마태·마가·누가·요한 넷이 그에 대해 증언한 것이 사복음서다. 그들의 동년배도 생존해 있었고 예수의 행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다. 시골 동네 네 노인만의 증언도 의심하지 않는데 동시대의 사람이 수도 없이 생존해 있을 때에 증언한 예수에 대한 기록을 단지 2천 년이 지났다고 의심할 수 있을까? 만약 그 기록이 허위였다면 당시 사람들이 아무 말 않고 잠잠했을 리 없지 않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성경이라는 가장 많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린 결론이다.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거나 목사들이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 세미나(The Jesus Seminar)라는 가톨릭과 여러 개신교단의 약 80명 정도의 신약학 학자들이 모인 조직이 있다. 매년 2차례 모여 신약의 기록을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로 결정하는 모임이다. 해마다 어떤 특정 주제 내지 구절에 관해 학술적인 연구발표와 토론 절차를 거쳐 각자의 의견을 네 가지 색깔의 조그만 구슬로 투표하여 결정한다. 붉은 구슬은 의심할 여지없이 진실인 것(undoubtedly accurate), 핑크는 진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probable), 회색은 어느 정도 역사적 진실성이 포함된 것(passages containing some historic truth), 검정은 전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passages clearly without historical basis)으로 구분해 투표한 후 다수결로 결정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되 어느 구절을 인정하지 하느냐 마느냐를 사계의 전

문가들이 모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995년 발표에 의하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전체의 19%뿐인 것으로 판결(?)되었다고 한다. 근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낮아졌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일부만 부인하려다 신약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고의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다고 시작한 작업이 정체성을 깡그리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온갖 노력을 경주한 모든 연구결과가 몽땅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릴 것이다. 성경을 부인하고는 예수의 정체성을 검증할 수 없다.

동네 어귀의 큰 나무가 새마을 운동으로 잘라 없어져 버렸다는 네 노인의 증언 기록을 2천 년 후의 미래 사람들이 보았다고 치자. 그 현장을 조사해보니 이미 최첨단 과학시설이 들어섰으며 나무를 본 사람이나 나무의 화석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가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 부인했다. 예수 세미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런 형국이다.

그래도 저들은 예수의 참모습을 찾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시도라고 강변한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는 한 평범한 인간이었고 성경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제자들이 지어낸 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수를 바로 믿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사기극으로 몰아간다. 성경이 부인되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다. 왜 불교의 경전과 이슬람교의 경전을 두고는 그런 작업을 펼치지 않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다. 다른 모든 종교는 처음부터 인간의 생각을 적어 놓았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과 기독교의 경우는 다르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 성경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객관적·역사적·과학적 자료의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경의 이 선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유추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그가 말하고 사역한 그대로 다 맞거나 둘 중 하나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진리를 탐구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와 진리를 동격시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했다. 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 16:7~9)라고 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성령을 보낼 수 있으며 감히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신이 멀쩡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이라고 고백한 직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마 16:21). 일반인들도 자기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유언하기도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을 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예 미쳤다고 상대를 안 할 것이다. 아니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부활에 대해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음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마 16:22). 만약 베드로가 부활을 믿었다면 결단코 막으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 밤에 그가 한 행동이 뒷받침해 주듯이 스승이 죽는다는 사실에만 신경을 썼다.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무리와 허위가 없고 실제 있었던 일 그대로 적었다는 뜻이다. 나아가 부활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또 성경이 순전히 인간 예수의 추종자들이 지어낸 작품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부활 사건을 조작해 넣는 것이 사람들의 호응을 잘 받을 수 있겠는가, 빼는 것이 시빗거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되겠는가?

예수를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저절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을 과학적·객관적·논리적 증거로 따져 보기 이전에 누구나 가장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예수는 완전히 미쳤는가 아니면 그가 말한 대로 사실인가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일이다. 미진한 부분이 남았지만 그가 한 행적을 봐서는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지 않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대중 넘어가선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 까닭 없이 예수가 싫다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아무 이유 없이 예수가 좋아진다. 예수를 믿게 됨에 그가 한 말·행동·사역·인격성·사랑이 너무나 탁월해 감동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스승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이다. 그가 말한 그대로 본인 당신이 진리이다. 그가 약속한 대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요 14:26) 했기 때문에 까닭 없이 좋아진 것이다. 감동·판단·결단·훈련·연습 등 무엇이라도 신자 쪽에 원인이 있었다면 까닭 없이 좋아질 리 없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모든 종교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참된 신자에게만 중요하다. 성경의 진위 여부는 신학적 지식·문서비평·양식비평·고고학적 자료 등으로 검증하거나 종교사적 분석으로 가릴 문제가 아니다. 오직 진리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따질 수 있는 문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연구·고증·깨우침 없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특정 교파의 완강한 고집도,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기준도, 학술적 논증과 검증의 문제도 아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떠한 인간적 탐구노력과 종교적 강요와 관계없이 예수를 주(主)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평생을 연구하고 분석해도 예수는 랍비(스승)일 뿐이다. 나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기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어리석거나 미친 광신자 취급을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스승으로 절대 이해하지 않고 오직 구세주로 영접한다. 다른 종교인도 포함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참 주인이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를 모셔들이라고 권한다. 좋은 스승은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 구세주 예수는 종교의 관용성마저 초월한다. 그를 구주로 믿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다.

## 예수님의 성(性)생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생활에 관해 이런 조크를 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오신 구세주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분 당신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여자랑 함께 결혼해서 살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라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건디었겠습니까?”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성 관계를 갖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다. 여자들의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변덕을 맞추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빗대어 농담으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의 성생활에 대해 온갖 연구 결과들은 -사실은 연구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전부 이 조크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들의 이론적 성과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먼저 도출해놓고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억지 논리를 끼워 맞춘 견강부회(牽強附會)식 이론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성생활에 관해 명확한 기술이 없다. 추측이 만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결과다. 그러나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명확한 기록이 없는 한 사실이 아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직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것도 완전한 남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온전한 생식기능을 갖춘 완벽한 남자 성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다. 그 외의 것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에 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동성애자였다는지, 결혼을 했다는지, 창녀와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는지 하는 주장들은 비록 완전히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라도 성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자의로 추정할 때, 특별히 미리 가정한 어떤 명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것에 끼워 맞춰 유추하기 쉽다. 또 어떤 명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항상 숨은 의도가 있기 마련이다. 나아가 어떤 가설에 합당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다 쳐도 곡해와 편견으로 결론지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로 인한 반향과 과장은 처음 그 전제를 가정한 자의 예측과 통제를 넘어서 버린다. 원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예측하지 못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완전히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선하신”(마 19:17)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서두의 예가 비록 농담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도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전제를 입증하려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추정만 하니까 기혼여성은 하나 같이 변덕이 심해 남편들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무리한 단정이 내포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성생활에 관한 온갖 추측 중에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 결 같이 시험을 받았다.”(히 4:15) 인간이 성적 욕망으로 갈등하는 문제도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큰 죄로 취급하는 동성애나 불륜이나 매춘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 예수의 인간됨은 공감할지 모르나 존경과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인물로 전락시켜 버린 결과를 낳았다.

거짓은 거짓을 낳게 마련이다. 거짓은 항상 무리수를 동반한다. 건강 부회로 추정해 보는 것도 일종의 거짓이다. 오직 진리만이 무리수를 낳지 않는다. 성경의 화자(話者)는 하나님 당신이다. 성령의 유기적 역동

적 영감의 작용으로 인간의 손을 빌려 씌어졌지만 여전히 그 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생활에 대해 침묵한 뜻은 두 가지다. 첫째 사실 그대로 아무런 기록할 내용이 없었거나, 둘째 그것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에 방해되기에 일부러 침묵한 것이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의 결혼이나 성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인간이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는 데 방해만 된다. 혹시라도 어떤 여성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면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알고도 그 상대 여인에게 상처를 준 셈이다. 인간 예수라면 몰라도 구세주 예수는 그럴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는 예수님이 30대의 건장하고 완벽한 남성으로 어떻게 성적 욕망을 처리했을까 하는 데 있지 않다. 그 문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논쟁 자체를 덮고 얼버무리자는 뜻도 아니다. 이 문제 또한 성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먼저 따져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한 결 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히브리서 기록으로 성적 유혹도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추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적 해석이다. 그 구절에서 시험의 의미가 우리처럼 육신적 욕망에 넘어가는 그런 유혹이 아니다. 죄의 본질에 관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유혹이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사탄에 넘어간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부분은 앞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동성애도 하고 창녀와 자기도 했음에도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과 행위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우리와 같으면서도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데 그의 위대하심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인간 관념상의 문제일 뿐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만약 실



제로 예수님이 동성애를 했고 창녀와 잤다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과연 사람들이 지 금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안 그래도 부인하 고 싶어 미치던 참에 좋은 구실로 삼아 하루아침에 예수를 부도덕하고 미친 마술사로 비하시켜 버릴 것이다.

인간은 예수의 성생활이 모호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나마 할 수 없이 애매모호하게라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를 스승·선각자·위 인·성자의 레벨까지는 인정해 준다. 예수의 성생활을 일반인의 수준으 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그분의 사적인 성생활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일반인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숨은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빼어버려 경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다. 광야에 예수를 시험하러 나온 사탄의 뜻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 또 바로 그 점이 구세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해 원죄 아래 있다는 증거다. 구세주로는 인정하기 싫고 마지못해 억지로 스승으로만 따르려는 아주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다. 

##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최근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로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역사적 예수란 역사적으로 실존한 한 자연인으로서의 예수이며, 신앙의 예수는 교회와 신자가 체험하고 반응하고 믿으며 해석한 것에 따라 형성된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 상에 형성된 예수가 실재했던 예수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예수가 다르다고 믿거나,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심지어 달라야 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과연 우리 신앙상의 예수가 진짜 실체인가

진지하게 탐구해보는 노력이든 예수를 둘로 구분하는 작업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역사는 관념과 신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실만이 그 소재가 된다.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예수와 달라지면 당연히 역사적 예수가 예수의 진정한 실체가 되고 신앙의 예수는 허상으로 뒤로 밀려난다. 현재까지 기독교계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예수상은 구세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구세주는 허상이 되고 한 위대한 스승이 실상이 되면 예수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서 존경과 모범의 대상 즉, 인간으로 격하된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해야 한다.

만약 진실로 역사적 예수가 신앙상의 예수와 그 실체가 다르다면 당연히 역사적 실체를 따라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이미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지금껏 믿어 왔던 하나님 예수를 감히 인간의 수준으로 격하시켜버린다고 해서 절대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번 언급한 대로 ‘역사적 예수’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4복음서뿐이라는 것이다. 일반 문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뿐이다. 예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예 없다. 따라서 아무리 문헌비판적·고고학적 검증을 거친다 해도 성경 외의 자료가 역사적 예수를 입증하는 일차적 자료로는 쓰일 수 없고 단지 보조 내지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또다시 성경 그 중에서도 4복음서가 진실한지 아닌지 먼저 따져야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에 관해 한 가지 참고 될 만한 통계를 들어보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기 이전까지 서구(西歐)에서 써어졌던 모든 책들은 손으로 복사한 것이다. 성경도 예외는 아니며 현존하는 옛날 성경은 모두 필사한 복사본이다. 필사본은 그 복사 과정상에 이런저런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변조 및 개작의 가능성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저자가 자신의 저작을 고칠 필요가 있어 손을 댄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필사자가 개작하는 경우만 문제인데 나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 복사본인지 논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필사자가 최초 원본을 수중에 넣었거나 그 원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 고대의 한정된 자재와 필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사자가 구태여 원본을 개작할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어찌 되었던 필사본은 고의든 실수든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첫째 현재 소지하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필사본 연대가 원본과 시차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류나 변조의 확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서구 문화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머의 ‘오디세이’의 경우에 집필은 BC 9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최고(最古)의 사본은 BC 400년경으로 그 편차가 500년 정도다. 플라톤의 ‘대화’는 집필은 BC 400년경인 데 반해 AD 900년경의 필사본이 최고이므로 무려 1,300년의 시차가 있다. 이에 비해 신약 성경은 27권 모두 완성된 것이 AD 100년경인데 완간은 AD 200년경의 것이, 부분적으로는 AD 125년의 것이 남아 있다. 최초 집필 후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의 것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둘째 믿을만한 필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 비교하여 무엇이 오류이며 어디에 변조되었는지 찾기 쉽다. 완간 혹은 부분 다 포함해서 ‘일리아드’는 643 개, ‘대화’는 7개인데 반해 구약성경은 약



10,000개, 신약성경은 약 5,000개 남아 있다. 이처럼 필사본의 숫자가 다른 책에 비해 많은 까닭은 교회나 수도원들이 돌러가며 회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바로 그 점 때문이라도 필사자들이 더 엄격하게 복사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어떤 동일한 독자가 어떤 곳에서 읽었던 성경 내용이 다른 곳의 그것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필사자에게 책임을 돌렸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물론 성경 필사본에도 분명 오류는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필사상의 오류일 뿐이다. 거의 대부분이 계속되는 단순한 작업에 지치거나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생기는 실수였다. 알파벳에 점을 빠뜨렸다든지, 다른 철자로 오인해서 적었다든지, 숫자를 잘못 보았다든지, 같은 단어를 두 번씩 적었다든지 하는 것들이지 내용상에 해석이 심대하게 달라질 만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오류가 있어도 수많은 필사본을 서로 대조해보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성경에 정말 오류라고 할 만한 오류는 없다.

어느 모로 따져도 성경은 그 원저자의 원본이 그대로 필사되어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고대의 어떤 책보다 가장 높음에도 그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가장 시비가 많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성경의 진위나 개작 여부를 따지려면 호머·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세네카 등 고대 현자들의 저작 모두를 더 의심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하여는 하등 의심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한 예수님의 말은 끝까지 따진다.

역사적 예수는 인류가 갖고 있는 책 가운데 원전 그대로 100% 완벽하게 보관된 성경의 자료로 살펴야지 다른 무엇으로도 분석해 볼 재간이 없다. 일반 역사도 가장 먼저 오래된 기록을 갖고 따지지 않는가? ,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기 이전의 역사는 유물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문자 발명 이후는 문자 기록이 우선이며 유물은 그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예수에 대한 자료는 성경 외에 어떤 기록도 없고 유물은 더구나 없다. 성경의 예수가 바로 역사의 예수이다.

이 문제에 관해 아직 더 따져 보아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성경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다 하더라도 원저자가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서 기록해 놓았다면 어찌 되는가 하는 문제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성경의 예수는 무시하고 역사적 예수를 비록 빈약하지만 성경 외의 자료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역사적 예수나 성경의 예수는 둘 다 없어지고 단지 공상의 예수만 남게 되며 성경은 빈껍데기로 전락한다. 성경은 홍길동전과 수준이 같아져 그 상징하는 내용만 맹목적으로 믿든지 지성적으로 참고만 하면 된다.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경을 홍길동전과 비교해 보는 것은 아예 예수를 홍길동처럼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낸 인물로 단정 짓는 것이다.


둘째 성경의 예수가 역사의 예수와 다를 바 없는데도 과연 교회가 성경의 예수를 잘못 가르쳤는가 하는 문제다. 최근 성경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를 구분하는 작업이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의 삶과 죽음, 행동과 가르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형과 전범(典範)만 찾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껏 교회에서 ‘가르쳐진 예수’가 잘못되었기에 이제는 ‘가르치는 예수’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예수로 기존의 예수 상과 새롭게 대체하자는 움직임이다.

전통 보수 교회를 비판하는 측이 항상 저지르는 논리적인 잘못이 하나 있다.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대체 방안으로 자기들이 기껏 제시하는 것 역시 동일한 잘못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독교 신자들이 잘못 가르쳐진 예수, 역사적 예수와 다른 신앙상의 예수를 붙들고 있기에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기들이 만든 예수상

만 가르쳐야 옳다고 주장한다. ‘가르치는 예수’로 탈바꿈하겠다고 하지 만 그것 또한 ‘가르쳐진 예수’가 된다.

물론 ‘가르치는 예수’도 분명히 성경 속의 역사적 예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스승으로서의 예수는 예수의 일부분일 따름이다. 또 그가 가르친 내용은 전부 자기가 죽고 부활할 십자가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지 별도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윤리 교과서나 종교의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십자가가 부인되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진 예수’는 ‘가르치는 예수’도 포함되지만 ‘가르치는 예수’만으로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설명할 수 없다. ‘가르치는 예수’로 성경의 예수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십자가를 부인하는 시도이다.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 부인하겠다는 것이다.

성경의 예수가 역사의 예수와 다르면 인류 유사 이래 이 같은 사기극은 없다. 인류의 역사 특별히 서양사는 바로 예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의 예수를 부인하려면 예수와 성경 전부를 완전하게 부인해야 한다. 기껏 지성적으로 역사적 실체를 찾는 작업을 조금 해 보고 성경의 일부만 옳고 일부는 그르다는 식으로 주장해선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 없이 보면 그 비밀을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보아야 하는 책이다. 세속의 기록과 유물로 입증되는 역사의 예수가 성경의 예수를 객관타당하게 부인하지 않는 한 성경의 예수와 역사의 예수는 절대 다르지 않다. 



##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경의 예수가 역사의 예수와 다르다는 증거로 가장 손쉽게 드는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사다. 예수 탄생에 관한 4복음서의 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고 또 세속 역사와도 상치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예수님의 출생을 경축한 동방박사와 목동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베들레헴 출생과 헤롯왕의 유아살해 사건과 어린 예수의 애굽 도피 등도 상호 모순되어 보이므로 동정녀 탄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어떤 가난한 임신부가 출산예정일을 넘기도록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양수가 터져 여자 동료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아기를 받았다고 치자. 임마가 그때 아기를 받아 급한 김에 감싼 수건이 자기가 갖고 있던 흰 수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출산을 도와주었던 동료 여자의 푸른 색 수건이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직장에서 급하게 출산한 사실 자체까지 믿지 않겠다는 꼴이다.

동정녀 출산과 예수의 출생에 따른 여러 정황들은 완전히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해야 한다. 동정녀 출산이란 출산 이후의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출생 이전의 임신 수태에 관한 문제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유에서 낳았든, 베들레헴에서 낳았든, 동방박사가 왔든, 애굽으로 피신했든 안했든 동정녀 출산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인간의 아버지와 정상적인 성적교섭 없이 임신했는지 여부만 문제다. 미혼모가 사생아를 출생했는데 가족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생부가 아닌 남자 친구가 떠나지 않고 간호하고 있다고 치자. 간호사들이 “아빠



뺏아 참 잘 생겼다.”고 칭찬을 하니깐 그 남자 친구가 “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니며 미혼모 출산이라는 사실 또한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성경에 동정녀 탄생의 기록이 있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발설자는 누구이겠는가? 두말할 것 없이 마리아다. 그럼 마리아가 이것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뜻으로 발설했을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찬송은 두 사람 사이에만 있었던 일인 것 같다. 아마 불임 상태로 오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된 엘리사벳만이 자신의 성령 임신을 믿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상의한 것일 수 있다. 당시로선 두 사람만의 비밀에 부쳤을 수 있다.

그 후 더 이상 남의 눈을 속일 수 없이 배가 불러지자 맨 먼저 정혼자 요셉과 자신의 부모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수태를 처음부터 믿었을 리는 없다. 약혼자 요셉은 마태의 기록 그대로 불륜의 씨앗으로 생각하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했을 것이다. 성령 출생의 비밀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도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 마리아보다 요셉이다. 요셉이 부인하거나 최소한 침묵만 지켜도 아무리 예수의 제자라도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어줄 리가 없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19~21) 마태가 요셉의 예수 태몽이야기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가 제자들에게 예수 출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음이 틀림없다.

그가 적극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증언하기까지의 과정을 그의 입장이 되어 한번 가상해서 추적해보자. 아무리 마리아가 증언하고 자신에게도 현몽 사건이 있었어도 성령 임신과 꿈의 예언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래 의로운 사람이지만 약혼자에 대한 번민과 갈등이 없었을 리 없고 아내로 받아들인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처에게서 불륜의 의심스런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법적(?) 장남 예수를 쳐다볼 때마다 속에서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설 새 없이 끓어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미워해선 안 되지만 절로 미운 장남 예수가 여느 아이와 달리 죄와 욕심과 영악함이 전혀 없고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예수에게 자꾸 관심이 가고 차츰 미워할 수 없는 대신에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구약 성경을 권세 있는 자같이 풀이하지 않는가? 요셉으로서는 예수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애정과 증오가 순간순간 교차하는 참으로 미묘한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은 것은 잊을 수 없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해낼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예수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드디어 예수가 30세에 집을 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중풍·나병·소경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위를 걷고 귀신을 쫓으며 폭풍우마저 잠재웠다. “나를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 올 자 없다.”고 도저히 미친 사람이거나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다녔다. 자라온 과정을 전부 알고 있는 요셉에게 예수는 도저히 미친 사람일 수 없었다. 차츰 마리아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바꾸었고 30여 년 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던 의심과 질투와 분노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이르기를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요셉으로선 예수를 믿어 보려던 생각을 순간적으로 잠시 접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동정녀 탄생을 직접 겪은 마리아로선 자기 아들의 30년 생애를 지켜볼수록 구세주라는 확신이 점점 깊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롭고 착한 남편 요셉에게만 털어놓았던 출생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뤄지는가보다 여기고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눅 2: 34, 35)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게 웬 일인가?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가졌던 모든 오해와 갈등은 완전히 제거되고 만 3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부부관계로 회복되었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는 자기들의 아들이었지만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부부가 함께 한 치의 의심 없이 확신했을 것이다. 이제는 성령의 잉태와 천사의 현몽과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 등 동정녀 탄생에 대해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마 마리아가 먼저 제



자들에게 털어놓았을 것이며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들이 요셉에게 확인 해봤을 것이다. 요셉은 빙그레 웃으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네.”라고 대답하지 않았겠는가?<sup>5)</sup>

동정녀 탄생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의사 누가의 복음이다. 당시의 의사는 지금처럼 전문의 제도가 없어 모든 질병을 다 돌보았고 당연히 산부인과도 겸하고 있었다. 누가야말로 동정녀 탄생에 대해 가장 의심이 많았을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그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상기의 추측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가 처음 성령에 의한 잉태를 들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이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라도 살려낸 예수가 스스로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동정녀 탄생에 무슨 과학적 설명이 더 필요했겠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누가로선 절대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다.

의사가 될 정도의 지능이라면 동정녀 탄생 기록이 차후에 예수가 불륜의 사생자라고 비난받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했겠지만 그에게는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어찌면 그런 예상조차 못했을까 모른다. 마리아와 요셉이 기쁨에 넘쳐 간증할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자기에게도 넘쳤을 것이다. 또 만천하에 그 사실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솟구쳤을 것이다.

예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아주 상세하다. 사가랴의 사건, 엘

---

5) 동정녀 탄생 기록에 관한 해석은 필립 안시가 지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참조하여 필자가 더 자세하게 추측해 본 것이다. 외경에 따르면 요셉이 일찍 죽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죽은 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예수 출생 기록의 근거를 요셉에게,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리아에게로 돌린다.




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과 찬가,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 등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실제 당사자의 간증 없이는 선불리 꾸며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거짓말이란 말이 길어질수록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요즘 한국 정가에서 유행하듯이 거짓말은 가능한 짧게 한 마디로 그쳐야만 한다. 그 이외의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모르쇠’로 버텨야 의심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단순히 제자들의 자질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예수와 제자들에 관한 문제가 된다. 알기 쉽게 말해 예수와 사기꾼을 자기 제자로 뽑고 3년간 훈련시킨 사기꾼 두목이었다는 말이 된다. 복음서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것만으로도 순전히 역설적 의미에서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구약의 예언과 빈틈없이 연결되는 세밀한 구성과 최고의 도덕적 가르침과 극적인 감동 등을 비롯해, 스승을 파는 유다 같은 배반자까지 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신적인 수준이다. 또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 그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무식한 제자들을 단 3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훈련시켜 그들더러 그런 작품을 남기게 했다면 예수는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물론 역설적인 가정에 불과하지만...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서는 각 교회와 모임마다 읽혀졌다. 그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소리친 용감하고 진실한 신자가 최소한 한 명이라도 없었겠는가? 성경이 상징하는 의미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그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 예수와 그 제자들을 천재 사기꾼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사기꾼에게 배울 것이 있고 사기꾼을 연구하여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그들은 감히 하나님과 신앙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말로는 성경에 일부 의심스런 부분을 빼고서 믿어 주겠다고 한다. 넓은 도량으로 사기꾼에게 아량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감히 자기가 예수를 용서해주고 봐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는 없다. 

## 탄생 이야기에 얽힌 몇 가지 의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문자적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하나 있다. 몇 번 지적인 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비판해놓고 자기들 주장의 근거는 문자적인 해석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방박사의 방문 사건이다. 한 신기한 별이 나타나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세밀하게 인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다. 조명등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위를 정확히 비치고 있는 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에 관한 기록을 문자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이 전혀 없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별에 관한 기록만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옮겨 보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

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 2: 1~2, 4~5, 7~10 발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는 기록만으로 별이 직선으로 베들레헴을 비추다가 박사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 이미 중근동 지역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점성술에 능한 그들은 예수 탄생 약 2년 전부터 특별한 천체의 출현과 움직임을 메시아 탄생의 징조로 믿었다. 그 별은 자기들이 있는 동방에서 보면 서쪽 하늘 이스라엘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메시아 출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별이 직선의 조명 라이트를 베들레헴 쪽으로 비친 것이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 땅 위에 특별한 별이 출현한 것뿐이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바로 찾아간 까닭이 그 별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고대에는 왕궁에 선지자·점성술사·지식인들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성경 예언의 해석이나 정확한 지리적 지식을 얻기 위해선 왕궁으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들은 왕궁에 들어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밤하늘에 유달리 반짝이는 별이 이곳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가까이 보이지요? 우리는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징조로 알고 동쪽에서 이곳을 향해 서쪽으로 곧장 왔소. 그러나 우리는 유대의 세부적인 지리는 잘 모르니 저 별이 보이는 쪽에 있는 도시가 어디요? 혹시라도 선지자



의 글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된 도시가 있는지요?” 이스라엘의 율법사나 선지자들로선 미가서의 메시아 베들레헬 출생 예언과 마침 그 별이 보이는 방향이 일치하므로 박사들에게 그곳으로 가는 지리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성경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라고 말했지 “다시 별빛을 따라갈새”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 베들레헬까지 가는 길을 다 가르쳐 받았기에 구태여 별을 보고 갈 필요가 없었다. 더 정확하게는 별을 보고 갈 수가 없었다. 높이 뜬 별이 한 작은 도시나 어느 한 집을 지정하여 일직선으로 비추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별이란 항상 방향만 지정해주지 세부적인 길 안내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성경은 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라고 표현했는가? UFO처럼 일직선 빛을 비췄다는 표현이 아닌가? 박사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 가르침 받은 대로 따라가다가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그 별이 자기들이 가고 있는 방향의 앞쪽 하늘 위에 떠 있었다는 뜻이다. 드디어 베들레헬에 도착했더니 그 별이 정확한 수직 방향으로 자기들 머리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메시아가 태어난 집이 어디인지는 구태여 문제될 것이 없었다. 베들레헬은 작은 마을이었기에 그날 저녁 혹은 최근에 아기가 출산한 곳이 어디인가 수소문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별빛이 일직선으로 비췄다거나, 별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일상적으로 밤에 별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별이 처음에는 서쪽에 보이다가 유다 땅에 가까이 가면서 차츰 머리 가운데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완전 정중앙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에 가

서 지리를 물어보았고 그대로 길을 따라가다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별을 보고 다시 확인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별이 자기 머리 위 정중앙에 위치했더라는 것이다.

별빛이 일직선으로 마구간 위에 비쳤다고 오해하는 것이야말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무엇인가? 동방박사 방문의 기록이 그 모호성으로 예수 탄생의 역사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다. 지극히 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그 사실성을 더욱 확인해줄 따름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동방박사의 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지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헤롯왕의 아기 살해 사건에도 시비를 건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박사들로 일부러 헤롯을 만나게 해 아무 죄 없는 아기들이 무참하게 살육 당하게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니 박사들의 방문사건, 예수의 베들레헴 출생, 동정녀 탄생 등 모두 그 역사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덤빈다.

진실의 실타래와 거짓의 실타래가 각각 있다면 완전히 실이 다 풀릴 때까지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는 진실이요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흰색 실의 포장 박스에 붙은 샘플이 오래되어 오래 되어 회색으로 보인다고 박스에 분명히 흰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도 회색 실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시작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 대면 끝까지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의심하려 든다. 심지어 박스가 오픈되고 흰색 실타래마저 다 풀렸는데도 흰색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까지 있다. 지금 예수 탄생의 기록에 관한 논쟁이 바로 그와 같다. 포장박스에 흰색이라고 적은 글씨가 너무 오래되어 희미하다는 것만을 유일한 핑계 거리로 삼아서 말이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기만 하면 당장 알 일을 가지고 아무리 흉포한 왕이라고 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다는 것



이 말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범죄든 그 진위여부를 가릴 때는 범인이 그런 범죄를 지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가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청부살인 한 남편에게는 아내의 불륜이라는 충분한 동기가 있다. 헤롯왕은 태어난 아기가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면 정적 제거라는 면에서 충분히 범죄동기가 성립된다.

범행동기가 충분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평소 성격이나 기질로 보아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간인가를 살펴야 한다. 헤롯왕은 얼마든지 아기를 대량 살육할 소질이 다분히 있었다. 권력 유지에 방해된다고 자기 아내와 아들을 두 명이나 살해한 자였다.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죽인 두 살 미만의 어린이는 당시 베들레헴 전체 인구가 1,000~2,000명 정도니까 아주 많아야 수십 명인데 그 정도는 눈도 깜짝 안하고 죽일 위인이 헤롯이다.

이제는 정황 증거를 따질 차례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마 2:8) 그때를 기준 삼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다 죽였다(마 2:16). 헤롯이 메시아가 정확하게 언제 탄생했는지 물었다는 기록은 없다.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 탄생했는지, 아니면 박사들이 도착한 시점에 탄생했는지 모르니까 별이 처음 나타난 시점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방에서 유다 땅까지 여행에 걸린 시간과 여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최대한도 여유 있게 2년을 잡았다. 그래 봐야 수십 명 안팎일 테니까 권력 유지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서슴없이 죽인 그로선 눈도 깜짝 앓고 해치울 일이었다.

헤롯에게 범죄의 동기·자질·정황 등은 충분하지만 범죄를 입증하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심증은 분명히 켜지만 물증을 찾아야 한다. 2천 년 전의 범죄에 쓰인 물적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사실 억지

다. 물적 증거가 없는 역사적 사건은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뜻에서 성경의 기록이 최종적 증거다.

그럼 더 이상의 증거는 없는가? 아니다. 마크로비우스(Macrobius)가 지은 ‘축제(Saturaalia)’에 헤롯의 명령으로 시리아 지역의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할 때에 헤롯 자신의 아이도 포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그 사실을 전해들은 당시 로마황제 아구스도(Augustus)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아구스도 로마황제가 이 사건을 듣고 빈정거렸으니 누가복음의 아구스도 황제 때의 호구 조사까지 입증되는 물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헤롯의 범행이 모든 면에서 성경기록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더구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냄에 있어 꼭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피가 뿌려져야 그 출생이 더욱 신비로워지고 예수의 예수 됨이 증명되는가? 나아가 마태가 기록한 대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야기하기에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 없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사건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헤롯에게 귀착하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막지 않는다. 만약에 박사들이 유대 땅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일부러 별빛이 사라지게 만들어, 할 수 없이 헤롯왕에게 찾아가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그 배경의 깊은 뜻을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논했던 대로 그렇지 않다. 박사들은 너무나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



만약 하나님이 헤롯왕의 영아 살해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헤롯 왕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려면 박사들이 그 집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마구간 위에 직선으로 비추는 조명 같은 별빛을 2년간이나 계속해서 밤마다 나타나게 해야 했다. 이것이 있을 법한 일인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자적 해석만으로 이 사건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헤롯 왕은 여러모로 보아 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을 리 없었디는 변명밖에 남지 않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설명이겠는가?

둘째,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마 2:18)고 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사건 발생의 동기와 이유가 전적으로 예언 성취에 있다. 그러나 ‘...함이 이루어졌느니라’고 했을 때는 사건은 다른 동기와 원인 때문에 이미 발생해 결말이 났지만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비추어 보았더니 그 예언이 맞더라는 의미가 된다.

밤늦게 귀가한 아버지가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아들에게 “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자가용을 사줄 거야.”라고 말했다고 치자. 아들이 그 말에는 별 주의도 안 기울였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더니 아빠가 정말로 차를 사준 경우와 같다. 까맣게 잊고 있던 아버지의 농담 같았던 이야기가 대학 입학하고 나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가 한 말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들을 강제로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 오직 차를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것도 아니다.



이 문제는 더욱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헤롯의 아기 살해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언의 성취됨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기 위해 마태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인지? 아니면 기왕에 있었던 사실을 해석함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부합하지 않게 해석했다는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여러 번 지적한 대로 마태는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복음서와 예수 자체는 부인되어야 마땅하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후자의 경우는 그 인용된 구절을 있었던 사건에 비추어 마태의 해석을 다시 정밀히 추적해 보아야 한다.

이 예언의 초점은 라마와 베들레헴의 비교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어미들(라헬)의 눈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다. 바벨론 유수 때에 이방의 속박으로 흘리던 눈물이 또다시 이방인 헤롯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살해된 베들레헴의 어미들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지 “라마에서 슬퍼하며”가 이뤄졌다는 뜻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대학 입학하면 노란 스포츠카를 사줄게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검정 지프를 사줬다고 아버지의 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따지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뜻은 오직 공부를 잘해 대학 입학하라는 것이 그 목적이며 또 아들이 좋아하는 젊은 취향의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뜻이었다. 꼭 노란색의 스포츠카만 사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들이 노란 스포츠카 대신에 검정 지프를 사주었으니 아빠가 틀렸다고 덤벼드는 아들이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빠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말꼬리만 붙들고서 아빠에게 거역하겠다는 심보다.

성경 기록의 말꼬리만을 붙들어 저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예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들 수 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



은 구약성경과 외경과 요세푸스의 고대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11:1)라고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태가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헬라어 번역판(70인역)으로 읽는 바람에 ‘가지’의 헬라어 네제르를 나사렛으로 잘못 읽고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꾸며냈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원래 베들레헬 사람인데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하려니 나사렛 지역으로 이사 간 것처럼 기록했다는 것이다.

아구스도의 호적 사건과 헤롯 왕의 영아 살해사건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을 리 없다고 의심했다. 이제는 또 베들레헬에서 살았지 나사렛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예수는 어디에서 났고 어디에서 자랐다는 말인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법이 없고 한 구절 한 구절 별로 말꼬리부터 잡고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

마태 당시에는 헬라어판 구약성경을 주로 읽은 것은 사실이다. ‘가지’의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된 헬라어가 나사렛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어원을 ‘구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나사르’에서 온 것으로 보는 학자도 많다. 즉 마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나실인”(민 6:2, 8)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나사렛 사람”이라고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의 단서는 따로 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마2:23)에서 선지자가 복수형이다. 마태가 이사야 한 사람만을 선지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그가 이사야 11:1을 의도적으로 인용했다면 선지자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해야만 했다.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

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시 22:6~8, 13/ 69:8, 20, 21/ 사 11:1/ 49:7 /53:2, 3, 8/단 9:6). 실제로 나사렛은 멸시당하던 곳이었고(요 7:41, 52) 심지어 갈릴리 사람에게조차 경멸당하던 곳이었다(요 1:46).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때는 단 순하게 고향이 어디인가만 밝히는 차원이 아니다. 조롱과 경멸을 받으며 비천한 환경에서 자란 수난받는 종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나실인이라는 종합적인 뜻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초대 교회의 기독교 신자들도 “나사렛 이단”(행 24:5)으로 불리었다. 나사렛은 다윗 왕가의 혈통에서 나온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보다는 멸시받은 종과 외면당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지명의 유래와 의미로 따져도 예수의 고향<sup>6)</sup>이 나사렛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마태복음에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술한 까닭은 예수의 탄생을 동방박사와 헤롯왕과 연관된 사건만을 기록했으므로 구태여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왔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은 것뿐이다.


문제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마2:22)라는 구절이다. 예수 일행이 애굽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으니 그곳이 고향이라고 추측한다.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여느 아이와는 다를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이미 받은 상태이다. 그런 특별한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먼 이방의 땅 갈릴리보다는 성도(聖都) 예루살렘 주변이 더

---

6) 출생지로서의 고향이 아니라 성년이 될 때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곳이라는 의미에서 고향을 말함.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이 구절을 문제 삼는 것도 “나사렛 사람”과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를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한데서 기인한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성경을 앞뒤로 비교 대조하며 연구해보면 그런 주장들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성경에 대해 상반되는 두 주장을 두고 당시의 정확한 물증과 비디오로 찍어 놓은 기록이 없는 한 어느 쪽이 맞는 줄 알게 뭐냐고 끝까지 우긴다면 할 말은 없다. 바로 이 ‘눈으로 본 사람이 없으니까’라고 하는 태도가 문자적 해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자적 해석만 한 자들이 성경을 앞뒤 문맥에 비추어 비문자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믿은 사람들을 도리어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비난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배경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지닌 종교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진 가설이므로 그대로 믿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참된 정신만 살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 1:23)에서 ‘처녀’가 동정녀인가 단순히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지 불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해묵은 ‘처녀 논쟁(알마 논쟁)’이다.

마태는 분명히 당시의 헬라이어관 구약성경(70인역)의 이사야서 7:14에서 인용했다. 히브리 성경 원전에 ‘알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험이 없는 처녀(Virgin)를 의미하는 ‘배틀라’와는 달리 결혼 여부와 상

관없이 젊은 여자를 뜻한다. 그런데 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는 완전한 처녀를 의미하는 ‘파르테노스’로 번역했고, 마태가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70인역의 역자가 그렇게 번역한 배경에는 3가지 가능성뿐이다. 단순한 실수였거나, 의도적으로 ‘알마’를 틀린 번역으로 조작했거나, 아니면 ‘알마’를 동정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한 것이다. 이 셋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3번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문제는 원제 신학적으로 미묘한 주제라 번역자가 부주의로 실수하거나 고의로 조작할 문제도 아니었다. 또 70인역은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한 것으로 정평이 난 역본이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 생각하면 어느 누가 이 구절을 번역하든 이 구절은 특별히 신경을 썼을 것이고 함께 번역에 참여한 학자들의 사후 교정에 반드시 한 번쯤 걸러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70인역의 역자가 ‘알마’를 동정녀로 해석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또 그것을 마태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이제 그 근거를 살펴보자.

‘알마’가 일반적으로 결혼과 상관없이 젊은 여자를 뜻하지만 성경에 기술된 용례는 처녀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창 24:43; 출 2:8; 시 68:25; 잠30:19; 아 1:3, 6:8), ‘알마’와 동일 어근인 남성명사 ‘에렘’은 결혼 전의 풋내기 소년을 뜻한다.(삼상 17:56, 20:22), ‘알마’와 동근어(同根語)인 우가리트(Ugarit)어 ‘glmnt’도 오직 결혼 전 여자에게만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알마’의 어근 ‘알람’은 ‘감추다’, ‘숨기다’는 뜻이다.

순전한 처녀를 뜻하는 히브리어 ‘베틀라’는 처녀성의 지속적인 유지에 관심을 둔 용어다. 따라서 이 용어가 강조되면 그 해석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뒷받침해버리는 쪽으로 흐르기 쉽다. 반면에 ‘알마’는 남자와 격리되어 순결히 자라 온 처녀라는 뜻으



로 동정녀를 의미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누가복음 1:34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1:18에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말들이 의미하는 바로 그 뜻이 ‘알 마’이다.

우리말에도 ‘동정녀(베틀라)’와 ‘처녀(알마)’라는 두 단어가 있다. 전자는 처녀성의 계속적인 유지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남자와 격리되어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이다. 말하자면 우리말로도 처녀라는 단어가 동정녀 의미를 전달함에 아무 하자가 없고 동정녀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예수가 탄생하기 6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에서 “보라 동정녀(베틀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표현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겠는가? 그러면 후대에 와서 거꾸로 이사야서가 조작되었다는 시비를 낳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동정녀 탄생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이사야서의 ‘처녀’라는 단어를 동정녀로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한다. 실제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신약성경에서 지어내다 보니 구약성경마저 곡해했다는 주장이다. 신약성경 저자를 이중 삼중으로 사기꾼으로 만드는 셈이다.

동정녀 출생의 논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이 하나 더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외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부부로서 함께 살았으니 노년에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인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經水)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창 18:11, 1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사라가 보인 반응이다. 경수는

월경(月經)을 뜻하며 사라는 이미 폐경(廢經)이 되었다. 노쇠해 낙이 없다는 표현도 아브라함마저 이미 임포텐츠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기가 잉태되려면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여자가 한번 폐경이 되면 다시 멘스가 나오는 법도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과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두 경우를 순전히 생물학적으로 비교해보자. 전자의 경우는 임포텐츠에 폐경이면 정자도 난자도 없었고 후자는 건강한 난자는 있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낮으며 말이 안 되는가?

난자의 존재는 1827년에서야 발견되었는데 그 전까지 여자인 남자의 씨앗을 키워주는 토양 정도에 불과하므로 여자의 요소가 자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위에 인용한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겐 그런 비과학적인 생각이 없었다. 사라의 자기 경수가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만약 자기 몸이 단지 아브라함의 씨앗을 받아 키우는 토양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 경수가 끊어진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 또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앗을 직접 받으면 되지 하갈을 첩으로 들여보내 이스마엘을 낳게 할 까닭도 없다. 사라는 도무지 수태는 더 이상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웃은 것이다.

과학적으로 둘 다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경우가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왜 이삭의 출생은 아무도 그 사실성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경우만 문제를 삼는가? 구약의 기록도 조작되었는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삭의 출생을 신비롭게 꾸몄는가? 아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동정녀 탄생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외아들 이삭이 태어났듯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었다.



예수가 남자가 지니고 있는 성욕의 원죄를 지니지 않고 태어나기 위해 인간 아버지는 없어야 하므로 동정녀 탄생을 꾸며냈다고까지 주장한다.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간섭하신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마른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며 죽었던 자도 살리셨다는 증언이다. 동정녀 탄생의 종교적 의미는 죄악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시기 위해선 인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성의 유혹에 넘어가 괴로워하는 정도가 원죄의 본질이나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전부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제약된 정보나 지식에 입각해 형성된 어떤 특정 상황과 시대에만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교리 체계가 아니다. 성경에 드러난 절대 불변의 영원한 진리를 믿을 뿐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 절대진리에 전 존재와 삶을 바치는 것이 신앙이다. 신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정신을 되살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 전 인격을 동원해 제대로 반응하고 전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다. 

## 청년 예수

성경에는 출생 이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예수의 성장과정 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최근의 문헌학적·고고학적 연구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선 많이 알게 되었어도 예수 개인에 관해선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예수에 관해 알려면 일차적으로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다. 예수이 이 ‘잃어버린 해(missing years)’에 관해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정황과 비교하여 사실성과 역사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과 추측으로 꾸며내는 소설(fiction)로 전락한다. 일반적으로 예수에 관한 성경 기록이 많이 부족하고 오류가 많은 것처럼 착각한다. 단지 성장기의 기록이 부족할 뿐이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자료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예수의 성장기에 관해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신비감을 조성하려는 뜻이 아니다. 특별히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을 만큼 예수가 아주 평범한 성장기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평균 이하로 메시아가 될 자질이 모자랐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면 일단 그 부모 내지 조상 중 한 사람과 연관시킨다. 예수가 이룩한 일도 크든 적든 혈통의 공로로 돌린다. 예수와 세례 요한이 혈연지간으로 예수가 요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물론 예수가 세상 교육과 부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어느 순간 뿔 하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목수 수업과 평범한 유대인이 받는 율법 교육을 거쳤다. 그러나 그가 이룬 십자가의 소명만은 이 땅의 교육과는 상관없었다. 창세 전부터 삼위 일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때가 차매 드러난 것이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겪고 유대교의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고통 중에 있는 불쌍한 인류 구원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결심하고 실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을 가락하게 받아들이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청년기 성장 과정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후 할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다.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필연적으로 성장 과정과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했던 것뿐이다.

북한 김일성의 성장기에 관한 기록이 사실이든 조작이든 아주 많은 까닭이 무엇인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하고 총명하며 지도자 자질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반면에 예수의 성장기의 기록이 없는 것이 기독교에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보통 사람이었으므로 우리 죄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성취함에 부패하고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이해타산 관계가 개입되지 않았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순수한 뜻만 계시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의 이 땅에서 공사역이 3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오래 사셔서 더 좋은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할 것 하나 없다. 인간에게 불운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죽기 위해 오셨다. 스승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모범의 본을 보이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한 후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만약 수십 년을 더 가르치고 오묘한 기적을 더 많이 베풀고 갔다면 예수를 평가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은 퇴색된다. 그의 말씀과 사역에 연구의 초점이 모일 것이다.

예수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3년이 짧고 아쉽게 느껴질 것이다.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십자가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의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영단번(永單番, once for all)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스승이 아니라 구세주라면 십자가에 바로 죽으면 되지 가르치기는 왜 가르쳤는가 따질 수 없다.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면 한 마술사(magician)의 한갓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누가 그런 자의 일생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를 두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푸는 모든 것이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의 뜻이 무엇이며, 또 어쩌서 그 죽음의 사건이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가를 사전에 계시해 보여준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골 1:15)임을 드러내는 일을 공생애 3년 안에 완벽하게 수행하셨다.

자신의 구세주 되심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을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는 십자가 구원이라는 일관된 주제와 천국을 향한 방향성이 없는 말씀은 없다. 그의 말과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이 유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비유와 은유를 잘 구사하여 듣는 이로 정신 번쩍 나도록 촌철살인의 경구를 구사하고 율법의 자질구레한 면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 일관성과 방향성 때문이었다.

예수의 모든 말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을 구원해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살아 있는 말씀이었다. 말씀 자체가 죄로 타락한 인간을 창조 때의 심히 좋았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우리 영혼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는 재창조의 역사(役事)였다. 우리의 정신이 번뜩 들어 깨우침을 얻는 정도의 말이 아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었다(히 4:12).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어 지성과 도덕성을 고무 함양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게”했다(히 4:12, 13). 우리 생각에 유익한 것을 보태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벌거벗겨 보여주신 말씀이었다.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에 의지하지 말고 일관되게 구세주인 자신만 의지할 수 있게 십자가의 쪽으로 인도하였다.

예수가 사용한 모든 비유도 바로 이 일관성과 방향성을 유지하였다. 그가 비유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마 13:35) 위해서였다. 그 감추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엡 1:7)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눅 8:10) 모든 비유에 ‘천국’이라는 주제를 곳곳에 숨겨두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다. 천국이라는 주제로 비유를 해석하지 않는 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은 선문답처럼 환기적이거나 제시적이어서 듣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미 정답으로 갈 수 있는 키워드 천국을 적용하지 않고는 풀 수 없다. 또 그 키를 가지고 푸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해석은 동일하다.

젊은 예수는 이 땅에서 자유롭지만 아주 좁은 범위의 교제만 하시다 죽으셨다. 그러나 그 교제가 단순히 기성세대의 고착화된 의식을 뜯어고치고 위선을 고발하며 사회 개혁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선을 실천하는 한 젊은 행동주의자의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천국을 증거하고 가르치

기 위해서였다. 예수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 또한 천국이라는 키워드를 빼면 그저 조금 비범한 성자 정도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기 꺼리는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과 자유로이 식사했다고 해서 도량이 넓고 과격적이며 일종의 히피같이 자유 분명한 정신세계를 가졌고 도덕적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당시의 창녀나 세리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바리새 율법<sup>7)</sup>으로 따져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죄인’은 단순히 사기·절도·폭행범 같은 범법자라는 뜻이 아니다. 유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결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소속될 수 없고 구원 받지 못한 자로 낙인찍힌 자였다.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것을 심각하게 따진 이유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로의 유전을 위반했기에 이방인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부류로 취급되었다. 유대 사회 제반 질서와 구조와 통념상 이들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가 이미 확정된 천하의 죄인으로 도저히 가까이 해선 안 되는 부류였다. 그 사회에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추방된 자들로 유대 땅에 살기는 살되 이미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로 따지면 어떤 자들일까? 살인죄를 범한 사형수, 전쟁 중에 학살을 저지른 공산당원, 창녀촌의 포주,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죄수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인 자다. 어떤 법적 규범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거라고 사회 전체가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오사마 빈라덴·히틀러·김일성 같은 자들 이라고나 할까?

---

7)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다시 해석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실제 유대 사회에 적용한 율법.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멀리하던 자나 피압박 계층들과 교제한 것이 사회 통념을 깨거나, 값싼 동정심을 보이거나, 파격의 멋을 부리거나, 지성의 자유로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마저 외면할 자들이라고 낙인찍힌 자들을 몸소 오신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과 유대인들이 깨닫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천국은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 결례를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몸소 실천한 것이다.

하나님 당신으로 천국을 계시하러 인간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핵심을 빼고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 하면 그 예수상은 그저 인간의 눈에 비친 한 비범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를 두고 종말론적 예언자·열심당에 속한 혁명가·기성 종교를 방해한 마술사·힐렐 파에 속한 바리새인·갈릴리의 카리스마 지도자·율법을 가르친 랍비라고 칭하는 것은 일부 비상한 인간적 요소만 발견한 것이다.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은 꼴이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성경의 예수, 신앙의 예수, 역사의 예수는 절대 다를 수 없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왜곡되고 인간이 조작한 예수상만 발견할 뿐이다. 그런 예수는 성경에도, 역사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없다.



## 싸움꾼 예수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젓밥에 더 욕심을 내어 자기들끼리 예사로 싸운다. 그럼에도 유독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그 까닭이 있다. 개신교는 개별교회 중심주의

로 모든 활동이 공개적이다 보니 잘못된 모습이 중앙 통제 기관에 의해 여과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중생한 신자보다 단순히 스승으로 그를 본을 보려는 사람이 더 많다. 나아가 예수의 가르침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마저 모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음을 옹호하지는 뜻이 아니라 교인들이 싸운다고 해서 기독교와 예수님이 잘못 되었다는 선입관을 가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뜻이다. 절에서 스님들이 싸운다고 불교나 부처님에 잘못이 있다고 탓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람이 싸운다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꼭 싸워야 할 정의의 싸움이 있으며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고 지나치는 자가 오히려 비겁하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한 마디 변명 없이 희생하셨기에 기독교인은 절대 싸워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싸워도 될 싸움과 싸워선 안 되는 싸움의 구분은 그 싸움의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나 두 사람을 서로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린 시기·질투·원한·악한 세력의 방해·사회적 부정과 모순 등 그 죄악과는 철저히 싸워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해 싸워야 한다. 두 번 다시 원수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하며 또 힘을 합해 함께 죄악과 싸우기 위해 서로 먼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한다.

신자에게는 싸움이 많다. 매일 매일의 삶이 싸움이다. 매순간이 싸움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실체의 내면을 잠시만 꿰뚫어 보라. 얼마나 싸울 것이 많이 있는가? 싸울 것이 없고 신자가 싸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도리어 이상하며 신자라 할



수 없다. 도저히 세려야 셀 수도 없이 많은 죄악과 왜곡과 모순과 질곡과 눌림과 상처와 나태와 완악과 궤환이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움아매고 있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라면, 그 모든 싸움의 대상의 뒤에는 항상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아주 화려한 속임수의 겉옷을 입고 우리를 조롱하며 사기치고 유혹하고 있음을 금방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이 사탄이다.

이화여대 조태연 교수가 기독교 사상 99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교회의 음악회에 갔더니 온통 싸우는 노래밖에 부르지 않아 그것도 새 천년을 맞는 크리스마스에 그러니 도대체 교회에서 적개심을 고무시켜 새로운 십자가 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찌르고 죽여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이라고 하겠는지?’라는 내용이 있음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자가 선배들의 믿음의 전통과 희생 위에 세워진 그 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한국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찬송가집은 알다시피 주제별로 묶어 놓았다. 그 기고에서 예를 든 찬송가는 384~390장인데 모두 ‘분투와 승리’로 분류된 주제에 속한 곡들이다. 찬송가는 송영과 영창 포함 558곡이 수록되어 있는 중에 이 주제는 9곡(1.8%)에 불과하며, 또 이 주제의 찬송가 가사에 등장하는 싸움의 대상은 전부 마귀와 죄악이다. 마귀와 죄악을 싸워 이기고 완전히 정복해야지 그들을 이웃처럼 친구처럼 사랑하라는 말인가? 조 교수가 찬송가의 가사를 제대로 읽어보고 하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를 또 무턱대고 그것도 저자의 허락을 얻어 전제한 사람도 상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신자가 매일 싸운다는 것이 절대 이슬람과 문화충돌을 일으켜 현대




의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심으려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랑은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해 내는 모습으로 실천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악과 사탄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셨다. 부활함으로 그 죄악과 사탄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지 않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신자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상-영적인 죄악의 세력’과 ‘껴안아야 할 대상-영적인 죄악에 눌러 있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불신자는 이 구분이 없다. 그래서 무당도 점쟁이도 무조건 관용하라고 주장한다. 불신자는 종교의 자유를 논하면서 무당과 점쟁이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과 미신마저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자는 무당과 점쟁이는 사랑하되 그들의 우상과 미신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0). 신자가 벌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예수님 이래 인류 역사가 지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적당한 타협이나, 휴전이나, 정전이나, 항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無時)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엡 6:18) 싸워야 한다. 오직 싸워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며 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 신자가 깨어서 기도하고 싸우기로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싸움을 싸울 의사가 없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패배뿐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약속하셨다. 어두



움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이 신자에게 환난은 주더라도 신자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신자의 싸움에 군국주의의 사조가 잠시 영향을 끼쳤거나 19세기 제국주의의 사조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신자가 싸워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을 일삼는 악의 영들이다. 

## 싸움 말리는 예수

오늘날의 세대를 한 마디로 특징짓는다면 ‘다원화된 문화’라고 함에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사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문화 간의 화해’가 됨도 필연적이다. 인종 · 문화 · 종교 · 관습 · 언어 · 사상 · 체제 등 인류의 화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면 ‘화해하는 예수’, ‘평화를 가져 주는 예수’상을 강조하게 됨도 자연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절실하다 해도 예수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예수상까지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 바람직한 예수는 반드시 예수 본인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은 그 예수 됨을 넘어서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원론적 해결책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그런 해결책은 가만 따져 보면 문제를 한 번 더 설명한 것에 그친다. 예를 들어 한국 정치에서 수십 년간 망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감정의 폐해가 심했다. 그 해결책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여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없애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더러 ‘학교 성적이 나쁘니 어떻게 할래?’ 하고 물으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

다.’라고 대답하는 꼴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평화를 실현하는 예수가 되어야 한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 없으며 그에 반대할 자가 어디 있는가? 다원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을 없애는 것이니 그 해결책으로 화해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분열이 없는 것이 화해인데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화해하는 예수’가 바로 이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해결책이다. 이런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예수라는 말인가? ‘화해하는 예수’니까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문화를 다 끌어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 속에 정의가 아닌 종교와 사상과 문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무슨 시국 선언에나 나올 법한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하나가 되자’, ‘화해하자’는 구호와 이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류 역사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항상 다원화된 사회였으며 문화간의 충돌도 상존했다. 인류의 문제는 언제나 다원화에 따른 분열과 시기였고 또 인류가 도달해야 할 목표도 언제나 화해와 평화였다. 모든 지나간 선각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사회 개혁가들의 한결같은 해결책도 ‘화해하자, 하나가 되자, 남을 위해 먼저 양보하자’였다.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일종의 구호일 뿐이다. 당연히 구호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문화 간의 화해의 문제는 현대의 특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의 전부다.

그럼 왜 똑같은 문제가 유사 이래 상존하는가? 이전에는 싸움하는



예수상을 강조했고 화해하는 예수상을 몰라서 그랬는가? 화해하는 예수상을 지금에서야 발견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몰랐던 것은 예수가 말하는 화해의 내용이다. 서로를 갈라놓는 벽을 허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저 벽을 허물자라고 구호만 외쳐댔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처럼 외우기만 했다.

예수님이 신자더러 하나가 되라는 것의 모델은 포도나무다. 포도는 송이 하나씩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어느 송이를 따먹어도 포도의 맛을 유지한다. 그런데도 하나가 되라고 하면 그저 수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커다랗게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속이 덜 익었든지 썩아 터졌든지 하나가 되어 보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바랐던 사회적 원리는 연합이다. 그것은 사람끼리 연합(united)하라는 것이었지 똑같은 사람(uniformity)이 되라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세상에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 17:11, 21)라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각각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인간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인류가 직면하는 모든 죄악과 모순과 왜곡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서로 그 영혼이 연합되어 예수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확장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없다. 인류가 당면한 고민은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도 아니다. 또 인류가 도달할 목표가 없어서도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태우고 갈 수단을 상실한 것이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제대로 변화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화해하는 예수’를 구호로 외치면서 무조건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곧 오실 예수’상도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화해하는 예수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화해의 의미가 변질된 것이 문제다. 예수님은 개별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강조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집단끼리의 화해만을 강조하는 예수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심지어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세태의 흐름에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는 되려하지 않고 수천 년간 겪었던 실패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실패의 강도는 차츰 세어지고 실패의 발생 빈도도 더 늘어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인류의 미래는 인간 스스로 파놓은 파국을 향해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달리고 있다. 예수가 다시 오지 않고는 안 될 상황으로 치닫는다.

길을 막고 물어 보아라.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 중에 죄악의 크기와 발생의 빈도가 어느 쪽이 심한지? 또 인간이 겪는 염려와 불안과 상처와 영적인 눌림과 방황이 어느 시대가 더 심각한가? 재림하는 예수상이



로마 식민지 국민들의 절박한 시대상황에서 나온 특정 시대에 국한된 특유한 산물이 아니다. 예수가 재림해야 할 절박성은 객관적으로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높다. 예수 당시 사람들은 미개해서가 아니라 순수해서 재림의 소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소망을 외면하고 죄악을 더욱 탐하려니까 성경의 예수상을 부인하고 자신들만의 예수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고집하고 있는 것뿐이다.

‘곧 오실 예수’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10년, 100년 내리는 의미가 아니다. 인류의 죄악은 어느 시대나 똑같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범위가 더 넓어졌고 더 빨라졌다는 의미다. 재림의 시기는 인자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 재림의 소망의 강도는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에 대한 혐오감과 비례한다. 단순히 이 세상 실패자의 도피처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찾기 위해 재림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선 안 된다. 그런 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껏 많이 보아온 대로 사기꾼에 불과하다.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오히려 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더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재하는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만 그 소망을 품게 되고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만이 현재를 무시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더 집착할 뿐이다. 

##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를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코끼리의 덩치가 인간에 비해 엄청나기 때문에 장님이 그 전체를 다 만져 완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없다.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커다란

부채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같은 이치로 코를 만진 이는 굽고 길다란 호스 같고, 다리를 만진 이는 굽은 기둥 같고, 몸통을 만진 이는 커다란 바위 같고, 꼬리를 만진 이는 길다란 새끼줄 같다고 말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무리 예수가 2천 년 전의 인물로 그에 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장님이 코끼리를 표현하는 것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경우에는 그 코끼리를 만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가 정상적 시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전체가 아니라 일부도 볼 수 없다. 또 코끼리가 너무 커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끼리는 가만히 있고 장님들이 가서 만졌다. 말하자면 코끼리는 장님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보여줄 의사도 능력도 없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초대교회의 신자이든, 삼위일체의 기독교를 도출해낸 신학자이든, 2천 년이 지나 믿는 오늘날의 신자이든 앞에서 지적한 장님 코끼리의 경우와는 정반대다. 우선 성령의 간섭으로 예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되었다. 예수의 일부 특징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일대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무엇보다 불완전하고 우매한 인간이 예수를 찾아가서 연구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흔히 예수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분이라고 말한다. 위에서 말한 관점에 엄밀히 비추면 틀린 것이다. 장님인 인간이 천국인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코끼리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예수가 나타나 코끼리의 모든 특성에 대해 설명해준 것과 같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나라를 직접 계시(reveal)한 것이다. 단순히 그에 관해 가르친(tech) 것과는 다르다. 천국의 모형을 그가 살았던 삶에서 보여주었다.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 설명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강화(講話)한 것도 천국의 실체를 이 땅에 그대로 옮겨다 보여줄 수가 없기에 언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항상 선포(proclaim)의 성격을 지녔지 강의(lecture)가 아니었다. 그의 생각 말 행동 기적 죽음 부활 모두 천국의 계시이자 선포였다. 코끼리 박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직접 자기에 관해 인간들에게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한 후 그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기 위해 죽으면서까지 속속들이 다 보여준 것이다. 장님이 코끼리를 알기 위해선 일단 눈이 떠져야 하고 또 코끼리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야 한다. 눈 감은 채로는 아무리 박사가 와서 설명해주어도 모른다. 예수는 성령을 부어 주어 장님이던 인간의 영혼의 눈이 뜨이게 했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보여준 것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관해, 재림의 주·신인(神人)기독론·하나님 지혜의 현현·말씀의 하나님·대속적 기독론·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신령한 스승·만유의 주·삼위일체의 기독론 등, 역사적으로 수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다. 그 많은 기독론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 어느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떠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기독론의 진정한 의미부터 규명해야 한다. 조직신학적 기독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정의는 무엇인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upon, and our hands have handled…



KJV)”(요일 1:1).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행 1:21, 22)들이 “예수의 부활하심”(행 1:22)을 증명한 것이다. 성경적인 기독교론이란 학문적 연구 성과가 아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자가 증언한 것이다. 예수에 관한 많은 기록 중에 정정으로 선택하여 신약성경을 확정 지을 때에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사도성(使徒性)이었고 그래서 신약성경의 저자는 모두 예수의 사도다.

신약성경 27권 중 절반가량 저술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일대일로 극적으로 대면했다. 하늘의 삼층천까지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지극히 큰 계시를 직접 받았던 자이다(고후 12:2~7). 그가 예루살렘 경비대장인 천부장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보고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행 22:14, 15)이 된다고 고백했다.

따라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교한 이론과 심오한 사상이 뒷받침이 된 기독교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기독교론의 형성은 가장 먼저 예수님 당신의 계시가 전제되고 그 계시에 대한 제자들의 수용이 따라야 한다. 그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증언이 복음서와 서신서로 기록된 후에 그 증언을 후대 신학자들이 학술적으로 해석·정리한 것이 기독교론이다. 따라서 어떠한 신학적 해석도 성경의 증언을 넘어서는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해석자의 판단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특정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기독교론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론이다. 성경 기록을 넘어서는 기독교론은 기독교론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등장하는 인물의 지방과 언어만 달랐을 뿐이지 그 내용은 성경의 기록과 하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한반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는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가와 강도와 죄인들과 교제하며 농부를 제자로 삼고 중풍과 나병과 앓은뱅이와 소경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가 3일 만에 무덤의 흙이 파헤쳐진 채 부활하셔서 시체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도사, 미륵불, 정도령, 보살, 요임금 등의 호칭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처럼 ‘함경도 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기록을 해석하더라도 정치적 압제와 사회적 불평등과 육신적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심오한 종교적 깨우침을 한국인에게 주러 온 자로 해석될 수 없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기독교란 역사에 실존한 예수가 하신 사역과 가르침,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말씀에 기준하여 성경의 전체 콘텍스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정시대의 특정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적 의식에 짜 맞추거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관념과 사상에서 추출되어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에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기존 문화나 사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가 지혜·희생양·로고스 개념·부활사상·구원자가 하늘에서 온다는 것 등 인간이 갖고 있던 종교사상적 개념과는 부분적 혹은 상징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이다. 또 인간이 그런 종교철학적 인식을 기왕에 갖고 있었다는 자체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낮추어 다양하게 계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 타인종과 타종교의 사상들이 유대인들의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과 외형적으로 일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창조 시에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신에 대한 경외와 종교성의 형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종교적 의식과 신에 대한 개념 등에 서로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구세주가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종교와 시대에도 없었다. 간혹 대신 죽되 반드시 영웅의 모습을 띄는 구세주가 그것도 신화에 있었을지 몰라도...


시대와 장소와 인종과 문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기독교론은 이미 기독교론이 아니다. 기독교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봉사가 코끼리를 만졌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 창경원에 있으나, 100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 있으나, 3천 년 전 인도의 정글에 있으나, 멀쩡히 눈 뜬 사람에게는 코끼리는 코끼리인 것과 같이 성령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는 예수일 뿐이다. 새로운 이론체계나 신학적 정교함이 필요 없다. 그분의 실체를 보고들은 대로 전하면 된다. 그 실체를 본 자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본 자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다른 말을 보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다.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기적의 신빙성도 의심스럽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으므로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 소경을 데려다



거짓 자백을 받거나 그 기적을 부인시키기 위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예수)이 죄인인 줄 아노라”(요 9:24)라고 뉘엿뉘엿했다. 그러자 이 소경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요 9:25)라고 했다. 그리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0~33)라고 덧붙였다. 이 소경은 그가 겪은 그대로 증거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었다.

영적으로 인간은 모두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완전히 눈이 먼 자다. 나면서 소경인 자에게는 어떤 약과 수술도 필요 없다. 그를 만드신 분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 말고는 시력을 회복할 길이 없다. 아무리 잘 짜여진 기독교론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할 수 없다. 시대가 바뀌고 인간 지성이 깨어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예수를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약이 필요 없다. 성령의 간섭으로 우리 눈이 뜨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해석할 수 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다. 코끼리가 사자가 될 수 없다.

오늘날 코끼리의 수가 줄어들듯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자가 점차 줄고 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코끼리를 제대로 보존하는 길이지 아직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논하는 것이 아니다. 부채를 쓰던 시대에서 에어컨을 쓰게 되었다고 코끼리가 사자처럼 생겼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성불하신 예수님

한국에서 아주 저명한 한 스님이 기도란 소리 내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것을 어느 잡지에서 읽었다. 기독교에선 가능한 소리 내어 기도 하라고 가르친다. 기도 형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종교의 결정적 차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다.

불교에서 소리 내지 말라는 이유는 내면적인 명상과 참선을 통해 고매한 깨우침을 얻으려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기독교는 자신의 깨우침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에게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구하려고 아뢰는 것이기에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듯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야 한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잡념이 방해하게 된다.

부처님이 참선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는 절대자에게 탄원하는 것인데 반해 참선은 자기가 명상하고 수행하고 깨우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기도라는 같은 종교 활동을 했다. 종교가 다르기에 용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하고,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 맺히듯 기도한 것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탄원의 기도를 한 것이다. 어떤 절대적 깨우침에 이르러 비로소 절대자를 만나는 체험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절대자를 앞에 모시고 서로 대화하듯 이야기한 것이다.

간구 기도는 아무리 빌 것이 많다고 해도 기껏 몇 분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단지 자기에 관한 소원만 기도했다는 뜻이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를 위해 구할



것은 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 기도하는 시간도 갈수록 길어진다. 어떤 이는 기도할 것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 요일별로 기도하는 제목을 주제별로 나누기도 한다.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대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한다. 이때는 물론 소리 내는 것과 상관없이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기독교 신학자, 교회의 사역자, 특별히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 그런 자들에게 물어보면 평생을 기도만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한다. 주위를 둘러보라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과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기독교의 기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몰랐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분명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우주의 궁극실체인 하나님과의 극적 만남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40일 새벽 작정기도, 산상기도, 혹은 수십 년의 기도 수행을 거쳐 그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체험이 아니다. 신자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임재 아래 시작하기에 실은 별다른 만남이 필요 없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만나거나 이전보다 더 충만하고 풍성한 교제가 이뤄지기에 극적인 것이지 첫 대면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식이 며칠간 부모에게 마음 상한 일이 있었지만 순전히 자신의 오해였음을 알고 부모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을 때에 이제껏 없었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깊은 사랑의 감정의 교차가 생기는 것과 같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यो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다”(마 16:16~19). 예수님은 천국열쇠를 주러 오셨다. 베드로더러 너도 나처럼 노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깨우침을 얻어 천국 열쇠를 획득하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열쇠란 그 집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천국 열쇠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만이 그 열쇠를 줄 수 있다. 그 열쇠는 물론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 신앙고백이다. 예수님 당신이 열쇠다. 기독교 신자의 기도는 따로 하나님을 불러 내리는 절차나 오랜 깨우침이 필요치 않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안에 임재한다. 아니 이미 임재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낸다.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므로 이 기도가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상달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다. 굳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기도 참선하여 성불(成佛)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부처님 당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새삼 부처가 되어야 하거나 부처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요 14:16)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에서 ‘또 다른’이란 의미는 ‘different(내용과 질이 전혀 다른)’라는 의미의 ‘다른’이 아니고 ‘another(내용과 질에서 100% 동일하지만 개체만 다른 것)’라는 의미의 ‘다른’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성령을 동일시(identification)한 것이다. 예수님은 따로 성령체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 체험을 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된다. 기독교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듯 도를 깨우쳐서 성인(聖人)이 되거나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 성불하는 체험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 도저히 가까이 하고 메꿀 수 없는 간극(間隙)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자비만을 바라며 무릎 꿇게 만든다.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면 하게 될 일에 대해 설명한 그대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 16:8~11).

성령 체험을 한 자의 첫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 죄임을 깨닫는 것이다. 성령 체험이 살아 계신 우주의 궁극실체와의 대면의 경험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그 실체와 일체화되는 것이 아니다. 도저히 인간은 성불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불가능하기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이다. 

‘자비’ - 어머니의 태(胎)처럼(womb-likeness)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의 공통된 화두(話頭)는 관용과 자비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자. 자비와 관용이 인류의 문제에 대한 이제껏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해결책인가? 지금까지의 다른 노력들이 전혀 힘도 발휘 못했기에 새 차원의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하는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고 능력 있는 해결책으로 검증된 것인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솔직한 대답은 ‘노’이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논의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금껏 했던 노력이 약하고 부족했거나 아니면 인간세상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강력해진 것인가? 둘 다 아니다. 인간의 갈등은 항상 같은 모습·같은 크기로 있어 왔다. 그에 따라 인간끼리 자비와 관용을 베푸자는 노력도 같은 모습·같은 크기로 있어 왔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 방법도 동일한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잘못 진단했거나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다.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라는 것이 잘못된 진단인가? 그 해결책이 자비와 관용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둘 다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 동안에는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노력과 힘이 모자랐으므로 더 성의껏 하면 되는가? 유사 이래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노력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과연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솔직히 어느 누가 ‘예스’라고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

아무리 이 문제를 토론해도 서로 더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결론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자비와 관용만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고급한 가치를 지닌 덕목이 없고 실제로 더 나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류 역사도 과거와 다름없이 새로운 갈등마다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다 실패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외쳐보지만 또 다



른 분열이 불거지는 악순환만 계속되지 않을까? 몇 천 몇 만 년 뒤에도 모든 지성인과 종교인의 공통된 화두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자’일 것이라면 궁극적인 문제는 혹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니 서로 사랑하자고 한다. 그런데도 또 서로 사랑을 못하니 다시 갈등이 생기면 평생 제자리에서 돌고 돌게 마련이다. 이 해묵은 인류의 문제를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식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지 않으려면 그 쳇바퀴에서 나오는 방법 말고는 없다.

모든 갈등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이 세속을 초월한 도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인간 공동체는 존속 발전해야 한다.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가 만약 자신이 아무리 돌아도 먹이를 따먹을 수 없는 쳇바퀴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계속 돌 리가 없다. 쳇바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도는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돌고 도는 것은 인간의 실패한 행동과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의 틀이다. 갈등을 사랑으로 치유하지는 해결책은 반드시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

지금까지 인류 유사 이래 예수를 제외한 모든 선각자·종교인·지성인이 제안했던 인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한 마디로 종합하면 이렇다.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모자랐던 것은 그 노력의 크기였다.” 그래서 항상 외치는 것이 자비와 관용을 서로 더 베풀자는 구호였다. 모든 시대마다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똑 같았지 21세기 인간의 지성이 깨어서 새롭게 제창한 것이 아니다. 20세기에는 “19세기보다는 더 사랑합시다.”였고, 19세기는 “18세기보다 더

사랑합니다.”였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토록 실패했다면 한 번쯤은 그 쳃바퀴에서 빠져 나와 고민을 해 봤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자비를 베풀자고 그렇게까지 외치고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면 우리에게 과연 자비를 베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심을 품어볼 만도 하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조차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혼동했던 것이다.

다람쥐가 왜 쳃바퀴를 도는가? 눈앞에 달려 있는 도토리를 먹고 싶은 열망이 있다. 또 평소 자기 달리기 실력으로 봐서 한숨에 도달할 거리밖에 안되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다람쥐는 자기가 쳃바퀴 위에 있다는 것도, 이전에 그렇게 노력했어도 실패했다는 것을 모른다. 노래실력이 형편없으면서 노래방 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다. 노래 부르고 싶은 열망이 있고 부를수록 더 잘 부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없던 노래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자는 마이크를 계속해서 놓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서로 사랑했고 조금만 더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할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사람들은 이주 뛰어난 다람쥐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능력이 뛰어나 먹이를 따먹었기에 자기가 깨우친 먹이 따먹는 방법을 다른 다람쥐들에게 가르쳐 주러 왔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자”라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이전의 선각자들이 다 말했고 실천해 보았던 것을 이전보다 더 큰 노력으로 해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쳇바퀴 속의 다람쥐더러 조금만 더 뛰면 먹이를 따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 셈이다. 예수가 안 깨닫고 안 가르쳐 주어도 누구나 알고 있던 방법이었다. 쳇바퀴 속에 있는 다람쥐 자신도 “조금만 더 뛰면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태여 선배 다람쥐가 가르쳐 줄 필요는 없다.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먹이를 달아준 주인이, 그것도 쳇바퀴에서 꺼내어 먹여 주는 수밖에 없다.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드는 대표적인 예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사건이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도 율법의 형식적 굴레를 벗기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안은 관용의 모범인 것 같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 온 군중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고 말하자 다들 슬금슬금 물러가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주었다. 그래서 “그렇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관용해야지.” 정도로 이해하고 치운다.

군중들은 사실은 여자를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여자는 따로 재판할 것도 없이 율법대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면 된다. 이 여자를 핑계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예수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평소의 가르침에 모순된다. 반대로 그냥 용서해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것이 된다. 어떡하든 예수님을

울무에 걸어보려는 심보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치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군중들이 여인을 용서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예수님 쪽으로 넘어 온 공을 군중 쪽으로 절묘하게 되돌려 넘겼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치라”는 것이 군중의 윤리·도덕적 죄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을 한 번 실천해보라”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말로는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자 하면서도 실제로 온전한 자비를 베푸는 적이 있더냐? 정말 사랑할 수 있었다면 이 여인을 나에게까지 데리고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희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혹은 사랑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는 데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율법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온전히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라는 뜻이었다.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분은 구세주 하나님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어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요 8:10)고 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지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스스로 죄 있음을 인정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 덤벼든 사람들이 도리어 정죄 받았고 현행범으로 잡혀 왔던 여인만 용서 받는 예상외의 결말이다.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피고석에 선 결정적인 죄인으로 용서받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죄목과 형량도 다 정해져 있었고 언제 벌을 받을지의 문제만 남았다. 그럼에도 형벌의 감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정죄할 수도 없었다.



그럴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 때문이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오직 수치와 두려움에 떨며 세상에서는 랍비라고 하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앞에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 몸과 영혼을 안고 엎드려 있었던 것뿐이다. 대신에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며 죄인을 돌로 치는 형벌을 가하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떠남으로써 정죄를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거나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7이나 70이라는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지만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한 것이었겠는가?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겠는가? 아니면 단순히 과장한 것뿐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는 인간의 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불가능해도 노력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기준에 합격할 자 아무도 없으니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우리를 꺼내 놓으려 쳇바퀴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다람쥐를 전부 다 쳇바퀴에서 꺼내 놓았던 것은 아니다. 무조건 관용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도록 놓아 둔 사람들도 있다. 흔히 생각하듯이 도덕적·종교적·사회적 위선자나, 관용을 못하는 자나, 기득권층이 아니다. 스스로 쳇바퀴에서도 얼마든지 먹이를 따 먹을 수 있다고 고집한 자들이다. 쳇바퀴에서 나오길 거절한 다람쥐는 억지로 꺼내지 않았다. 사람을 절대 인륜적·윤리적·종교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서처럼 스스로 당신 곁을 떠난 자는 구태여 붙들지 않았다.

밤중에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을 당한 이유도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고집한 까닭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구별했다. 그 구별의 기준은 오직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가 아닌가에 있었다.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온 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인정했는지, 자신이 다람쥐 쳇바퀴의 덫에 걸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쳇바퀴에서 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된 자를 꺼내주셨다.

자비와 관용은 말로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분명히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자인해야 한다.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비와 관용을 실천하지 못한다.

최근 하나님을 여성화시켜 무한한 자비와 관용만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조가 생겼다. 하나님의 자비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다. 무한한 자비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개구쟁이 아들이 무조건 받아주는 엄마만 찾는 이유는 잘못에 대한 벌을 받기 싫어서이지 엄마 사랑으로 자기를 고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정작 그럴 마음이 있는 자식이라면 먼저 아빠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



자를 죽이는 형벌로 대신하여 용서해주셨음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응석만 받아주는 엄마 같은 자비란 뜻이 아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을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자비가 아니다. 밖에서 실컷 장난치고 놀다 들어와선 손발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바로 침대에 가서 자겠다면 제대로 된 아이인가? 또 그것을 가만 두고 보는 엄마는? 쳇바퀴에서 나오는 것이 귀찮아 안 나오겠다 고집하는 다람쥐, 얼마든지 먹이를 따먹을 수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다람쥐, 문제는 쳇바퀴가 아니라 자기 노력이 부족하다는 다람쥐, 쳇바퀴에 갇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다람쥐 모두를 가만 그대로 두는 엄마 다람쥐가 과연 자비한 다람쥐인가?

기독교는 교회의 담을 쌓아 종교 간의 장벽을 높이지 않는다. 우월성을 증명하거나, 종교 간의 경쟁을 유발하거나, 교세를 확장하거나, 우리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비와 관용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을 교리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쳇바퀴가 없다거나 쳇바퀴에 걸렸어도 얼마든지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쳇바퀴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차이뿐이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랑할 소원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이유다. 또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 일반인에게 비춰진 예수님

일반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종교 같아 보인다. 기독교는 모든 인류를 위한 종교다. 모든 인간이 쳇바퀴에 걸려 있다는 것이 그 출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예수님의 선포도 바로 그것이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오라고 했다. 그 대상에 일절 제한이 없었다. 한 가지 조건을 빼고는 말이다.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라는 조건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으랴? 그런데 문제는 그 짐이 무겁지 않다거나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께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주인이 쳇바퀴에서 꺼내 줘서 빠져 나온 다람쥐가 여전히 쳇바퀴 속에서 헤매고 있는 다람쥐를 볼 때 어떻게 하겠는가? “조금만 힘을 더 내야 해. 네가 노력하는 것도 가치가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 꺼내 주어서 이렇게 나와서 먹이를 먹고 있지만, 네가 네 노력으로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생각도 맞을 거야. 너도 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서로 간섭할 수 없지 않겠니. 서로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어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욕을 들어 먹더라도 “그 쳇바퀴 속에 있어서는 아무리 바퀴를 돌려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먹이를 먹을 수 없어. 누군가 밖에서 우리를 꺼내 주고 먹이를 따로 주어야 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하고 따라다니면서 전하지 않겠는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자비와 관용인가?

예수님은 밖에서 꺼내 준 사람이다. 그 안에서 자기 힘으로 먹이를 따낸 위대하고도 능력이 출중한 성자·스승·위인·종교의 창시자 다람쥐가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진정한 의미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꺼내 준 분, 사탄이 쳐놓은 쳇바퀴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그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라는 것이다. 이 고백은 쳇바퀴 밖에 나와 본 자만이 할 수 있다. 여전히 쳇바퀴 속에 있는 자는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스스로 판단한 예수를 바탕으로 교회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오해한다.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교리만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이 없다. 논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거나, 설명이 미흡하거나, 듣는 사람의 자질이 모자라는 것이다. 교리·전도자·피전도자 셋 중에 반드시 그 책임이 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를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고후 4:4)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선포한다. 피전도자가 복음을 거부한 책임 이전에 그에게 성령이 아직 간섭을 하지 않았고 사탄이 그를 미혹케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기에 사탄의 멍에가 완전히 벗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십시오.”라는 접하는 불신자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세상 어느 누구도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만큼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전제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와 2천 년 전에 죽은 로마의 한 청년 사형수와 무슨 연관이 있기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죄를 씻고 회개하는 데도 각자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

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원이란 인간이 반드시 건짐을 받아야 할 어떤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특정 종교를 믿어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은 나중 문제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를 지고 갈 수 없으므로 당연히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 구원이란 사건 전체를 볼 때 죄 사함이 우선이고 천국 가는 것은 그 결과다.

따라서 정작 따져야 할 것은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할 그 죄의 본질이다. 술 먹고 도박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과 원한을 품는 그런 것들이 죄인가?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그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치고 더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만 신경을 쏟으면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야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다. 혈육으로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스승 예수뿐이다.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죄들은 영어로 치면 범죄(crime)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sin)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에서 죄를 행동의 죄와 생각의 죄로 구분해 생각으로 짓는 죄를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뜻도 아니다. 생각도 우리가 사고 활동이라고 부르듯이 겉으로 드러나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뿐이지 일종의 행동이다. 그것 역시 범죄(犯罪)다.

기독교에서 죄(罪)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인간 속의 근본 원인 내지 잘못된 경향(傾向)을 죄라고 한다. 인간 속의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며 범죄 자체는 죄의 결과다.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향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더 선한 것을 내 스스로 찾겠다고 결심한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만들어 놓고 위반하니까 죄인이라 선고하고 낙원에서 쫓아내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어긴 범죄는 아담이 갖고 있던 근본적 죄의 결과다.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줄 알았는데 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저 과일만은 못 먹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했다. 그 후에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 후로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기 위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다. 자신의 삶을 오직 자기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한 것이 죄의 본질이다. 도박·마약·간음·거짓말·도둑·폭력·살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형태의 윤리적 죄는 근본적으로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고집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이상 범죄를 안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선행만 해야 하는가? 각 종교에서 정한 율법의 계명대로 지켜야 하는가? 혹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안 믿어지지만 억지로 믿는 척해야 하는가? 그 모두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죄이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생각을 바뀌먹고 그것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선하다, 선할 것이다, 선하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선하다고 하니깐 그렇게 믿어보자 등으로는 되지 않는다. 인간 쪽에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 쪽에선 그 완전한 사랑을 인간에게 보여줘 인간으로 믿어지게 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다 어느 쪽에 원인이 있었든지 간에 사랑하지 않나 보다고 오해하여 헤어진 연인들이 재결합하려면 서로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며 인간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심어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자기가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해주길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인간이 원해서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했다. 아무리 당신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었지만 강요당한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주길 원하는 뜻에서 선악과를 주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되 오직 자신의 사랑의 품 안에서 행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기를 원했다. 한번 돌아선 인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하나님은 창조 당시와 하나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



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인간이 아직 죄 중에 있어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다시 한번 창조 때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다.

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죄가 씻어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생각을 바꾸는 방법으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보였다. 비유하자면 상대의 사랑을 오해하여 토라진 연인에게 오해를 당한 연인이 찾아와 사랑한다는 말, 선물, 행동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안 믿으니까 “그럼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그래도 내 사랑을 계속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뜻이 십자가이다.

문제는 2천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믿게 할 재간이 없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마저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도덕적 범 죄를 저지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로마제국의 지배를 끝내고 유대 왕국을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메시아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십자가에 죽는 구세주는 이해되지 않았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후 고착된 인간의 생각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쉽게 바꾸지 못한다.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고 사탄의 노예다. 나쁜 것만 골라 하고 귀신이 들려 괴상야릇한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인·외면·저주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으로선 인간의 이 생각을 바꿀 특별한 방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을 보내어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 인간 스스로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가며 자기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더 키우며 깨우침이 늘어나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영혼을 만드신 분만이 새롭게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스스로 깨우치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 스스로 깨우쳐서는 영생을 절대 못 얻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셨다.

거듭남이 특별히 신비한 체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별로 선하지 않더라는 생각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고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바꿔 먹는 것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혼자 기도하고 명상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종교근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분의 인도와 섭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아무리 작은 일에서라도 절대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인간의 깨우침이 아무리 인격적·도덕적·종교적, 심지어 영적인 깊은 체험에 들어갔고 본인이 그로 인해 이전의 자기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결과가 예수는 스승일 뿐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우침도 거듭남도 아니다. 예수의 구원을 하나



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마저 자기가 통제하려 든 것이다. 인간의 부패된 영으로는 예수는 깨우침을 도와주는 스승이나 영적 순례의 친구로밖에 보지 못한다. 그것은 쳇바퀴 속의 깨우침이다. 쳇바퀴 안에서 깨닫는 깨우침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쳇바퀴의 회전을 더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거나, 그 보폭을 넓게 혹은 좁게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못 가진다. 쳇바퀴 속의 다람쥐는 절대 먹이를 따먹지 못한다. 간혹 바퀴의 속도에 쉽게 잘 적응하거나 스피드에 자신을 가지는 다람쥐들이 먹이가 입에 곧 닿을 것 같으니까 그런 대책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뿐이다. 

## 불신자들의 또 다른 양상들

1. 불신자들의 사고의 근본은 동일하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 준다는 기독교 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에 배울 점도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사고의 근본은 자기 길은 자기가 선택하므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죄도 자기가 책임져야 하며, 구원도 자기의 깨우침으로 얻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도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교리는 사람이 깨달아 자기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기대만큼 선택하지 않더라는 생각을 바꾸어 언제나 영원토록 선택하신 분이라고 고쳐먹지 않으면 절대 이해되지 않는다. 예수 십자가에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차후 문제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 십자가의 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바꾸려는 것이다. 대속의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이 지성과 사상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는 선한 생각 때문에 남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이 그 선한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도 부인하고, 성경 속의 예수마저 믿고 싶지 않으며, 심지어 자연인 예수야 있었거나 없었거나 역사 위에 환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격을 믿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의 선한 삶과 그에 따른 바른 가르침만 받아들이겠으며 십자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수 본인이 실제 누구인가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십자가의 교리를 믿는다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 구원을 위해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십자가에 완전히 다 나타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한 도덕적 가르침은 어린아이가 해도 영원히 바른말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예수가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사람이 인정하든 안하든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스도 위에 완전히 드러났다. 그 사랑이 한 개인의 실존적 믿음으로 승화되기 위해선 실제 체험에 따른 인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갈급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영원한 분이 된다. 모든 것을 자기 책임 하에 해석한 후에 믿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성경 특별히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감명 받은 부분이 어디인지에 따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가장 감명을 많이 받는 자가 그 한 부류다. 다른 부류는 로마서·갈라디아서·히브리서 같은 교리 서신서에 은혜를 받는 자가 다른 쪽에 해당된다.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르는데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의 차이이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죄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선하게 사는 삶을 가장 강도 높게 설파한 말씀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지금껏 어떤 선지자가 요구한 도덕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를 요구하고 있다. 형제를 바보라 욕을 해도 살인한 것이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을 대어라 등등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들이다.

그러나 산상수훈이 아무리 죄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기를 요구한다고 해서 죄 자체에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예수님은 심술궂게도(?) 인간이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 세상의 도덕규범이 아닌 하늘나라의 기준을 인간에게 들이미신 것이다.

간단한 예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를 들 수 있다. 현대인이 생각할 때에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이다. 이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것은 간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란 서로의 영혼과 육신이 자기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언약한 사이다.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

는 의도를 밝힌 음행 외는 그 관계를 절대 깰 수 없다. 따라서 음행하지 않은 상태에선 이혼증서를 주었어도 여전히 아내의 마음과 몸은 전 남편의 것이다. 또 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 이 정해준 본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산상수훈의 규범은 천국의 기준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산상수훈을 주신 예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의롭다 하며 율법을 준수한 자신들의 공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내 말을 듣고 판단해 보라는 뜻이다. 너희들의 눈이 실족케 하거든 그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가? 문자적으로 눈을 빼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쪽 눈이 없어질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는가? 눈을 빼지 않는 한 온전한 의를 실천할 자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가 과연 온전한가? 그래서 천국은 오직 자신의 그러지 못함을 인정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된다.

산상수훈에는 구원의 길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 인간의 도덕적 실행만으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산상수훈이 이제껏 이런 정도까지 고차원의 요구가 없었으니까 가장 감동적일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적어도 나같이 인격적·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에게나 적합한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내지 교만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자기 민족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또 인류 사상에 큰 족적을 남긴 간디라도 만약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설령 예수님과 닮은 사랑을 어느 정도 실천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참사랑을 받았다고는 제삼자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인간을 사랑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단순하게 무저항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 해선 안 된다. 엄밀히 따져서 무저항주의란 그 속에 가장 강력한 저항의 비수를 숨기고 있다. 무저항이란 모든 저항의 방법이 실패했을 때에 최후에 최강의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 뜻을 관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밥 굶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이다. 단식 스트라이크를 이겨내는 부모는 없다. 무엇이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군대에서조차 무저항으로 일관하면 고문관 취급하여 열외로 빼준다. 아무리 두들겨 패도 군말 없이 마음대로 때려 보라고 또 고개를 들이미는 자는 무서워진다.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혹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이 무저항주의일 수 있다. 물론 세상에서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면에선 다른 어떤 방법보다는 도덕적이라고 평가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장난감을 꼭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린 아이처럼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도 무저항주의는 얼마든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

예수님은 절대 단순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니다.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셨다. 주여 저들이 자기들 하는 짓을 모르니 사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셨다. 자기를 매단 유대인과 로마인도 포함해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자유자든 노예든 상관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 혼자만 그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제자들마저 그에게서 흠어졌고 심지어 가족마저 그를 외면했다.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마리아와 감상에 젖은 불쌍한 몇 여인을 빼고는 그의 뒤에

는 아무도 없었다. 전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과 죄악과 사탄 앞에 혈혈단신으로 맞섰다.

간디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무저항을 택했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인도 국민이 함께 편이 되어 동참하였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도독립이라는 자기들만의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당시 인도가 영국에 대항할 다른 현실적 수단이 없어 채택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저항이었다.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새 창조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3.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것과 다른 점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도고와 간구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일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나 며칠씩 작정기도를 할 때마저 무릎 꿇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가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겸비하게 무릎 꿇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다 듣고 계시다는 확고한 의식 하에 기도하기 때문에 몸의 자세와 상관없이 마음은 이미 무릎 꿇게 된다. 기도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에 무릎 꿇는 태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구도(求道) 내지 강신(降神)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 자기 구하는 것을 곧바로 아뢰 수 있다. 그러나 마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기계적 주문(呪文)이나 형식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다.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는 뜻이다.

기독교인이 진정 그 마음에 파고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할 때뿐이다. 정말 미약한 일개 피조물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신자 속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신다. 기도자가 좌선(坐禪) 혹은 행선(行禪) 하든 자신의 더러운 본성과 정욕의 찌꺼기가 속에 아직 남아 있거나 온갖 세상의 잡념과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방해만 받는다면 온전한 기도가 아니며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간혹 예수님과 부처님은 한 형제라고 말하는 불교인이 있다. 종교인들이 예수를 각자의 실존적 정황에 따라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찾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경시해선 그분을 절대로 바로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그분이 인간이 각자가 깨닫는 것 몇 가지만 고치면 쓸 만한 존재라고 보셨는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소경으로 보셨는지 여부다. 그것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다. 쳇바퀴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쳇바퀴 밖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상의 폭이 좁거나 생각이 편협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덤빈다는 것이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풍성한 체험이나 사상적 깊음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체험과 깨달음마저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선택과 책임 하에 하였고 그 결과와 영향도 오직 자기 지정의로만 판단했

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간섭한 체험이 없다. 매일 자신의 선한 의지와 품성을 가꾸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을 뿐이다. 매순간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리며 살았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모를 리 없다. 

## 참다운 길벗

지나간 교회는 언제나 ‘인간인 스승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를 믿느냐’가 갈등하는 역사였다. 아무리 시대마다 새롭고 그럴싸한 신학 이론과 사조가 대두되어도 그 내용의 근본을 따지면 이 둘 중 하나로 귀결된다. 여기서 해묵은 이 논쟁을 재개할 의도는 없다. 다만 사람들이 자칫 간과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면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로 받아들이면 그를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예수를 따르는 데 힘쓰는 자들이 예수를 길벗으로 모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그분을 참된 길벗으로 모실 수 있다.

어떤 설교자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종교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가 하나로 그들의 모토는 ‘하라(do)’는 것인 데 반해, 기독교의 복음은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done)’는 것이다.<sup>8)</sup>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보면 전부

---

8) 이동원 목사 저작 ‘로마가 들어야 했던 복음’ - 오래 전에 읽어서 내용만 기억하고 있음,



다 ‘길을 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하라’와 ‘이루었다’는 두 입장 차이가 길을 걸어가는 태도는 물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에서도 두 제자로 나뉜다.

우선 ‘하라’는 입장을 택한 자들은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예수의 제자라고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와는 전혀 판관이다. 그들은 종교적 수행을 통해 깨우치고 도달할 도착점을 예수님이 달성했던 수준으로 잡는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체험을 하였다고 이해한다. 그 때에 궁극적 실체와 대면했다고 보고 자기들도 동일한 체험을 하길 소원한다. 그럼으로써 완전히 남을 위하는 존재로 변하고 예수님이 실천한 자비를 자기들도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원하는 자는 그들의 전기·언행록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연구·분석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한다. 어디까지나 글과 자료로 표현된 상태의 간디나 슈바이처를 만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힘은 간디나 슈바이처가 아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길벗’은 기록된 자료일 뿐이다. 그렇다고 “간디 위인전이 내 길벗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간디를 내 삶의 평생의 벗으로 삼고 그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길벗’이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런 경우다. 기록된 자료인 성경을 연구 분석하여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서뿐이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영적 실체가 아니라 종이에 기록된 하나의 도덕적·종교적 매뉴얼에 불과하다.

‘벗’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를 두고 일방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벗이 나를 찾아와 서로 대화하며 위로와 도전을 주어야



한다. 위험과 시련을 막아주고 죄에 빠지려는 것도 건져주고 넘어졌을 때 손잡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 매뉴얼을 보고 독학하여 마음속으로 스스로 깨우치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길벗’의 사이가 되지 못한다. 실제로 살아 있는 실체가 나를 찾아와 함께 동행 해주어야 한다. 성령 체험을 해 예수가 했던 극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내가 도달해야 할 도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 성도가 길을 떠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매일 궁극적인 실체와의 만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매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다.

모든 개신교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세례 받는 것에 둔다. 종교적 요식 행위나 절차로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이뤄졌다(done)’는 것을 확신하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절차다. 세례 절차 자체로 성령을 받거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받아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공개적으로 그 중생의 체험을 증거하는 절차다. 나의 개인적 길벗이신 예수님의 인도에 내 평생을 완전히 내어드리겠다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의식이다. 이제 자신이 ‘길을 감’의 출발점에 섰으며 앞으로 가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견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막 신자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세례가 예수를 스승으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겐 평생 걸어감의 종착점이다. 신자가 세례

---

9)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와는 다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부패했던 모든 피조세계마저 새롭게 변화한다는 종말론적인 의미지만, 오 박사의 책에서 궁극적 깨우침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했기에 이해하기 쉽게 그 표현을 그대로 전용한 것이다.



받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체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지 단순히 예수를 따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간혹 이런 체험의 확신 없이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기에 교회는 그 확신여부를 세례 문답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례 받는 당사자가 확신이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면 가려낼 재간은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자가 거듭남이 없어도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교계의 지도자까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교회의 멤버는 되었어도 ‘이루었다’는 체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라’는 것이 그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썽은 오히려 ‘하라’를 목표로 삼아 열심히 선행을 하려는 그들에게서부터 발단되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인간 죄성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간섭 없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선행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내가 따라야 할 스승으로 삼겠다는 그 생각이 죄다. 자기 스스로 선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자기보다 그런 노력을 덜하고 선행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참고 봐주지 못한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서로 잘 해보자고 열심을 내기 때문이다.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예수를 스승(길벗)으로 삼아, 더 큰 노력을 경주하여 예수님의 경지에 까지 이르겠다고 헌신하는 뜻이 아니다. 내가 걸어 왔던 길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모습으로 찾아와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셨다는 실토다. 그래서 지금껏 걸어왔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완전히 U-turn하여 새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이제 그 길을 감에 있어 예수님을 ‘길벗’으로 모신다는 헌신이다. 예수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

라 진정한 의미에서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동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동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세례의 참의미다.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성경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기도하며 성경을 볼 때에 예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말씀을 풀어 주면 신자의 가슴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진다. 필연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신자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된다.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손을 잡아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동행하면 도덕적·영적 성장도 자연히 이뤄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습시다’ 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신자가 매일 노력하고 책임질 부분은 ‘내가 깨닫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다. 오늘도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달라는 간구부터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살아 있는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것이 영적으로 미혹된 상태에서 분명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다. 목적지도 없이 떠난 것도 아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소가 애굽, 가나안, 하란 땅, 어디가 될지는 몰랐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본토·친척·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 하나님이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이미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본토·친척·아비 집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고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됨을 확실히 믿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졌던 과거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U-turn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이미 하나님과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일대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후에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의 출발이다. 믿음으로 궁극적인 변화에 도달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 출발이 아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라. 우리 같은 범인은 평생을 노력해도 간디나 슈바이처 수준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데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정작 간디나 슈바이처 본인들도 생을 마쳤을 때 과연 예수를 잘 따랐기에 궁극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준이 되었을까?

예수를 따름에 있어 가장 실천적인 모범을 보였고 ‘예수에 대한 전기’를 쓴 신학자이기도 한 슈바이처의 치료를 직접 받았던 환자들이 그를 너무나 차갑고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의 인격이 모자라고 도덕성이 달려서 그랬을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고 고상한 인품을 지녔던 그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는 변화되려고 힘껏 노력만 했지 실제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당하기 힘든 수고에 지친 모습이 자기 인격과 도덕성과 영성에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는 예수를 스승으로 따르려고 했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한 몸을 사리지 않고 죽기까지 헌

신한 한 인간의 정신적 승리를 보여주는 인류사의 기념비적 상징이 절대 아니다. 그 반대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기념비적 상징이다. 



## 5. 지금 여기에서의 Mission



### 철수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다니는 철수가 자기 학교가 최고이고 다른 학교는 삼류인 줄 믿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솔직히 실토했다간 자기 학교 아이들에게 혼날 수 있다. 우리 학교가 최고라는 기존 정체성을 유지해야지 잘못하면 죽도 밥도 되지 않지 않느냐고 우격다짐으로 야단맞을 수 있다. 철수의 고백은 자기 학교 실력을 다른 학교와 비교해 더 향상시키자는 건설적 의도일 수 있다. 또 다른 학교도 실력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너무나 타당한 논리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철수만 바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둘 수 없어서 철수는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자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 못 알아듣는 친구에게는 여전히 자기 학교가 최고라는 고집과 편견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되 스스로는 열심히 실력을 쌓는다.

기독교의 배타성 내지 편협성을 비유하려고 든 비유이지만 잘못된 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학교마다 전부

동일하고 실제 학생들의 평균수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교과내용에 학생 수준도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학교 측에서 자기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강요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 그런 사실을 학생들이 무식해서 몰랐다면 철수는 분명 선각자이고 그의 행동은 당연히 권장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분명한 사실을 지적한 그를 잘못이라고 꾸짖는 학생들이 나쁘다.

그런데 만약 철수가 영재들만 다니는 일류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학교가 최고라고 말한다면 틀린 것 하나 없으며 그 말을 듣는 자도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만이 진리라고 할 때에는 이 경우와도 다르다. 영재들만 다니는 일류초등학교라도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동일하고 학생 수준이 높고 교과 과정만 조금 앞선 것뿐이기 때문이다.

성적은 별로이고 학생들도 캉파에 가깝지만 특수 직업을 준비 훈련시키는 실업고등학교가 있다고 치자. 다른 학교와 상호 우월성이 비교되거나 비판받을 수 없다. 아예 배우는 것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대학교 입시 과목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 직업을 가지려면 누가 뭐래도 그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그 학교를 서울대 많이 들어가는 일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그런 비교로 그 학교를 멸시한들 그 학교 학생은 눈도 꿈쩍 안 하며 오히려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바보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고등학교와 같고 다른 모든 종교는 일반 인문학교와 같다는 것이 그나마 정확한 비유다. 만약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철수가 왜 다른 학교처럼 서울대학에 보내려고도 또 다른 학교와 비교하지도 않는지 따질 수 없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는 쓸쓸한 외침이다. 다른 학생이 잘못이 아니라 철수가 바보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깨우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것도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아야 관별이 난다고 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로 인한 성령의 간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절대자에 의한 타자구원과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기구원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직업 고등학교에서도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정해진 시간에 등교 하니까 같은 고등학교로 보이지만 실제 가르치는 내용과 졸업 후의 진로는 완전히 다른 것과 같다.

직업 고등학교는 입학해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만 하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전공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이 먼저야. 그것이 없으면 절대 회사에서 우리를 채용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든지 인문계 고등학교 식으로 개편해야 해!”라고 하고 우기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한 특정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 출생지와 부모와 환경에 따라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스페인에서 태어났으면 카톨릭, 독일에서는 루터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믿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커서 본인 스스로의 중생의 경험을 반드시 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게 한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성인이 되고 난 후 본인 스스로의 고백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라는 뜻인 셈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타의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더러 너희가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지 말라고 야단쳤다.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신화에도 착념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은 태어나면서 주위 여건상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끝까지 그것만 붙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구태여 종교를 바꿀 필요도 없고 특정 종교를 권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특정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이 그 직업고등학교 대신에 일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가려고 고집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계속해서 그쪽은 아니니 제발 이 학교로 와야 된다고 따라다니면서 말리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런 뜻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교, 로마의 황제 숭배 종교, 애굽의 태양 숭배, 헬라와 동방의 인본주의 사상 등 다른 종교들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몰랐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 한번도 종교간의 관용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대신에 예수님은 헬라인은 지혜를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나 당신은 하나님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다. 지혜의 헬라 사상으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교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오직 십자가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다. 그 사랑은 종교 간의 관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의적인 선택보다 환경에 의해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한 종교를 가지게 되니까 더더욱 참하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진도해야 한다. 이것은 차별주의 태도가 아니다. 민족마다 토착 종교가 있으니 서로 존경해주어야 하고 지역별 종교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차별 주의다. 하나님의 십자가 참 사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받아 누리도록 해주어야 한다.



## 어느 신학자의 선교관

현대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로 이구동성으로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정통 복음주의 개신교가 처한 위치는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고립되어 가는 듯하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타종교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유독 개신교만은 이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항상 개신교가 제공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아직도 구시대적인 배타성과 편협성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는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타종교와 그 종교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선교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배타주의에서

타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대할 때 친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듯한 느낌을 종종 가진다. 또 전도를 받다 보면 기독교만이 빛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는 어둠이라고 생각되어지기까지 한다. 이는 기독교 전도자가 교리를 너무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또 전하는 태도도 무 자르듯 하는 데서 오는 오해다. 나는 영적으로 똑똑하고 수준이 높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교리를 알아차렸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차리느냐는 뉴앙스가 은연중에 배어 나오기도 한다. 전도 대상자로선 마치 자신이 아주 중병에 걸린 환자로 앞뒤했을 전혀 분간 못하는 병신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든다.

종교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므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기는 약점과 허물이 많아 고칠 것이 많은 죄인으로 생각하는 입장과 나는 핸디캡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약점이나 핸디캡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노래실력이 없는 음치는 약점이다. 그러나 가요학원 에 가서 한 달간만 연습하면 만족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약점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또 노래 못 부르는 것이 망년회나 회식 장소에서 조금 불편할지언정 꼭 고통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노래를 못 부르면 춤을 잘 추든지 조크를 잘하면 된다. 다른 장점이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핸디캡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결정적·치명적이라 평생 동안 고통이 따른다. 나아질 가능성이 전무 하며 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나면서 병어리처럼 아무리 연습해도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핸디캡이다.

약점이란 평균 수준 미달이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외모·건강·학벌·집안·교양·재산 등등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5점 미만은 약점, 이상은 강점이 된다. 그러나 핸디캡은 점수로 따지면 0.00001도 줄 수 없다. 시력도 일단 희미하게라도 보이면 마이너스 2.0은 된다. 장님에겐 마이너스 점수조차 줄 수 없다. 그것이 핸디캡이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다. 우리더러 너희는 약점이 많아 죄를 지었으니 그 약점들을 고치고 죄를 씻어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소경이다. 너의 죄를 너 스스로 고쳐서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간의 도덕적·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전 인격·전 존재가 핸디캡의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성경에서 기독교 전도의 성격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18절). 알기 쉽게 말해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뜻이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그 교리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껄뻐해서 지옥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한 것이다. 우리를 핸디캡으로 보신 것이다. 아무리 실수와 실패가 많아도 핸디캡을 죽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다.

내가 가진 약점들은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예수가 와서 왜 내 대신에 죽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예수를 죽여 놓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데도 구원해 준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핸디캡인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용서해주시겠다는 긍휼을 거절하니까 평생가도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핸디캡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 긍휼을 우습고 어리석게 본다.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는가?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는 것을 눈앞에 보고도 고집을 피웠다. 오늘날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천국 갈 자신이 있고 착한 사람만이 천국 가야 한다고 큰 소리 친다. 그러다 하나같이 죽기 직전에는 무너진다. “저 세상에 가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 어쩔 수 없이 참회한다.

이런 고집을 피우는 자를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 강제로 믿게 하려면 갑자기 말기 암에라도 걸리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불신자 모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연인 모두는 분명 핸디캡이다. 누가 자신을 병신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고집을 피우니까 성령으로 간섭하여 믿게 할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우리 영혼의 가장 킁킁하고 부끄러운 구석에 한 줄기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뚫고 들어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인간들은 자기의 헛된 고집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핸디캡임을 고백하게 된다.

기독교에서 볼 때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아직 비춰지지 않은 암흑 속에 있다. 의사와 빛은 예수님이다. 기독교인 전도자가 아니다. 가끔 교인 중에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기 몇몇 약점을 고치는 것이 믿음의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했더니 고쳐졌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 결과 자기들이 타종교인들의 의사 내지 빛의 역할을 감히 감당하겠다고 나선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 주신 것은 모르고 자기들 실력인 줄 안다.

나면서 앓은뱅이인 사람이 자신은 핸디캡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걸으려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 않겠는가? 주위 사람이 “그래, 너도 네 나름대로 네 생각이 있고 네 훈련방식이 있을 테니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휠체어뿐이다. 죽기 살기로 예수 십자가라는 휠체어를 핸디캡에게 갖다 주려는 것이 배타주의라면,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핸



디캡을 가만 두고 보는 것은 자비주의란 말인가?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배타적이라고 비난할 계제가 아니다. 차라리 “그래 너희나 병신 노릇해라. 우리는 병신이 아니다. 왜 우리더러 병신이라고 하는가? 별 미친놈들 다 봤네.”라고 해야 정확한 비평이다. 기독교인들도 분명 나면서 병신이었다. 예수 믿었다고 그 핸디캡이 기적적으로 온전한 정상이 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핸디캡인데 예수 십자가로 만들어진 휠체어를 매일 타고 다니는 병신일 뿐이다. 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병신이 아직 휠체어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에게 휠체어를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이다.

기독교 외부에서 기독교 전도가 마치 의사가 환자 대하듯 한다고 느낀 것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환자라는 뜻에서는 정당하게 전도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과 이웃을 약점과 허물을 지닌 것까지는 몰라도 휠체어까지 필요한 핸디캡으로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원화 사회에서 기독교 선교관이 바로 서려면 다른 종교를 더 깊이 연구해서 타종교인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벌거벗겨 참된 실체를 보려고 더 노력해야 한다. 인간 세상은 허물 많은 약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아예 기지도 걷지도 못하는 영적 병신만 모인 곳이다.



## 다원주의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각기 그 가르치는바 내용도 대부분 옳고 심오하다. 또 각 종교마다 비록 그것이 궁극적인 실재와의 만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신비스러움의 경지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도 인간이 당면한 여러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쉽다. 또 종교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를 금과옥조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 늙은이보다 더한 것이 예수쟁이들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서 버리면 배터리가 나갔는지 엔진 결함이 있는지 변속기가 고장 났는지 등등을 살펴야 하는 것과 같다. 모든 종교인들이 인간 세상에 갈등과 죄악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왜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하면 인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각 종교의 분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종교적 깨우침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숙명에 무조건 복종하지 못해서, 사회와 환경이 잘못되어서,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이웃에 자비를 베풀지 못해서, 사탄과 귀신이 인간 세상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실재를 만나지 못해서, 인간이 서로 더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해서, 신에게 제대로 된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해서 등등 유사 이래로 수도 없는 원인들이 검토되어 왔다.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종교들이 생겨났다. 그 분석된 원인들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그 제시된 해결책도 다 일리가 있었다. 종교 간에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다른 종교의 생각도 함께 받아들이고 존경해주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인간이 잘되자고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그 오랜 갈등과 반목의 세월을 거쳐 모든 종교인들이 이룩한 합의(consensus)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만병통치약(?)이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그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타종교에서 기독교를 볼 때에는 묵상과 절대자에 대한 순종과 성령체험과 이웃사랑 등 자신들이 제시한 해결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도 자기들만 옳다고 한다. 다른 종교로 ‘넘어가 봄(passing over)’과 ‘되돌아옴(coming back)’이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에게만 불가능한가?

기독교는 인간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모든 종교와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죄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죄를 없애야 하고 죄인이 원인이라면 죄인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원인과 해결책은 모두 죄에 관한 것이다. 죄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참선으로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절대자에게 순종을 못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못 가진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탄에 넘어가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지역별·시대별·인종별·문화별로 다양하니까 죄의 해결책인 종교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진다. 그러니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종교끼리 협력하면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한국



인에게 맞는 단군교를 믿든지, 예수님을 한얼님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위에 열거된 죄들이 인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구원 교리 상 그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구원 받지 못하는 까닭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윤리적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은 것 등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전 존재가 문제였다. 인간이 범하는 과실과 잘못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다. 원인이 다르게 분석되었으니 해결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11)고 했다. 예수님은 기존의 형식적 고정적인 유대 종교의 결례를 개혁하여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도 된다는 정도를 가르치려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쑥이 예수님 고유의 ‘뒤집어엮는 지혜(subversive)’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마 15:19, 20)고 부연 설명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다는 뜻이다. 인간과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기독교는 공장에서 출고할 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여긴다. 반면에 바퀴가 평행을 이루지 않아, 과속을 하고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서, 엔진 오일을 제때 갈지 않아서 엔진에 무리가 갔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종교의 해석



이다. 차를 새 차로 갈아야 한다는 사람과 수리해서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다.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는 차는 다른 부분을 보강해야 일시적 효과만 얻지 얼마 못 가 차는 완전히 서게 마련이다. 자동차가 좀 낡았지만 그래도 수리해서 충분히 새 차나 다름없이 된다면 브레이크 전문점·타이어 전문점·튠업 전문점 등이 서로 협력하여서 고치면 된다.

이처럼 인간이 겪는 문제를 몇 가지만 수리하면 된다고 진단한 종교인들끼리는 분명히 협력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새 차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기독교인들로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결국 또 실패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협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협력하기 싫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새 차로 바꾸려면 수리점에 가선 안 된다. 차를 만드는 공장에 가야 한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 된 인간이 문제라면 인간을 만든 분만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둬나게 해주지 않고는 절대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종교끼리 화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급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는 죄인이라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더러 죄인을 고쳐달라고 그분 앞에 겸손히 바쳐 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완악하고도 교만하게 스스로 진단한 몇 가지 죄를 뜯어 고치겠다고 덤빈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맞고 타당해 보이는 이유는 그 원인과 해결책이 분명히 인간이 눈으로 보고 지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손을 뻗치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것 같은 해결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실체(Reality)가 아니다. 사물의 실체를 본다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통해 무아(無我)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떤 신비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아직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본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또한 죄인으로 본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도 또한 똑 같은 죄인으로 본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공훈이 필요하지 않은 자 하나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고 본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과의 차이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훈만이 인간의 살길이라고 알게 되어 그 공훈만을 갈급해하는 죄인과, 아직까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죄인의 차이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차이가 분명하다. 종교적 개념과 지식을 서로 넘나들며 공유할 수 있는 다원주의로 기독교 선교관이 변할 수 없고 변할 필요도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모든 인간이 어느 땅 끝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훈만을 갈급해하는 길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선교관이다.



## 지구적 책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노아홍수 이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해 한 가지를 약속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창 9:11). 심판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물로 하는 심판이 없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고 예언한다. 물의 심판 대신에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과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최근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혹시 태양열에 의한 생태계가 멸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어쨌든 ‘생태계와 인간의 안녕’을 보존·증진하는 것은 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정말 종교인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게 요청된다. 또 그 노력의 일환으로 1993년 시카고의 세계종교 박람회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인 ‘지구윤리’ 장정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해와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지구윤리 장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인간더러 절대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라고 하지 않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당연히 환경이 부패되지 않아야 한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제국주의 이념으로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상태를 잘 연구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도록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인간더러 대신하라고 위임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다.

인간끼리 서로 정복하라는 언급은 없었다. “다스릴 대상”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었다. 그것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정복할 대상’은 ‘땅’이었다. 움직이는 생물은 다스려야 했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땅은 정복해야 했다. 움직이는 상대를 정복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는 땅은 다스려야 한다고 이해하는 우리 통념과는 반대다.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도 침략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잘 개간하여 다른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뜻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정복과 다스림의 관계는 전혀 없었다. 인간을 제외한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까닭은 오직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만이 인간끼리 다룰 필요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며 인류와 지구의 안녕이 보존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류는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가 싫어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자기의 안녕을 도모했다. 남이 이미 잘 다스리고 정복해 놓은 것을 무력으로 공짜로 가로채기로 한 것이다. 친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원조였다. 그 후예들의 족보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창 4:19, 23). 라멕이란 이름의 뜻은 ‘힘센 자’이다.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은 자기 욕심대로 남의 여자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살인자 가인을 닮아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놀랍게도 가인 계보의 최악의 행적을 기술하면서 “가인이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나 나가”(창4:16) 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제외시킨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영혼의 안식은 가져오지 못했다. 자기 파괴적인 전쟁무기와 퇴폐적인 산업의 발달만 수반되었다. 인간에게 위임된 아름다운 자연과 다른 피조물을 함께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 제 욕심대로 자연을 지배하여 생긴 필연적 결과다.

지구적 책임에 있어서 모든 인간과 종교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책임 또한 무한하다. 서로간의 배타성이나 편협성이 작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지구윤리 장정을 채택해 놓았다. 모든 종교가 이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새로운 장정이 사실은 구태여 필요 없다.

문제는 훨씬 다른 데 있다.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또 노력하지 않아 즉, 종교 간에 협력을 안 해서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간의 죄성을 없애자면 영혼이 거듭나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길 외는 없다.

어떤 공동체든 궁극적인 목표는 그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가정·친목회·학교·회사·교회·종교·나라·민족 나아가 전 지구적 공동체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일반인이나 다른 종교의 목표는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만 보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 공동체의 목표는 다르다. 공동체를 성결하게 보존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인간끼리 협력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을 이루자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간섭으로 그것을 이루자는 것의 차이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만이 인류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의미와 가치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분을 떠나서는 공동체가 아무리 겉으로 문제가 없고 안녕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발전이 아니라 거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역사 또한 증명하고 있다.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로마제국, 가깝게는 나치 독일, 공산주의 제국들 하나님을 부인한 곳에는 반드시 죄악이 넘쳤고 또 역사의 심판의 있었다. 그들만큼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이 역사상 완벽하게 보존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들이 자연을 살리고 지구를 멸망시키려 애를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인간이 공해를 조장하기에 지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공해가 발생하든 말든 내 속만 먼저 채우자는 욕심과 죄 때문에 망한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자기 영역과 소유만 지키려 싸운다.

종교다원주의를 지키고 타 종교를 인정해주자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옳은 것 같다. 지구적 책임도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나눠 지지는 윤리장정에 반기를 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것이기에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서로 침해하지 말자는 차원 이면에 각 종교가 가지는 고유의 영역과 소유를 보존 내지 지키자는 싸움일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인종마다 문화마다 고유의 종교가 존속되고 발전되어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신념을 가진 다원주의자들이 지구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자기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는가? 결코 아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은 항상 자기 나라와 민족과 문화의 이익이 먼저였다. 종교도 그 일에 앞장섰지 반대한 적이 거의 없었다. 간혹 반대한 측이 있었어도 항상 소수로 몰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기독교 체계도 예외가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잘못을 가장 많이 저지른 측이었다.

인간은 눈앞에 멸망이 닥쳐와야만 마지못해 고유의 민족·나라·문화·사상·종교를 포기할 것이다. 어쩌면 막상 멸망이 닥치면 더 자기 것 챙기기 바빠서 서로 협력할 시간과 여유가 없을지 모른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윤리장정 안에서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끼리 협력으로 단지 보존 발전시키려는 것보다 우선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고는 인류와 지구의 안녕이 절대 유지 보존될 수 없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며 각자가 자기 고유 영역만을 고집하는데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저 무망할 따름이다. 노력도 안해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 거꾸로 떠도 자기 것만 챙기는 인간들이 변하지 않고선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이 먼저 거듭나라고 거듭거듭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가망이 없을 줄 알면서도 그 영원하신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집 나간 탕자 아들을 문밖에 나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뤄져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이 완성될 것이다. 지구적 책임을 인간은 자각은 할 수 있어도 완수하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특별히 지구가 멸망으로 치닫는 징조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의 기독교의 지구적 선교 책임이 생태계와 인간의 안녕을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데 있지 않다. 종교 간의 포용과 대화가 선결



과제가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모든 인간에게 선포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한 종교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종교간에 대화해야 한다. 이것 또한 인간이 먼저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 교회는 강아지 훈련소가 아니다

한국이나 미국 이민사회에 교회가 새로 개척되면 사람들이 일단 인상부터 쓴다. 서울만 해도 다방 숫자보다 많았던 것이 교회인데 또 생기나 싶어 짜증부터 날 수도 있다. 그런데 교회가 많으면 부끄러운가? 교회가 자주 생기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남들 눈에는 비록 강아지 훈련하는 것같이 보일지 몰라도 교회마다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면에 심지어 교인들마저 먼저 부끄럼을 느끼니 참 큰일이다.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숫자적인 성장만 고집하고, 영적 성장을 도외시하고, 편협한 사고를 강요하며, 신자를 교회 안에만 묶어 두려는 교회라면 차라리 안 생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시골 장터가 없어지고 백화점이 들어섰고, 유랑극단이 자취를 감춘 대신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바꿨었는데 아직도 교회만 옛날 관행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심이 갈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장터와 유랑극단이 없어졌을망정 서로 모여 장사하는 것과 활동사진을 보고 즐기는 일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되었다. 장터와 유랑극단이 하는 일과 그 일의 목적과 가치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없어진 것은 원시적인 시설과 소규모 거래량과 비정기적 일정뿐이다. 오히려 상설 대형 매장이 생겨 매일이 장터요, 곳곳에 유랑하지 않는 극장이 더 많이 생겼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하는 일과 그 목적이 올바르게 살아 있으면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대형이든 소형이든 하등 문제될 것 없다. 교회는 최신 사상과 조류를 가르치고 도덕적 훈련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대형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숫자적으로 꼭 성장해야 할 필요도 없다.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훑쳐 가거나, 잘 믿으면 잘살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거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인을 길러 내거나, 구원받은 내 편 받지 못하는 내 편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일들은 교회 소명과 아무 연관이 없다. 교회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실현토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단 한 명의 교인도 교회다. 그런 뜻으로 모인 수십만 명의 조직체도 교회다.

그래서 교회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열 명에 제사장 족속 레위인 한 명이 있었듯이, 열 명 혹은 열 가정에 목사 한 명이 있을 나쁠 것이 전혀 없다. 교회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을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집에 혼자 남아 있지 않는다. 당연히 모여서 힘을 합친다. 가시적인 조직체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시골 장터가 백화점으로 전환된 것같이, 종탑 달린 작은 시골 예배당이

서점과 카페와 체육관까지 갖춘 대형교회로 전환할 수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 가치가 살아 있다면 말이다.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미국 내 개신교단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놓치고 있는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복음이 부인되는 교단은 감소하고 있고 그 복음을 강조하는 교단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전통복음이 부인되는 교단일수록 내용이 없어지니 형식을 자유롭게 하고 오랜 관행을 없애는 데만 교회 개혁의 초점을 둔다. 결만 치장하는 그런 교회는 신자들이 먼저 안다. 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가 절대 아니다. 극장 시설은 좋은데 걸려 있는 프로가 삼류 신파극이면 그 극장에는 절대 손님이 몰리지 않는 것과 같다.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된 것이 예수가 틀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서가 아니다. 구세주 예수가 부인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빠져 나간 것이다. 

## 하루가이지 진리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판국인데도 아직도 일반인들은 마치 기독교와 예수님과 성경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만 찾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적거나 불쌍해 보이는 교회에만 계신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을 찾고 있다.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이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



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음을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확신하는 자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과 영혼으로 무릎을 꿇는 자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제외한 채 진리를 찾으려 한다. 인류 모두가 진리를 찾아가는 데 길벗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길벗 정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제요 자매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절대적 진리가 모든 인류 앞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 더 이상 찾을 진리가 없다. 십자가는 기독교만 독점하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자고 권유하고 있다. 기독교가 독점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더 차원이 높은 진리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흔히들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 어느 누구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 기독교 신자들이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고 비난한다. 진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모든 이가 진리를 알 수 없기에 기독교인도 정직하게 그 점을 인정하려고 다그친다. 이 모든 말은 따지고 보면 진리 그 자체를 부인하는 뜻이다. 진리란 본질상 반드시 절대성과 배타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야 함에도 진리의 상대성을 고집하는 꼴이다.

진리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한다.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반발한다. 인간이 알 수 있든 없던 진리의 존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치원생이

수확 방정식을 전혀 알 수 없어도 객관적 진리이듯이 말이다. 또 우주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몰라도 피안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 진리이듯이 말이다.

종교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의 경우에는 상대성이 절대로 개입하지 못한다. 책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100%의 확률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의 절대성 또한 100%의 확률로 보증된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도 100%의 절대적 진리이자 은혜다.

모두가 진리 앞에 겸허하여 서로 진리를 찾아감에 없어서는 안 될 길 벗이라고 여겨서 상대의 의견에 성실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는 어디까지나 학문적 탐구심과 도덕적 훈련에선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부인한 사람과 진리를 함께 탐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서로 싫고 미워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대화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인정하는 쪽에서만 진리를 함께 찾고 서로 나누는 일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 엄격히 따지면 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절대적 진리는 없다. 다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 중에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길벗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진리를 지지 보완해주는 동조자를 구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작업을 더 정밀히 전문적으로 행하는 셈이다.

기독교는 편을 가르지 않는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출발부터 아예 잘못된 교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어떤 교파도 진리를 독점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유물일 뿐이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도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만의 몫이고 그들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네 편 내 편을 나누지 말라고 죽지 않았는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죽지 않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3, 7, 10).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한쪽 곁에 제쳐두고는 절대 진리를 찾지 못한다. 독자 중에 또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아마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할 마음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 우리 모두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자. 평생을 바친 진리 탐구의 작업에 과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그럴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 조물주 수준으로만 그치는 하나님이 내 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진정한 절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신자 쪽에서 노력하여 찾아 알게 된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양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신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또 찾아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당신께서 십자가의 수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그분이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 한 열반

과 무아와 신비한 천상의 경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자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다. 다윗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숨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 139:1~6).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원불멸의 진리다.

방금 태어난 강아지는 주위에 얼마나 맹수들이 많은지 모르니 범이 무서운 줄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하룻강아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개는 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사 1:2, 3).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룻강아지만 진리가 무서운 줄 모른다. 

## 김치국- 누가 천당에 갈 수 있는가?

사람이 천당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한다. 분명히 와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여서, 또 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발견해, 마지막으로 자기가 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 사람도 세 번 놀란다. 와 있어선 안 될 사람이 와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와



있는 것에 놀랄 것이다.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거듭난 기독교인이 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 대신에 천국의 장엄한 광경에 놀랄 것이다. 지어낸 긴 했어도 이 예화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너무나 정확하고도 의미심장 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화의 핵심은 구원은 겉으로 선해 보이는 도덕적인 기준과는 상관 없이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 자신이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 대신에 자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갔다. 단순히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보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구원이 좌우된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는 문제로 귀결된다.

또 다른 숨은 뜻이 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대 일의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도 자신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 놀랐다. 틀림없이 와 있으리라 생각 한 사람이 없어서도 놀랐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다른 이의 구원에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 불쌍하고 미혹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로 떼쓰는 일 말고는 할 수 없다.

흔히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들로 비방한다. 신자는 뜨거운 열정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른 사람도 함께 천국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자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해줄 수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은 찾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바울처럼 하나님더러 그 사람을 찾아가 일대일로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에 젊은 학생들은 민주화를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반면에 보수주의 기독교 교단에 속한 학생들 일부는 데모보다 학교채플에 모여 기도만 했다. 필연적으로 동료 학생들로부터 비겁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기들만 천국 가려는 이기적인 신자로 비취졌다. 데모에 나선 자들에게는 독재정권과 그 위정자들은 오직 타도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채플에 모인 자들에게는 그들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어야 할 불쌍한 자들이었다. 데모하는 뜻은 자기들처럼 의롭고 선한 자만 천국 가야지 저런 나쁜 놈들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도하는 뜻은 독재자나 데모하는 자나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 가지 못하니 다 함께 가기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이미 천국 가는 것에 확신이 있기에 자기들이 천국 가는 문제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심지어 불신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한다. “강권적 역사”라는 말을 좀 과장해서 풀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의 사업이 부도가 나든지, 암 같은 불치병에 걸리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하더라도 목숨만은 살리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다. 불신자가 일부러 불행을 당하기를 바란다는 뜻은 전혀 없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그것 말고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해결책이 없으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해결책을 붙들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수 이후의 그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자는 뜻이다.



신자일수록 어려운 불신자를 찾아가 더 도와야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상대의 마음이 더 잘 열리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돕는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 학교를 짓고 의술을 베풀 것도 그런 뜻이었다. 당시로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춘 곳이 교회뿐이라 도맡아 해야 했지만 구제가 교회의 주 업무는 아니다. 이제 정부나 사회기관이 맡아 행하므로 교회는 더더욱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열심히 증거해야 한다.

잘 믿는 신자는 자기만 천국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았기에 전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이웃과 함께 천국 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남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전도한다. 교회 모여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만난 불신자 즉, 찾아가 도와주고 복음을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구 종말의 시기는 예수님조차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라고 했다. 간혹 천국 가기를 너무 소원하니까 미리 특정한 날을 정해 난리를 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이단이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 이단과 완전 불신자와 엄밀히 비교해 볼 때 과연 누가 천국을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가서 누가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 누가 놀랄 것인가? 단지 재림의 시기만 자의로 판단했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단이라면 어떠한가? 거기다 십자가 복음만이 천국의 길임을 확신한다면 구원의 가능성은 그 이단에게 크게 열려 있다. 반면에 불신자에게는 그 가능성은 제로다. 천국을 소원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 열쇠는 주어지지 않는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간혹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보일지라도 절대 잘못이 아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천국 자체를 믿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부인하는 자다. 천국을 아는데도 소망하지 않는 법은 없다.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천국은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적은 일에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단 그 맛을 본 자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역으로 그 통치를 맛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단지 이웃을 돕고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성령을 매개체로 하여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 원리로 작용하여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나라를 실현하는 첫 걸음은 독재자든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이든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재림을 소망하며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당신이 다스리는 이 땅의 천국이 너무 좋으니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중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니다.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떡 주는 이가 누구인지 몰라 떡을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



은 더더욱 소망하지 않는다. 십자가 예수 밖에 있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띄운 구경도 못하고 김칫국만 마신 셈이다. 

## 땅 끝까지?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사조다. 현실적으로 겉으로 보이고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도 분명 그렇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불만이 있다.

저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줄이면 자기와 다른 여러 견해와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차 지적인 대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이 알게끔 계시해 놓았다는 주장도 그 다원주의가 인정하는 타당한 다양성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원주의가 진정한 다원주의가 된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최대한 양보하여 무조건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원주의가 아니라 알파한 수준의 상대주의일 뿐이다. 나아가 자기들 스스로 상대주의에 불과함에도 다원주의라고 자처하는 잘못을 범할 뿐 아니라 다원주의라는 또 다른 독선을 하나 만들어 내는 꼴이다. 기독교만이 진리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합리적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 위에 군림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만이 어떤 시대·장소·문화·종교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하나님 제국주의’는 주장해도 기독교가 군림하지

는 ‘종교적 제국주의’는 주장하지 않는다. 비록 기독교 체계가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많았음은 솔직히 시인한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그 잘못에 대해 백배 사죄한다. 하지만 성경의 기독교와 골고다 언덕에 나타나셔서 인류역사에 간섭하신 예수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교세의 확장이나 종교적인 경쟁이나 문화적 충돌을 유발할 생각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간다.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전 9:19, 22, 23)고 한 고백처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있다. 중풍 병자 하인의 병을 고침 받은 로마인 백부장과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 보니게 여인인데 둘 다 이방인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여행할 때도 그 지역을 둘러서 갔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요4:3, 4)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또 복음으로 초대하셨다. 누가 복음의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는 유대인들만의 스승이 아니었다. 모든 이방족속을 불쌍히 여긴 구세주임을 여실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당부하셨다. ‘땅끝’의 의미가 지역적 의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정복해서 군림하라는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은 당연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자 곧 성령이 임할 곳으로 복음의 발상지다. 온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 사는 지역, ‘땅 끝’은 완전한 이방지역이란 뜻이다. 지리적인 구분보다는 인종적 구분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어떤 인종이든지 찾아가라는 말이다. 타종교 위에 군림하려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한 제국의 울타리 안에 공존했다. 다원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미국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였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세금을 꼬박 내면서 반역할 생각만 먹지 않으면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관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그때에도 항상 말썽은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천하를 소요케 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타종교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연히 이방종교와의 충돌이 생기게 되었고 유대교로부터의 첫 핍박도 필연적이었다.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자기들 교세의 위축에 당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 협박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하니까 다시 붙들어나 문초를 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 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 하니라 하더라”(행 4:28~32).


사도들의 대답은 천하를 소요케 하거나, 예수 죽인 것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거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교세를 확장하거나, 종교 간의 충돌을 야기하려고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구세주 되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성령의 권능을 입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했다.

사도들의 항변은 유대교 지도층들의 심기만 돌우는 결과를 낳았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에는 도저히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참다운 다원주의자가 바로 이때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간 밖으로 나가게 하고…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행 5:33, 34, 38).

가말리엘의 뜻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태여 인간이 시비 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라면 복음대로 될 것이지만, 사기꾼들이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원주의의 입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원주의자들이 진정한 다원주의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인정



할 필요는 없다. 가말리엘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열어 놓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보다 본질적으로 그 입장에 동참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원성을 인정하지만 기독교만은 절대성을 주장한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면 최소한 가말리엘처럼 기독교를 가만히 버려두어야 진정한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기독교인은 인간의 다양성은 한없이 인정하되 하나님의 절대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갖 다양성을 인정하되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 

## 선한 사마리아인

하반신 불수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유학생을 필자의 집에 한 3개월간 유하도록 해준 적이 있다. 핸디캡 전용 학생 아파트에 공실이 생길 때까지 마땅히 갈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 일로 나름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도덕적 자부심도 어느 정도 가졌다. 그런데 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할 때마다 이 학생이 국(soup)을 통 먹지 않았다. 혹시 국을 좋아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씩 웃었다. 그런가보다 하고 잊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학생의 실상을 알고 본즉 하반신 마비라 소변 조절을 제대로 못해 고무호스를 오줌보에 항상 끼우고 플라스틱 주머니를 요강처럼 허벅지에 차고 다녔다. 국같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온다. 그럼 그 오줌보 처리가 여간 귀찮지 않아 국을 좋아하지만 일부러 안 먹는다는 것을 학생의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그 동안 핸디캡의 고통을 남들보다는 잘 알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 도덕적 교만과 영적 사치에 불과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며 선행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난 후 필자는 중병으로 1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으로 계속 고통을 하고 있다. 일종의 핸디캡을 갖게 된 것이다. 하루 24시간 내내 힘들며 평생을 두고도 나아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는 또 다른 각도로 그 휠체어의 학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겨우 이 정도로 이런 고통을 하는데 그는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전에는 그의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도와주는 차원에 불과했다. 내 자신이 핸디캡을 갖게 된 후에는 가슴으로 그의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 왔다. 그의 고통이 진정으로 나의 고통이 되었다.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정말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는 말로는 쉽다. 또 그 일은 종교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참다운 이웃이 되기 힘들다. 동일한 고통을 체험하지 않고는 자칫하면 도덕적 교만이요 영적 사치일 수 있다. 우리가 남의 고통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또 알량한 돈푼과 내가 가진 여유와 시간으로 도와주어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힘내세요.”라고 위로했다. 그 순간 속으로 “당신이 내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 부아 돈을 일이 있나?”라고 화가 치밀



어 오르며 주먹으로 한대 쥐어박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동일한 고통을 당한 자가 아니면 그 고통당한 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후 1:6). 암에 걸린 자만이 암 투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휠체어를 타는 자만이 휠체어를 타는 자를 이해할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암에 걸려야 하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한숨과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대신 감당하셨다.

이 대속의 교리는 머리로는 절대 믿지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사람과 세상의 위로와 도움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자만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천하에 흉악한 살인범 사형수라도 변하여 십자가 앞에 눈물을 뿌리며 엎드리게 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흉악한 죄를 이제 다 담당하겠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도 그 영혼이 고꾸라진다. 그래서 진정한 사마리아 인의 선교 사명이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영혼에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불화살을 그 심장에 꽂아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정부기관에서 하는 구제사업 말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구제와 사회사업의 80% 이상이 교회나 기독교 관련기관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그럼 기독교인은 전 세계인구의 80%를 넘게 차지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교세에 비취 다른 종교인에 비해 훨씬 많이 구제사업을 하며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자체 교회성장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는 일부다.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그 80%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다.

기독교 국가들이 서구 선진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서구 선진국에는 신자가 오히려 줄었음에도 그렇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듯이 돈이 많은 자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위로가 성령의 간섭으로 자신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져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참된 신자만이 할 수 있다.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자기들 능력으로는 힘에 부치는 일들을 지금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참 이상하지 않는가? 인간은 서로 사랑할 능력이 있어 선행한 자만이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자들보다 오히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 선행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들이 선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전부가 다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세계 도처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거듭난 자다. 바로 그것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이자 성령의 능력이다. 



## ‘지금 . 여기’에서의 mission - 하나님 나라의 건설

목사가 설교 중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하나 있다. 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고 전하는 것이다. 믿음을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큰 잘못이다.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얼마 전 미국의 US Airway라는 유수의 항공사가 9·11 테러 여파로 법원에 부도를 신청했다. 그런데 수많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기독교 신자는 열외로 치겠는가? 그렇지 않다. 가장 많은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고 정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부터 평소의 근무성적이나 업무처리 능력을 평가해 해고한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확률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다.

목사가 이런 유혹을 자주 받는 데는 목사 본인의 신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기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 먼저이고 큰지 구태여 따지자면 신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고쳐주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므로 목사 쪽이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뜻이다. 거창한 깨우침과 영적 성장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고의든 아니든 이용하려 든다. 기독교를 변명하고자 다른 종교를 함께 물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종교와 인종과 문화와 나라와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 자기만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유익만 채우려는 바로 이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았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가 그 첫째 계명이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가 둘째 계명이다. 우상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철로 부어 만든 어떤 형상만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에 경배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상의 정의(definition)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외에 스스로 만든 어떤 것’이 된다.

따라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한다. 자기만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자기 의지와 능력”이라는 신을 자신 안에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앉았다. 스스로 자신 안에 자기가 신이 된 것이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땅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왕국이다. 설령 그 왕국이 아무리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원리가 작용하더라도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을 유일한 절대자로 모시지 않는 한 우상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바로 이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길뿐이다. 기독교의 선교목표는 본질상 ‘교회중심주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주의’일 뿐이다.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일 없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종교끼리 협력하고 합쳐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어느 계명이오니이까”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반 4계명을 제외하고 인간관계를 규정한 후반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은 그 계명들을 평소에 잘 지키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대답했다.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 이 일 후에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다소 과장이 섞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다.

그 청년은 자기 말대로 계명을 잘 지켰을 것이다. 부자인지라 살인·도둑질·거짓 증거할 이유가 없다. 영생을 소망하는 심성을 가진 자라 간음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며 효도와 이웃 사랑도 열심히 했을 것이다. 인격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사람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구제에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가? 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그 청년은 왜 실망

하며 돌아갔는가? 천국 가려면 재산을 몽땅 팔아 교회에 헌납하거나 이웃을 도와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는 것이 단순히 구제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너를 지켜주고 이 땅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너의 재산인가 하나님인가? 너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는가? 네가 선행을 하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네가 가진 여유 때문이지 않는가? 너의 그 여유가 없어져도 과연 계명들을 지켜 영생을 소유하길 소원하고 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는가? 계명을 지킨 것이 너의 선한 본성인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종교적 의무감인가, 영생을 소원하는 열망 때문인가? 너의 소유를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무엇을 행하면 천국을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무엇을 행한다고 천국을 갈 줄 아는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함부로 선을 논할 수 있는가? 등등의 많은 질문을 함유하고 있다.

초점은 부자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선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데 있지 않다. 청년이 선한 일을 해야만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해 준 것이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이 베푸는 선은 온전하지 않으며 한 선이 아니며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면 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흠족하지 않는 선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재산이 자기 삶을 유지·보호해준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열심히 재물을 모았다는 뜻이다. 재산 외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밖에 하지 않으니 부자가 되게 마련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려는



것이 잘못이다. 재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무엇보다 선행하기 이전에 인간이 온전한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생각이 문제다. 이 생각의 변화 없이 하는 선행은 온전한 선이 될 수 없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재산을 팔아 이웃을 돕지 않은 것이나 그런 잘못을 회개(悔改)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다. 재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부자는 과연 약대가 바늘구멍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듯이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가? 똑같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고 답했다.


한 개인이 갖는 생각은 평생토록 습득한 지식과 경험에다 자기 기질 환경 여건이 상호작용한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스스로는 절대 바꾸지 못한다. 그때까지 살아 온 자기의 전 인생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성령이 임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옛 사람을 함께 매달아 죽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 - 메타노이아이다.

기독교는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과 연결고리를 끊고 수도원에서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웃에게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고 한 말씀의 본질은 네 생각을 바꾸라고 한 것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간단한 진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각이 바뀐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종교가 참 종교가 되기 위해선 내적 의식의 개혁을 강조하는 ‘의식개 변중심주의’가 병행(並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과 자신을 바꾸는 것은 어느 쪽이 먼저 나와도 상관이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니다. 또 한쪽을 더 강조해 다른 한 쪽을 덜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자신이 바뀐 사람만이 세상을 바꾸지, 세상이 바뀌었다고 자신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꾼을 양성하는 훈련소다. 그러기 위해 언제나 먼저 해야 할 일은 영혼의 구원이다. 사회를 변혁시키는 자가 모두 의식이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식이 변화된 자는 반드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사회의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다.

영생을 얻으려던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켜 선행을 한 것은 따로 훈련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인간이라면 그 형상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회미하게나마 그 흔적이 양심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 정도의 선행은 누구라도 행할 수 있고 최소한 행하려 노력한다. 문제는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심지어 부자 청년은 그것을 깨닫고도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는 돈이 많은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였다. 

##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그 절대적인 배타성 때문에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기독교만



일방적 양보를 강요당하는 측면이 있다. 다른 종교를 관용으로 대하고 이해하고 존경해주라고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요구했지, 그들이 기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등한시하는 것 같다. .

기독교의 유일성과 배타성이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되 가고 있는 길 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정반대이다. 서로 정반대로 달리니까 마주 오는 기차처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 단정 지어선 안 된다. 단선 위에서 두 기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수백 개가 선로 위를 다른 모든 기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면 기독교 기차만 유일하게 북쪽으로 달리고 있는 셈이다.

종교 간의 우월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같은 방향으로 여러 기차가 달릴 때 만 우월의 문제가 발생한다. 엔진 마력, 내부구조, 외양, 승차인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차끼리 장단점을 보완하여 더 성능이 좋은 기차로 개조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와는 경쟁이나 협력이나를 따지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 기차 하나만 끝까지 자기 방향이 옳다고 우긴다면 다른 기차들이 그 기차를 ‘죄악’, ‘교만’, ‘적자생존’으로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외눈박이 원숭이 동네에 두눈박이 원숭이가 왔다고 그 원숭이더러 한 쪽 눈을 칼로 도려내라거나, 외눈과 두 눈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 공평하게 전부 눈을 빼버리자고 할 수는 없다. 사정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두눈박이 동네에 나면서부터 외눈박이인 원숭이가 와도 외눈 옆에 억지로 눈구멍을 파서 개 눈이라도 집어넣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최근에 불교와 기독교의 만나는 일이 많아 그 만남으로 마치 원숭이

동네에 완전한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메타노이아’와 불교의 ‘깨침’을 의식의 전환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공존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분석이다. 인간의 깨우침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이 ‘추구하는 목표점’과 ‘실제 도착하는 종착점’을 혼동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과연 그 모든 종교가 목표하는 역에 도착했는가는 별개 문제다.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종착역은 어디겠는가? 정말 솔직하게 한 번 우리 깊은 속내를 털어 내놓아 보자. 그것은 영생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아니요, 영혼의 평강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깨우침의 종착역이다. 기독교의 메타노이아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 홀연히 밝음(明)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포기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절대배타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유일하게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라는 것이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와 “인간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기에 깨우쳐야만 한다”는 것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다. 한 선로 위를 달리고 있거나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아니다.

기독교의 기차는 엔진과 운전사와 철로 모두를 성부·성자·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 바꾸고 사람은 편안하게 객차에 타고 있다. 다른



기차들은 여전히 인간이 만들고 수리하고 개선하노라면 언젠가는 종착역에 도착하리라 믿고 있다. 목적지는 하늘나라로 동일하지만 목적지 자체가 이 땅이 아니기에 이 땅의 기차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품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외는 불가능하다. 하늘나라에 도착하려면 기차 자체가 은혜를 달릴 수 있는 열차로 바뀌어야 한다. 지상을 달리는 기차를 인간이 아무리 바꾼들 은혜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다른 이보다 뛰어나서 그런 열차를 골라 탄 것이 아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지상의 열차를 타고 있었고 열심히 그 기차를 고치고 조이고 기름 치고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기차가 종착역에 닿았다는 안내 방송이 없고 기차는 여전히 심하게 흔들리며 달리고 있었다. 갈수록 멀미만 나는데도 창밖을 보니까 다른 기차도 열심히 앞서거나 뒤서거나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서 힘들어도 참았던 것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간섭으로 지금껏 열심히 살아 왔던 그 모든 인생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노력으로 행복을 찾고 선을 실천하고 ‘밝음’을 깨우치겠다는 것이 아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헛된 노력이었음을 철두철미 깨닫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깨우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기 모든 삶이 항방 없는 달음질이었고 허공을 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발가벗긴 채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만 그 방향이 옳다고 고집한 그 미련해 보이는 낡은 기차, 그래서 자기도 비난했던 바로 그 기차에 이상하게도 자신이 옮겨 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더 신기한 것은 더 이상 기차의 흔들림이 없고 기차의 전면을 둘러보니 하늘나라가 보인다. 처음으로 다른 기차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깨우침이 종교의 목표가 되면 그 목표는 자칫 일부 종교가·신학자·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다. 지적·영적 사고의 능력이 열등한 자에게는 평생을 가도 밝음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할 리는 없다. 이들 정말 불쌍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깨우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봉사요, 앓은뱅이요, 시체나 다름없는 이들에게는 그 손을 잡고 직접 인도해줄 인도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먼저 깨우친 자로 온 것이 아니다. 이들의 손을 이끌고 천국 열차에 태울 운전사로 왔다.

혹시라도 먼저 깨우친 자의 가르침대로 따라 하면 깨우쳐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사람들은 출생 배경과 인생을 살아 온 여정과 각자의 품성과 은사가 천차만별이다. 말 그대로 다원주의 인테 어떻게 남이 깨우친 것을 답습해서 자기도 같은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 세계 60억 명에 단 한 사람도 DNA가 같은 자 없고 지문이 하나같이 다르듯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진정 다원주의자라면 그런 생각이 틀렸음부터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나아가 진정으로 먼저 완벽하게 깨우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 해야 할 모범이 있겠는가? 인간 스스로 깨우침이 불가능한데 종교끼리 머리를 서로 맞대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깨우침을 갖게 할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종교끼리 정말 협력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는 절대 깨우침이 생길 수 없다는 것부터 합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각 종교로 먹고 사는 종교인들 사이에 가능하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인정을 하게끔 하려고 종교인들의 모임보다는 땅 끝까지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성령의 체험이란 것이 신비하고 극적인 체험을 통해 절정의 감격을 느끼는 것도, 혹은 시야가 훤히 밝혀져 지혜가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깨우침도 회개도 회심도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라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유사 이래로 어떤 종교적·철학적·사상적 조류와 이론의 내용이 아무리 심오하고 고상해도 이 두 방향으로 달리는 열차로 나뉜다. 다른 모든 기차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차를 장식할 필요가 없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착역에 관한 확신이 없는 다른 기차들은 항상 수리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온갖 새로운 종교가 생성된다. 또 그래서 각각의 종교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일단 기차를 만들었으니 달려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느 방향을 가든 문제가 아니다. 정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 깨우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이다. 똑같이 기차처럼 생겼고 동일한 모습으로 철로 위를 달리고 있으니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말이다. 인간이 깨우침으로 득도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깨우침으로 득도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이므로 출발역도 다르다. 출발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종착역이 같을 수 있는가?

서로 목적지는 같을지 몰라도 도착지는 다르다. 둘 중의 하나는 착각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협력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오해를 말아야 할 것은 불교라는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 불교


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무조건 종교끼리 협력과 관용이 절대 능사가 아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할 뿐이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방향이 다른 두 기차 중에 어느 기차를 타야 궁극적으로 바른 도착을 할 수 있는가이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여 죽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느냐는 것과,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으니 겸허하게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둘 중 하나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다른 것을 탈 수 있다. 둘 다 택할 수 있거나, 둘을 교묘하게 섞어 타협할 수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한 방향으로 함께 계제가 절대 아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는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는가의 차이이다.

현대의 경향은 이 둘 중에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는 쪽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난 후에 구세주로 모실 때의 삶보다 실제 되어가는 형편은 점차 나빠지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예수가 아주 한정된 소수의 종교학자와 지성인과 소위 인격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교회가 빈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구세주 예수가 떠나고 스승 예수가 들어서고부터 교회의 좌석은 비기 시작하고 사회는 멍들어 간 것이다.

주위의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놀려 있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둘러보라. 그들에게 깨우침이 필요하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가 필요하겠는가? 스승으로서의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예수가 가진 믿음으로서의 믿음 그런 믿음은 생명이 없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길이요 진리다. 그분 외에 하



나뉘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예수는 이 땅에서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는 분명코 없다. 



## 저작 후기



어린이들의 싸움은 서로 말꼬리를 붙들다 누가 마지막의 말을 하느냐에 그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반박을 못할 만큼 기발한 착상을 하든지, 아예 목청이 아주 크든지, 아니면 귀를 막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깁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내 스스로 자꾸 어렸을 때 기를 쓰고 말로 싸웠던 그 심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감히 필자가 마지막 말을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글이 세상에 나오므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한참이나 망설였고 쓰는 도중에도 자꾸만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도하지 않았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말로 제대로 설명이 되며 불신자로 하여금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자연인이 끌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신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절대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혹시라도 십자가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런 저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오직 수시로 새로운 계시와 지혜와 위로로 채워주신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도 개인적인 집필 이유 하나를 구태여




들자면, 주위의 신자들 가운데도 오 박사님의 책을 보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간혹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을 마치 신자는 절대 보아서는 안되는 판매금지 리스트에 올려놓고 아예 팔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이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란 자기가 가진 복음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란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자기 일생의 자랑거리가 된 자입니다. 2천 년 전 십자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의 심령에 새겨진 비석으로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오 박사님이 제기한 여러 기독교의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은 사실 신자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절실하게 느꼈던 것을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이 갖는 그런 의문점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감히 붓을 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물론 신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어디까지나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사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면 필자는 종교 간의 관용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 뿐이라고 믿습니다. 필자의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저의 한 가지 소박한 바람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이 글을 통해 씻어주셨으면 합니다.

오 박사님의 책 가운데 아직도 반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차치 말꼬리를 잡아 끝없는 논쟁으로 비화될까 각 항목의 중심

사상만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박사님 책의 예수는 한 마디로 ‘스승’이었다면 저의 책에선 ‘구세주’ 예수를 강조한 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책이 꼭 어떤 책을 반발하는 비평서로만 읽혀지기보다 성경에 대한 해묵은 몇 가지 의문을 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데 적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큰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이 책에 쓰인 내용들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 종교나 교파를 비난하려는 개인적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다면 기독교를 강조하다 보니 반사작용으로 그럴 수도 있으려니 재삼재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은이 : 박진효  
초판일 : 2003년 4월 10일

펴낸이 : 최송구  
펴낸곳 : 도서출판 나뭇잎  
<http://www.nadbem.co.kr>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8-36호  
전화 : 02) 373-5650, 016-771-5650  
등록번호 : 제 8-237호  
등록일자 : 1998. 2. 20  
편집·제작 책임 : 김이리

값 : 10,000원

질문 제보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저자와 합의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ISBN 89-88146-20-4 03230